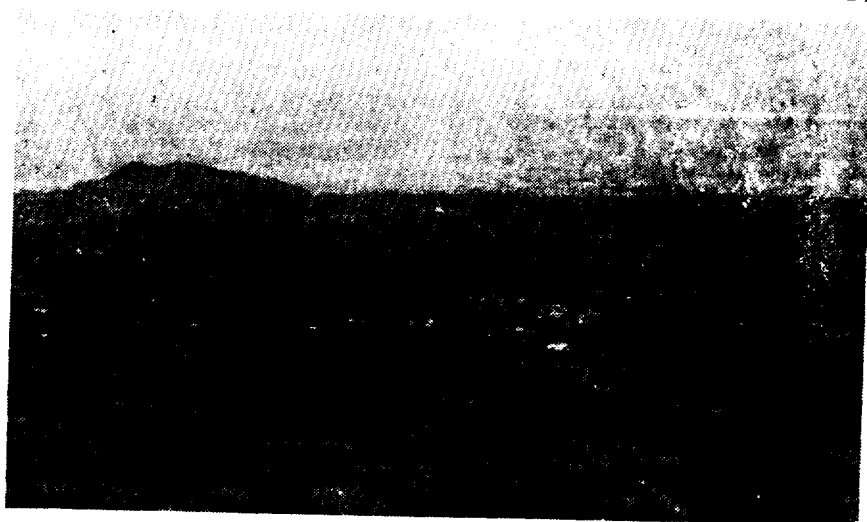


濟州道 北濟州郡 朝天邑 善屹里 現地學術調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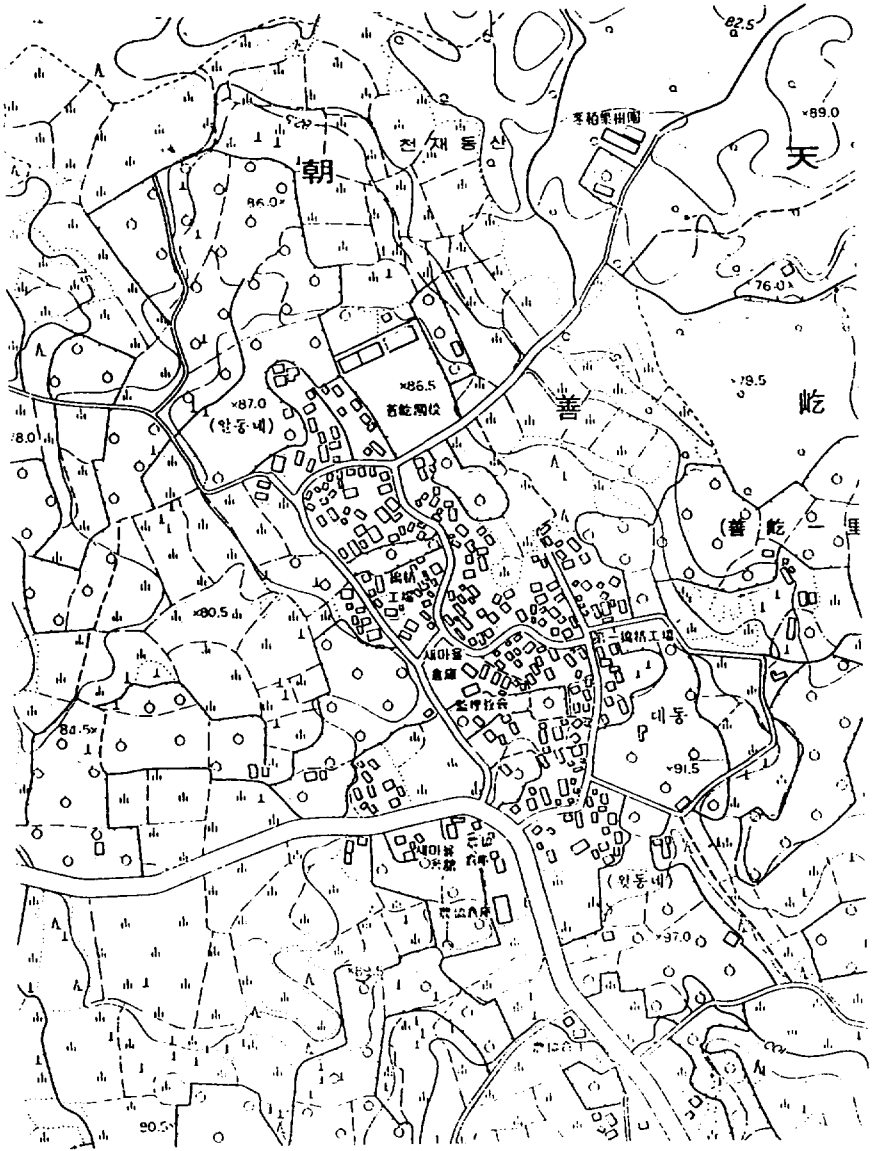
(1992. 7. 24 ~ 7. 27)

1. 調查經緯
2. 마을개황
3. 方 言
4. 民 謠
5. 說 話
6. 信 仰

(선출리:웃선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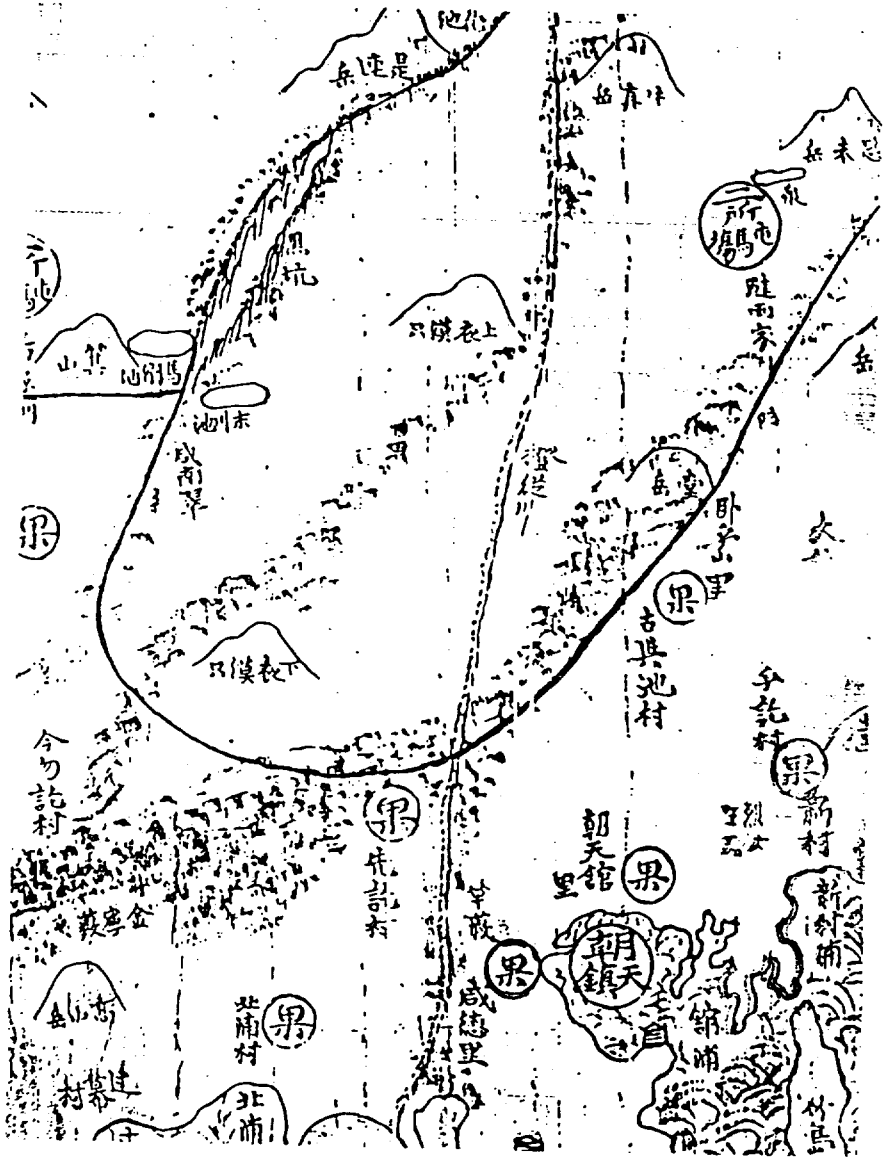


선홍 부근지도



縮尺 1 : 5,000 20% 縮小複製

고지도



調查經緯

급번 학술조사는 1992년 7월 24일(金)부터 7월 27(月)까지 3박4일간 조천읍 선홀리에서 이루어졌다.

그 동안 전도 구석구석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유독 조천읍 관내 여러 마을에 대해서는 한번도 조사를 해보지 못하였다. 이는 제주의 언어, 민속, 구비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할 우리로서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조천읍 관내에서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6월 30일 와산, 대흘, 선홀, 조천 등지에 대한 사전 답사를 벌인 결과, 그 중에서도 비교적 역사가 오래 뿐 아니라, 아찔쩍 전통적인 문화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선홀리를 조사지로 선정하였다. 다만, 1리와 2리를 모두 조사할 경우 그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나, 2리의 경우 외지인이 대부분인 관계로 마을개황을 파악하는 데 소용되는 통계자료 조사 이외에는 따로 조사를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해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선홀리에 대한 2차 사전답사는 7월 7일에 실시하였다. 이 때는 주로 체보자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이 때 얻어진 체보자 명단이 본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사전답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21면의 자료집으로 묶어 7월 18일자로 발간하여 조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에는 예년과 다름없이 학과 재직교수, 재학생, 동문이 참가하였다. 김태근(方言), 문성숙·안성수(說話), 윤석산(民謠), 현용준·양순필(信仰) 교수님이 분야별 조사반을 지도해 주셨다. 그 밖에, 송상조, 고창근, 문덕찬(이상 方言), 변성구(民謠), 현승환, 부인식, 강정식(이상 說話), 임용진, 이창우, 강철수, 전은영(이상 信仰) 등 동문들이 도움을 주셨다. 조사반별 참가학생은 아래와 같다()속은 재학 학년.

方言 : 홍은희(4), 문숙영, 김범진(3), 김경옥, 정경숙(2), 강순선, 김현주, 강향선, 전미선(1)
說話 : 강정실, 이정숙, 김인자, 김미자, 홍은미(3), 양정미, 안선미, 한인숙, 양예란, 황문희(1)
民謠 : 강문영, 강필애, 빈성희(4), 현순영(2), 김지순, 고상수, 김지훈(1)
信仰 : 김형미(4), 부현주, 이은선, 양지연, 강미영(2), 양정임, 이현숙(1)

3박4일간의 학술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일(7월 24일) : 오전 9시 30분 학교에 집결 인원, 장비를 점검한 다음 10시에 학교 버스에 승차하여 11시 선홍국민학교에 도착하였다. 12시까지 숙소 정리를 하고 1시까지 중식을 마쳤다. 1시에 마을 이장님을 모시고 마을현황에 대한 말씀을 청해 들었다. 2시부터 반별 조사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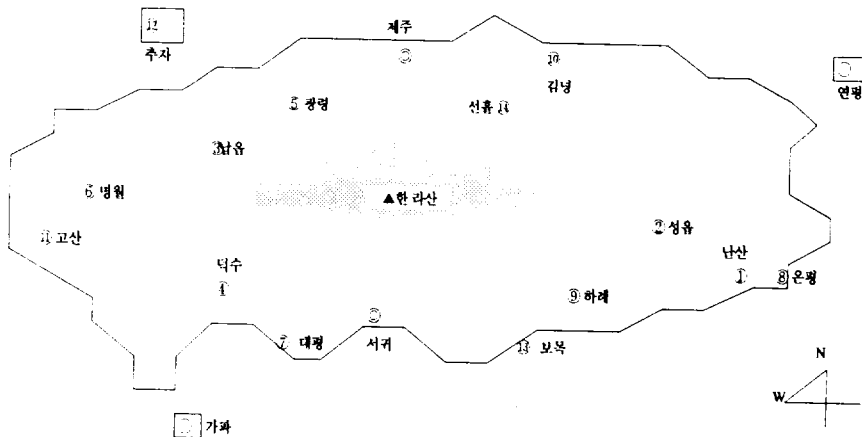
제2일(7월 25일) : 첫날의 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였다.

제3일(7월 26일) :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자체 평가한 다음,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밤에는 전체적인 조사현황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였다.

제4일(7월 27일) : 미비한 부분을 보충, 마무리 하고 오후 1시에 귀로에 올랐다.

3박4일간 조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선홍1리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여러분, 그리고 선홍국민학교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도에 힘써 주신 교수님과 동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애쓴 조사반장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기존 조사지점도(1976~1992)



- | | |
|-------------------------|-------------------------|
| ①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1976. 8) | ⑧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1986. 7) |
| ②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1977. 7) | ⑨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1987. 8) |
| ③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1978. 8) | ⑩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1988. 7) |
| ④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1981. 7) | ⑪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1989. 7) |
| ⑤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1983. 8) | ⑫ 북제주군 추자면(1990. 7) |
| ⑥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1984. 8) | ⑬ 서귀포시 보목동(1991. 7) |
| ⑦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1985. 8) | ⑭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리(1992. 7) |

마을개황

목 차

- | | |
|------------|-----------|
| I. 자연환경 | III. 인문개황 |
| II. 역사적 배경 | IV. 산업구조 |

I. 자연환경

선홀리는 경도 극동 175° 극서 170°, 위도 극남 43.7° 극북 53.2° 에 위치하고 있다. 선홀리는 제주시로부터 18.5km, 2리는 26.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다. 이 마을은 1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2리는 최근에 정부시책에 따라 '양잠단지'로 새롭게 개발된 마을이다. 두 마을의 거리는 약 8km나 된다.

이 마을을 운행하는 교통편은 함덕을 기점으로 와산, 대흘 등을 경유하며 순환 운행하는 순환버스가 전부인데, 이것마저 1시간에 한 대 정도로 배차되어 있어 주민 나들이가 불편한 상황이다. 다만, 요즘에는 주민들 중에도 자가용을 소유한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불편이 상당히 해소되었다.

선홀1리에는 알밤오름(393.6m), 선홀2리에는 옷밤오름(416m), 우진재비(412m), 거문오름(454m), 민오름(519m), 부대악(469m) 등의 '오름'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오름은 그 면적으로 보면 그리 넓지 않다.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토지와 택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비교적 평지에 가까운 완만한 경사면이다. 중산간 부락인 탓에 주산업은 농업이며, 너른 초지와 임야를 갖추고 있어 마을 공동목장을 중심으로한 축산업도 상당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옛날부터 흉년 때마다 진흙미를 진상했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잘 되었고 한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수가 없는 탓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때까지는 식수난으로 고생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토가 비옥한 까닭에 최근까지만 해도 읍지역에서는 가장 地價가 높은 마을이었다 한다.

II. 역사적 배경

선흘리는 문무급제자와 학자를 많이 배출한 양촌이다. 선흘리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행정 구역 편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천읍 약사

1413년 本州 東面

1609년(광해군 원년) 濟州牧 左面

1875년(고종 11) 新左面

1915년 濟州島 신좌면

1935년 朝天面

1946년 濟州道 北濟州郡 조천면

1985년 朝天邑 승격

선흘리 약사

선새미

선흘(先屹, 先屹, 善屹, 善屹,)

일제시 선흘1구, 2구로 分離

1972년 4월 8일 선흘1리, 2리로 分里

선흘리의 設村 年代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설촌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며, 다만, 대략 650~700여 년 전인 고려 충렬왕 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마을의 고명은 새미 또는 선새미이다. 선새미는 지금의 土栗岳 盆地에 있는 샘으로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솟는다고 한다. 玄氏가 설촌시에 개발하여 이용하였다고 해서 이 샘을 '현샘'이라 불렀었는데, 이것이 구개음화하여 오늘날에는 '선샘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이 마을은 옛날 旌義縣으로 왕래하는 중심행로였다. 조선 시대에 출장하는 관리들이 숙박

하는 곳인 東齊院이 이 마을 남쪽 지경에 있었다. 이 지역은 땅이 매우 기름져 오곡이 잘 되었으므로 주민의 생활이 윤택하여 큰 마을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 한다. 먼저 玄氏, 文氏, 全氏 등이 알선홀을 이루었으며, 이들이 이웃마을과 왕래하며 생활하는 동안 교통이 점차 발달하였다 한다. 한편 웃선홀에는 1550년 경¹⁾ 안씨가 남읍리에서 이주해와 먼저 자리를 잡아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에,

“善化 주 동쪽 35리에 있으며, 유자 47주, 치자 46주, 비자 7주, 칠나무 96주, 닥나무 87주, 동백나무 3주가 있다.”

라고 한 기록으로 보아, 선홀에 과원을 두고 관리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생이 부근에 국장이 있어서 1-10소장의 소 중에서 特點있는 짐은 소를 진상품으로 보아 거두어 길렀다고 전한다.²⁾ 이 마을에는 오래된 지명들이 그대로 전해오고 있는 예가 많다. 병사의 교련장이던 병대왓, 승리의 개가를 올린 개선밭, 진을 쳤던 진터, 활을 쏘던 사장밭이 있다. 그리고 풍년과 마을의 和平, 安寧을 天神에 기원했던 帝釋동산이 있는데, 이 제석동산은 支石동산 혹은 고인돌이 있는 동산이라고도 한다. 또 무당이 巫神을 모신 곳이 있는데, 알선홀에 아들하르방당, 웃선홀에 일뿔할방당이 있다.

그리고, 낙선동 병대왓 일대에는 오랜 집터들이 있어 기왓장과 고려자기 파편이 발견되는데, 속칭 묵은가름, 묵은터 동산, 문구리집터, 만수집터, 마감집터, 장선달집터, 당아진밭, 당동산 등이 그것이다. 알선홀 셋가름은 돛바령이라고도 하며 설촌 당시에는 땃대지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서기 1900년 경에는 楠檀 李太成³⁾이라는 분이 ‘착한 기상이 산과 같이 높게 뿔어 나아가라’는 뜻으로 글자만 고쳐 현재와 같은 善屹리가 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때 알선홀은 落善洞으로, 내생이동은 善仁洞으로, 영도는 白花洞으로, 큰물도는 大水洞으로, 새동네는 長生洞 혹은 壯上洞으로 각각 改名된 것이라 한다.

한편 선인동은 350여년 전 김해 김씨를 중심으로 문씨, 허씨 등에 의하여 설촌된 마을이다. 일제시 선홀二區로 분리되었으며, 일본군이 주둔하여 상당한 피해를 보았던 적이 있다. 또한 4·3사건 당시 진압군에 의해 소실, 폐동되었다가, 1962년 10여호가 귀농정착단으로 산재하여

1) 그 시기는 족보를 통해 추정된 것이라 한다.

2) 부봉용씨의 말

3) 부봉용씨에 의하면, 이태성 선생이 서당을 열었을 때 함덕, 대흥, 북촌, 김녕 등지에서 수학하러 모여 들었다고 한다.

제권하였다. 이 때 다시 선홀리에 편입되었으나, 양잠단지(1차단지 15호, 2차단지 15호)가 조성되면서, 이 지역 가호가 50여호를 헤아리게 되었다. 당시 도로사정이 불편한 실정에서 선홀리와 8km나 떨어져 있는 까닭에 리행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선홀2리로 다시 분리되었던 것이다.

Ⅲ. 인문개황

선홀리는 3개 자연부락 10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홀리의 인구는 253가구 1,070명으로 1리에 대다수(190가구 813명으로 전체의 약 76%)가 거주하고 있다. 주민 대다수인 9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농가는 겨우 7%에 불과하다. 특히 선홀2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양잠단지'로 개발한 경우여서 전 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선홀1리 주민들은 거의 토박이들이고, 선홀2리 주민들은 이와 달리 대부분 외지인들이다(전체 가구의 약 10% 정도만이 토박이다. 선홀분교 학생의 부모 15명중 겨우 3명이 체주 토박이다). 두 마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주민들의 이질감도 심해서, 상호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전혀 별개의 마을처럼 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1 인구현황

(단위 : 가구, 명, ()은 %)

구 분	가 구 수			인 구 수		
	농 가	비 농 가	계	남	여	계
선홀1리	173 (91)	17 (9)	190 (100)	386 (47)	427 (53)	813 (100)
선홀2리	63 (100)	0 (0)	63 (100)	126 (49)	131 (51)	257 (100)
계	236 (93)	17 (7)	253 (100)	512 (48)	558 (52)	1,070 (100)

성씨분포를 1989년도에 간행된 『조천읍지』의 자료를 통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단위:세대).

金 116, 高 72, 夫 26, 李 24, 韓 21, 梁·朴 15, 吳·姜 14, 文 12, 趙·尹 9, 康 7, 洪 6, 許 5, 白 4, 朱·張·崔 2, 鄭·車·徐·左·蔡 1

김씨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고씨, 그 다음으로는 부씨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씨가 한 마을에서 차지하는 분포가 이처럼 앞 순위에 드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 마을에는 고령의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인근에서는 장수마을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여성들로 4·3사건으로 남성들이 많이 희생되어 이같은 현상이 생긴 것이다. 또한 조사시의 인구수는 195가구, 889명으로 표에 나타난 것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며, 이 해 연말에 발간된 북제주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1,055명(남 520명, 여 535명)으로 다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 바(선홍2리는 거의 변동없음), 인구변동이 매우 불규칙하며, 주로 선홍1리에서 변동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에는 초등교육기관으로 선홍국민학교(1019번지 소재)와 선인분교장(1947-15번지 소재)이 있다. 선홍국민학교는 선홍간이학교(1936.4.5)로 출발하여, 선홍공립국민학교(1944.5.15)로 승격되었다가, 1949년 4·3사건으로 인한 마을 소개시 폐교된 바 있다. 이듬해 함덕국민학교 선홍분교장(1950.8.3)으로 다시 문을 열었으며, 1953년 4월 1일자로 선홍국민학교(2학급)로 개교를 보았다. 1972년 3월 1일에는 6학급 인가를 받았으며, 1974년 3월 9일에는 양잠단지 분교장(1학급)도 인가를 받았다. 1982년 3월 1일에는 분교장 명칭을 선인분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1985년 3월 1일에는 선인분교장이 2학급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84년 3월 5일에는 선홍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1학급) 인가를 받아 이 마을 유치원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다.

표2 선홍국민학교 학생현황

(단위: 학급, 명)

구분 성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남	6	30	1	3	1	6	1	2	1	9	1	4	1	6
여		42		6		4		7		5		10		10
계		72		9		10		9		14		14		16

(제주교육통계연보1992, 제주도교육청)

표3 선인분교 학생현황

(단위: 학급, 명)

구분 성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남	2	14	1	0	-	2	-	5	1	3	-	3	-	1
여		10		1		2		2		2		0		3
계		24		1		4		7		5		3		4

(제주교육통계연보1992, 제주도교육청)

이 마을에는 역사유적은 없으나, 도지정문화재인 지방기념물 동백동산과 백서향, 변산일엽군락이 있다(북제주군지).

동백동산은 1971년 8월 26일 도지정문화재 지방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된 곳이다. 동쪽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데 그 규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유일한 것이다. 이곳에는 동백나무 말고도 종가시나무, 후박나무, 빗죽이나무 등 난대성 나무들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밑에는 새우난초, 보춘화, 사철란 등이 자생하고 있다. 약 2백년 전부터⁴⁾ 동백나무 숲을 이루고 있었으나, 1948년 4·3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무들이 베어져서 황폐화하였다. 그러나 그후 베어진 나무 밑줄에서 새순이 돌아나 지금은 높이 2~5m나 되는 큰 동백나무들이 원시림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제주도에서 평지에 남은 난대성 활엽수림으로서는 가장 면적이 넓은 뿐 아니라, 숲 주위에는 백서향나무, 변산일엽 등 희귀식물이 자라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다.

리소유가 원칙이나 개인 공동명의(150여 명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소유권 분쟁 소지가 있다.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은 1974년 4월 13일 지방기념물 제18호로 지정되었다. 백서향은 팔꽃나무과에 속하는 상록활엽의 관목으로 2~3월에 흰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꽃향이 독특하고 강하여 흔히 '만리향'이라고 한다. 변산일엽은 조리고사리과의 양치식물로 섬섬(森島·서귀포시 보목동 앞바다에 있는 섬)의 파초일엽과 비슷하나 잎꼭지가 있고 잎 뒤에 포자가 붙은 것이 다르다. 이 변산일엽은 북방계의 식물로서 육지부 서해안의 변산반도와 선흘리를 비롯하여 제주도의 일부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희귀식물이다. 그늘진 나무 밑에서만 자라며 그 수도 많지 않다.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되는 중 도채꾼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것이 1990년 9월 4일에 발견되어 충격을 던져 주기도 했다.

이 마을에서는 전통적인 무속신앙이 유지되고 있으며, 유식 마을체인 포제도 지내고 있는 한편, 기독교 선흘감리교회(선흘리 1115번지. 86년말 현재 신도수 25명 '북제주군지', 90년 현재 80명 '조천읍지'), 선흘장로회(선흘본동 신도수 200명 '조천읍지'), 선흘안식교(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선흘2리 선인동, 신도수 20명 '조천읍지') 등도 있어 다양한 신앙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무속신앙, 포제, 선흘감리교회에 대한 것은 이 조사보고서의 「신앙」쪽 참조).

4) 부봉봉씨 말에 의하면, 1894년 가뭄이 들었을 때 화재가 발생하여 나무가 타버렸는데, 후인들이 가꾸어 다시 울창해졌다고 한다. 그 전에는 나무가 하도 울창해서 무당 본풀이에도 주변 마을에서 나무해 갔다고 할 정도였다.

IV. 산업구조

농가가 대부분인 이 마을의 토지이용 실태를 보면 표와 같다. 전체 3,210ha중 임야와 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3%로 가장 많고, 과수원이 9%, 전이 5%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목축과 과수재배가 이 마을 농업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과수원은 선홍1리에만 조성되어 있으며, 선홍2리에는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4 토지 이용 현황

(단위:ha)

구분	총면적	전	과수원	초지	대지	임야	묘지	기타
선홍1리	1,968.8	84.7	286.3	379.3	31	1,157.0	5.9	24.6
선홍2리	1,241.2	81.2	-	217.0	2	906.8	3.7	30.5
계	3,210.0	165.9	286.3	596.3	33	2,063.8	9.6	55.1
()은 %	(100)	(5)	(9)	(19)	(1)	(64)	(0.3)	(1.7)

농업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농산물 생산현황을 통해 보면, 감귤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마을에서 감귤을 최초로 재배한 것은 1969년의 일로, 부 옥홍씨가 임은주 21년생 2,540평을 재배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한다(조천유지.). 감귤은 과수원으로 조성된 286.3ha중 286.2ha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 마을 과수재배가 전적으로 감귤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두 재배면적이 160ha에 이르고 있으며, 배추 재배면적이 70ha에 이르고 있다. 한편 보리와 유채 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아 이들 작물재배가 현저히 퇴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약 4.5년 전부터 생겼다 한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요즘은 수박재배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다 한다. 1985년 7월 말부터 하나에 10Kg이나 되는 박수박이 본격 생산되기 시작했다고 한다(북계주군지.).

표5 농산물 생산 현황

(단위:ha, M/T)

구분	보리		조	대두	메밀	고구마	참깨	감귤	감자	유채	마늘	배추	땅콩
	쌀보리	맥주맥											
면적	9	39	4	160	7	0.2	40	286.2	3	40	2	70	0.5
생산량	25.1	112.7	6.6	224	4.2	4.1	20	7,293	9	68.5	19.1	4,620	0.6

善屹里 學術調查報告

가축 사육 현황을 보면, 소득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말, 닭, 개 등을 제외하면, 주로 소와 돼지 사육에 소득원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는 한·육우가 362마리로 젖소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나, 젖소도 138마리나 돼서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6 가축 사육 현황

(단위:마리)

구 분	소			말	돼지	닭	개	비 고
	한·육우	젖 소	계					
선홍1리	348	125	473	10	1,607	12	54	마을 共同牧場
선홍2리	14	13	27	-	-	20	37	"
계	362	138	500	10	1,607	32	91	

이 마을에는 기업목장도 3개나 자리잡고 있다. 이들 목장은 축사, 부속사, 싸이로 등을 갖추고 있다. 조천목장(103번지)이 625.6ha의 토지에 소 375마리를 비롯 가축 428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한양목장(540번지)이 452.9ha에 소 50마리를 비롯 가축 150마리를, 삼성목장(1681번지)이 82.6ha에 소 75마리를 기르고 있다(통계연보).

한편, 대규모 양돈장도 여럿 된다. 조천읍지에 의하면 아진농원(121-4번지)이 700두, 대성농장(994번지)이 386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130두 이상 사육하는 곳도 3-4곳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민규 편저, 『조천읍지』, 제주문화, 1991
 북제주군, 『1992 통계연보』, 1992
 이원진, 『탐라지』, 1653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통계』, 1992
 조승철, 『제주의 종교실태』, 보라문화원, 1987
 한라일보사, 『한라연감』, 1991

方 言

목 차

I. 農業 語彙	IV. 住生活 語彙
1. 곡식	1. 가옥구조
2. 채소	2. 부엌
3. 잡풀	3. 문
4. 농기구	4. 부속건물·기타
5. 정미기구	V. 動物과 植物
6. 기타	1. 새
II. 衣生活 語彙	2. 김승·가축
1. 의복	3. 뱀
2. 모자·신발류	4. 곤충
3. 빨래·바느질 용구	5. 식물
4. 옷감류·기타	VI. 기타
III. 食生活 語彙	1. 신체부위
1. 음식	2. 가족사항 관련 어휘
2. 식생활 도구	

이번 방언조사는 어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동안 수차례의 조사가 어휘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문법, 용언 등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됐지만, 조천지역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어휘분야는 지역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파악하기 쉽다는 조사자의 편익이 맞물려 다시 어휘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다.

부문별로 어휘들을 모아 질문지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질문지는 농업·의생활·식생활·주생활·동물과 식물·기타 등 크게 여섯부분에 걸쳐 약 500여 개의 어휘로 이루어진 것인데, 실제로는 조사중에 덧붙여진 것과 각각의 어휘에서 종류에 따른 어휘 - 나무(나무)이라 하면 나무의 종류에 따라 드러나는 어휘들 - 의 분화까지 계산한다면 약 700여 개의 낱말이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마련된 질문지를 통해 현지에서 정리한 전사자료 및 각 조사반원이 부문별로

다시 녹음 테이프를 정리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방언이니만큼 표기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선 어원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분철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그 외 어원을 알 길이 없는 낱말은 가능한 한 발음나는대로 옮겨 놓았다. 형식은 표준어를 먼저 내세워 그에 해당하는 방언을 표기하고(예, 쌀 : 산디), 그 방언에 해당하는 표준어가 적절치 않거나 찾기 어려운 것은 '*' 표시를 하거나 한 칸을 들여 썼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낱말들은 줄선으로 연결하여 설명했다(예, 주:니콩 - 존콩). 물론 설명 문장도 현지에서 채록한 그대로를 옮겨 놓는 데 주력했다.

끝으로 본 조사에서 채록된 방언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가지 살펴보면 표준어와 유사한 발음에 'ㅣ'모음이 첨가된 낱말들이 무척이나 많았다는 점이다. 방앗공이를 '방엿귀', 방아차경을 '방아채경', 치마를 '치매'라고 하는 등이 그 예이다. 이것들은 노인들 특유의 언어습관인지 아니면 제주도 방언 전반에 걸친 언어현상인지 구명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그리고 '이'로 끝나는 낱말들도 많다. 상투를 '상통이', 누렁지를 '누녕이', 감주를 '감쥐'라 하는 등이 그 예이다. 이 또한 성격 구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I. 農業 語彙

1. 곡식:곡식

보리

- 맥주보리
- 쌀보리 - 솔오리
- 질오리, 곁보리
- 먹보리 - 질은 보라색

벼 : 산디 · 나룩

- 참쌀 - 츠나룩
- 감산디, 붉은 산디

조 : 조

- 서숙, 검은 호린조, 모인조

콩 :

- 머드래콩 - 빨간 콩, 조 갈 때 틈틈이 뿌렸다가 조 거둔 다음에 먹는 것
- 독새기콩 - 굵은 콩

- 주노니콩 - 좁진 거
- 보리콩 - 주로 삶양 먹는 거
- 팜월배 - 지금 콩나물 짓는 콩
- 둠비콩

팜 : 풋

깨 : 께

- 검은 께, 노린 께, 흰 께
- 팔목께 - 께 껍질이 여덟 개 각이 진 것

감자 : 지슴

고구마 : 감제

메밀 : 모말·모물

녹두 : 녹디

수수 : 대죽

- 비대죽, 새당대죽, 동글대죽(=솔대죽)

옥수수 : 옥수쉬

* 이삭 : 고고리

2. 채소

배추 : 배치

무우 : 무수·무시·눔뻬

- 장다리무우 : 춤누물쌈 - 씨를 받으려고 키운 무수.
- 동지 - 누물 꽃 피기 전에 올라온 것

나물 : 누물 - 동지누물, 갯누물

고추 : 고치

- 푸린 고치(선 때 만 것), 붉은 고치(빨갭게 익은 것)

오이 : 웨 - 물웨

참외 : 춤웨

파 : 페마농

마늘 : 콤대산이

* 꿩마늘, 드룻마늘

부추 : 새우리

갯잎 : 유잎, 옷섬 - 들깨잎

상추 : 부루

버섯 : 버섯

- 벨버섯(독버섯)
- 폭낭버섯 - 낭 트멍에 나는 버섯
- 촌낭버섯 - 촌낭에 나는 버섯
- 물똥버섯

질경이 : 배채기

* 갯노물 - 보리밥 해먹을 때 보리밥 부끄민 썰어 그 물 걸여 갯노물 넣어 덮었다가 얼
여 물 흐끔 들어청 먹는 거주게.

3. 잡풀

김 : 김질, 지슴

산마 : 삼마

- * 들룻 - 숲양 먹는 것. 씻어 향 걸여 밭외 강 거멍헌 때 밭양 허주.
- * 여름에 나는 것 : 재완지, 촌비늬, 뽕땡쿨, 물모작쿨
 - 쌍고지 - 큰 것(큰 것은 쇠터락)
- * 천상쿨 - 출왓에 맨 핫주
- * 눈뽕래기, 코뽕래기 - 담에 나는 것
- * 매마, 소시락쿨, 풋개, 대롱개, 하늘 풋개
- * 물루동낭에 - 익으른 거멍행 쿨에 타 먹는 거주, 상동보다 큼
- * 까마귀바늘 - 옷에 붙는 것
- * 삼수새기 - 옷에 붙는 건디 잎이 붙는 것
- * 자굴 - 해져가면 줌자고 해 나면 바짝 퍼져.

4. 농기구

삼 : 갈래죽

괭이 : 괭이 · 주개괭갱이

호미 : 괭갱이

장호미 : 큰호미

비호미 : 준호미

낫 : 호미

도끼 :도치

삼태기 : 괭채

- 칩괭채, 대괭채

* 따비 - 밭에서 손으로 잡양 일구는 것

* 흘태 - 훑는 것

* 그랫방석 -동글락 허고 니귀방장헌 거(네 귀툽이가 반듯한 것), 멍석

숫돌 : 섯돌

쇠스랑 : 쇠스렁

바가지 : 박새기

* 채 - 대채, 덧거름채, 그는 채, 푸는 채

- 푸는채 - 자골푸는채, 대푸는채
- 합채 - 밀그루 치는 것(=그는채)
- 중채 - 깨 같은 거 치는 것

* 일랭이 - 태작할 때 걸르는 것

* 괭갱이 - 소낭밭되 강 굽는 것

지렛대 : 철개 · 벤줄래

도리깨 : 도깨

善屹里 學術調查報告

- * 솔박 : 깨 일루는 것
- * 꼬슬코 : 발고랑을 댜작하게 만드는 것
- * 곰배 : 병뎡이 두들경 퍼는 것
- * 호랭이 : 돌리멍 새끼줄 만드는 것
- * 뒤치기 - 줄 끈 걸 모으는 것을 얼운다 한다.

5. 정미기구

방앗공이 : 방앗귀 - 이어도 방앗귀랜도 했주.

절구통 : 방앗혹

- 방아채경 - 통나무로 파정 방애즈룩 찌르는 것
- 방애즈룩 - 방애 절렀당 땃당 허는 막대기
- 돌혹 - 작은 절구로 마농 같은 거 뺏는 것

* 날래 - 보리나 조 널어는 것

* 설래 - 날래를 편편하게 퍼는 것

맷돌 : 그래

방아 : 방애

디딜방아 : 도고방애

말방아 : 물방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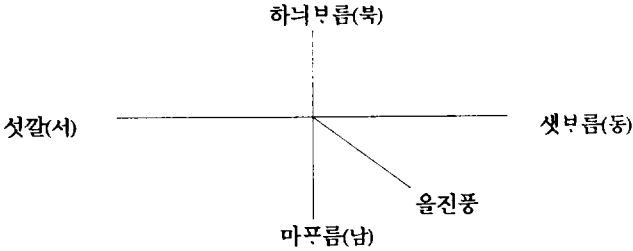
- 남방애 · 이어도 방애 - 사람 혼자 찧는 것

6. 기타

- * 박 - 물박, 남박새기(나무로 만든 것), 록박(록박새기), 작박(장 거리거나 숲의 물 거릴 때 씌), 함박(남박보다 큰 것으로 박으로 만들)
- * 구덕 - 허벅 드리치는 것
- * 팽 : 대반이 - 막 어린아이들은 팽지곡 조금 크면 대반이, 더 크면 허벅 짐

- * 허벅 - 종류가 막 한디 어른이 지는 건 열 되.
- * 물바드랭이 - 물항아리 덮는 것
- * 구불랭이 - 천으로 허벅질 때 아프지 말라고 하는 것

바람 : 브름



일군 : 놉

- 개역삼 - 일부에게 내치는 새참
- 첫구릉 - 오후에 내치는 새참
- 중식 - 밤에 먹는 것

발두둑 : 칭어리

발이랑 : 이렁

II. 衣生活 語彙

1. 의복

1) 평상복

저고리 : 저구리

- 적삼 - 모시로 만들어신디 외콕인 것, 두 콕인 것은 언제나 저구리랭 했주께. 여름엔 배적삼, 베치마

善屹里 學術調查報告

- 접저구리 - 안팎저구리. 광목 두겹으로 만든 것, 봄·가을에 입었주, 광목저구리깁도 허곡.
 - 미녕저구리
 - 맹지저구리 - 안은 광목이고 맹지는 직적인 거
- 마고지 적삼 : 남자들이 위에 입던 저구리
- 치마 : 치매 - 통치매, 속치매
- * 중의 : 중이 - 중이허든 광목이나 미녕, 배로 홉으로 맹근 거라.
 - 굴중이 - 여자가 입는다 아래에 다림쳐 나서.
- 속옷 : 소중이 - 제일 소꿉에 입는 것
- 고장중이 - 밑이 터진 속옷. 풍성하고 무릎까지 오고 그 위에 치매 입음
 - 단속곳 - 봄 나민 소중이에 바지나 고장중이 입곡 그 위에 통치매. 일할 땐 갈중이에 갈저고리 입었주.
- 조끼 : 조끼 - 여름엔 홉조끼
- * 후루매 : 제 불 때 남자 어른이 입음
 - * 도폭 : 돛복 - 큰 제시 때나 새서방만 입었주.
 - * 갈중이·갈중우 - 감물 들인 것
- 두루마기 : 두루막
- 모시두루막 - 여름에 모시로 혼겹으로 마든 것
- 잠방이 : 잠뱅이
- 버선 : 보선
- 첫보선 - 속이 어신 것으로 봄·가을에 신었주.
 - 홉보선 - 여름에
 - 소개보선 - 솜보선, 겨울에
- * 절목 - 콩 꺾으러 가거나 출 비러 갈 때 신는 버문 보선
 - * 고장바지 - 폭이 넓은 바지. 저술에 입음
-
- * 옷 입는 순서 : 단속곳 - 속곳 - 중의 - 굴중의 - 속치매 - 치매

2) 관혼상제시 의복

- * 건대 - 상제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 위에 건대를 둘러. 여자 상제는 포 쓰고 삼띠를

돌름

- * 방장대 - 큰 상재가 짚는 막대
 - 왕대 방장대(아버지 상일 때) - 아방이 죽으면 무디무디 생각이 난댄 왕대로 허곡.
 - 머구낭 방장대(어머니 상일 때) - 어멍이 죽으면 존 셈이 한댄, 가시 가시마다 생각난 댜 허영 머구낭으로 해주. 손자는 그냥 수리대 막대기 짚곡.
- * 쇠패리 - 상재가 썼던 모자
- * 행경 - 상 났을 때 발목에 매는 천
- * 상재옷 : 재복 - 뒤에 베 혼자락 붙어야 재복이랜 허곡, 그거 안 붙이면 돛복.
- * 띠 - 아방 죽으면 삼띠, 어멍 죽으면 베띠
- * 머리창 - 상 때 여자가 머리에 매는 하얀 천. 이런 걸 복 쓴댄 허주게.
- * 시미옷 - 복곳이라고도 함(영장, 소상, 대상에 남자친척이 입는 옷)
- * 아방은 죽으면 그냥 치맛단 안허영 그냥 감치고, 어멍이 죽으면 알단 허곡.
- * 탈복 : 탈복 - 몽상 벗는 것

사모관대 : 사모관디 · 사미관디 - 관복에 사모관디허영.

장옷 - 여자 시집을 때 입영 온 옷, 새각시옷 입은 우에 머리까지 둘러써움

*과지 · 췌재 - 신방질 혈 때, 걸궁혈 때도 입는 옷

* 마패옷 - 보통때 어린아이들이 입는 것

2. 모자 · 신발류

1) 모자리류

삿갓 :

- 피죽삿갓 - 대 거죽으로 맹긴 것, 제일 큰 것. 돈 신 사람이나 썼주.
- 속삿갓 - 대 속으로 맹긴 것, 돈 어신 사람 쓰던 것
- 태우리 삿갓 - 제일 깨끗락한 것
- 서대삿갓 - 검질 땀 때
- 농립삿갓

善屹里 學術調查報告

- * 낮가오리 - 남자모자, 저슬에.
- * 밀낭패랭이 - 보리짚 · 밀낭으로 우리냥으로 만든 것. 햇빛 막기 위해 씀
- * 정당벌립 - 정동줄로 맹긴 것
- * 방립 - 양반들이 꺾은 거 보지 말랜 쓰고 다니는 것
- * 풍랭이 - 저슬에 쓰는 모자. 늑신네가 씀
- * 휘양 - 저슬에 쓰는데 뒷야개 덮어지는 것. 고급
- * 감티 - 개가죽, 쇠가죽으로 만들엉 추울 때나 사냥 다닐 때 썼주.
- * 우장(새) - 비올 때 쓰는 모자(태우리삿갓 쓴 후에 씀)
- * 토시 : 손도매
- * 판다 : 사미

망건 : 맹긴 - 이 위에 갓 씀

탕건 : 탕간 - 직함 신 사람이 쓰던 것, 물총으로 만든 것

유관 : 선비들 외출할 때 씀, 두건과 비슷, 유관 쓸 때는 갓 안 씀

2) 머리 모양 및 장식

총각머리 : 길게 땀은 머리

낭지머리 - 낭저(빈네 꽂은 머리)

* 건지머리 - 낭저를 안허영 머리를 맨쩍허게 양편으로 말아서 땀아 한쪽으로 고정

* 어포건지(시집갈 때)

* 돌리 - 늑의 머리로 크게 땀아 올린 것

비너 : 빈네

족두리 : 족도리

상투 : 상통이. 속에 동곳을 질러야 머리가 붙주.

머리빗 : (낭)얼레기

* 빗저배 - 얼레기 담아 놓는 것

참빗 : 쟁빗

* 이명걸이 - 건지 벗어지카부던 머리에 묶는 것

3) 신발류

* 가막창신 - 시집갈 때 새각시가 신는 신, 정 박음

* 가죽보신 - 신랑이 신는 신

짚신 : 초신 - 나록짚으로 만듦

나막신 : 남신

3. 빨래 · 바느질 용구

빨래 : 서답

다듬이 : 서답막개

* 물팡들 - 빨래 하는 너팍한 들. 빌래라고도 함.

* 안반 - 빨래 꾸겨지지 말랜 동그랗게 밀앙 하는 것

* 흥짓대 - 풀허영 두들길 때 쓰는 것

* 물막개 - 서답할 때 두들기는 막대

바느질

바늘 : 바늘

실 : 썰

골무 : 골미

가위 : 그새

다리미 : 다리웨 - 숯불 넣엉 다리는 것

* 바늘꺾래 - 바늘 꽃아두는 곳. 녹슬문 속들에 갈앙 쓰곡

* 바늘쌍지

- * 곰 - 단추구멍 혹은 옷의 트임새
- * 운디 - 바느질 할 때 실밥으로 뜨는 것

4. 옷감류 · 기타

삼베, 모시, 미닝, 수시(꺾은 것), 양달양

명주 : 명지

면화 : 면네

- 조패, 마패 - 두건 만드는 것
- 초록 - 푸린 물 들인 것
- 조지 - 붉은 명지

형겉 조각 : 험벽새기

소매 : 소미

고름 : 곰

* 어깨마리 - 치매 어깨에 두르는 띠

Ⅲ. 食生活 語彙

1. 음식

1) 밥종류

쌀밥 : 곤밥, 나룩쌀밥

조밥 : 조팍

팍밥 : 팍밥 - 보리쌀에 팍 섞임

오곡밥 - 이년 운수나 그 해에 굶은 오곡밥 허영 시킬음질에나 뿌리든가 허주. 그냥 먹을 거로 허영은 먹지 않혀여.

2) 국종류

나물국 : 누블국 - 무수국

* 갱 : 갱국, 맹질날 · 재사 때 허영 먹주기.

* 물국 - 장만 낭 끓이는 것, 누블도 놓지 않음

질경이국 : 배채기국

달래국 : 드룻마농국

오이냉국 : 물웨냉국

미역국 : 매역국

냉이국 : 난생이국

고기국 : 피기국

3) 떡 및 범벅류

반떡 : 빙떡 - 모물로 만든 것, 누블채나 풋 낭 했주기.

기중편 : 기갱편 - 막걸리 낭 북삭하게 울으로 올라오랑 피오면 시루에 넣영 찌른 북삭하
게 올라오주기.

가래떡 : 굴떡

* 침떡 - 시루에서 만든 것

* 상외떡

* 조개생젼 - 동글락하게 만든 것인데 시계에 올릴 때 쓰주기.

* 돌래떡 - 넘작하게 허는디 사람마다 안허는 거. 가장자리 도돌아지면 무신 신방이 나타
남 기도 드릴 때 올리는 것.

* 보리떡, 오메기떡, 모물떡, 지름떡

* 범벅 - 대죽범벅, 논쟁이범벅, 감저범벅, 조편범, 누블범벅, 피범벅

* 오메기 - 대죽에 흰쌀 굴양 범벅헌 거.

4) 김치류

배치김치, 늬배김치(짜두기), 새우리김치, 물김치, 부루김치, 미내기김치(미나리김치)

5) 죽류

善屹里 學術調查報告

곤살죽, 메죽, 피죽, 좁쌀죽, 껌죽, 모밀죽

녹두죽 : 녹두죽

* 밥죽 - 보리밥에 호박잎 같은 것 넣은 쑥 죽

* 풋죽 - 동짓날에 행 먹었주.

6) 술

소주 : 소취 - 탁배기를 고수리로 다끄는 것

청주 : 청취 - 탁배기를 짓기 전에 골아앉아 우로 뜬 것

감주 : 감취 - 좁쌀에 꿀 넣 허는 것

과실주 : 볼래술, 삼동술, 탈술, 벨랑귀술, 간잘미술

* 탁배기 - 쌀 골양 문엇당 트면 여기에 쌀로 밥 행 항에 담아 둔 것

7) 기름류

기름 : 지름

- 유지름(들깨지름), 유채지름
- 동백지름 - 돛박지름
- 피마지름 : 피만지름 - 약에나 씀
- 콩지름
- 갯노물지름
- 참기름 : 참지름

8) 기타

두부 : 들비

수제비 : 조배기 - 밀초배기, 모물초배기

무우 말랭이 : 생기리

무침 : 초무새 - 툄초무새

누룽지 : 누냉이

장아찌 : 지시 - 장에 담가 놓는 것

- 마농지시, 유잎지시
- 미숫가루 : 계역 - 보리계역
- 부침개 : 지지미
- 생선 - 자리, 각제기, 조팔락, 고도리(고동), 갈치, 오징어, 조툼
- * 선다리 - 밥 쉬든 누룩 낱 해 먹는 것
- * 때때기 - 감제 말린 것
- * 앞살 - 못살 때 먹을 거 어성 보리를 퍼렁힐 때 베영 말렁 솥안 나둔 것

2. 식생활 도구

1) 식기

- 양푼 : 낭푼이(조그만 것은 남박새기) - 밥 퍼 먹는 그릇
- 그릇 : 사발
- 종지 : 곡박새기 · 작박새기
- 나무국자 : 남국자
- 도마 : 돛배
- 젓가락통 : 젓통
- 젓가락 : 조뽀 · 젓가락
- 숟가락 : 수제
- 주걱 : 남죽

- 남술 · 남죽 - 밥 할 때 중간에 저을 때 썼던 것.
- 시루 : 시리 - 존시리(죽은 시리), 큰시리
- 설겅이통 : 그릇장생이 · 장탱이
- * 바드랭이 - 떡 치는 것
- * 수박귀 - 낫그릇으로 위 아래로 오목한 것
- * 적태 · 펜대 - 대로 만들어신디 뚜껑 이신 것

2) 항아리

- 단지 : 젓갈 담는 통. 조막단지(죽은 것), 단지

- * 춘 - 술 담강 소주로 짓는 것
- * 통개 - 압통개를 아래에 놓곡, 솥통개를 위에 놓곡.
- * 망대기·오가리·쥐동이 - 작은 항, 큰 것은 큰 항
- * 항 뚜껑 - 장태이·항뚜껑

* 크기 순으로 하면 : 단지 - 망대기 - 방통이 - 항

3) 상

- * 외상 - 족은 것, 혼 두 사람만 앉앙 먹는 상
- * 큰상 - 너무작작한 상, 젓상

IV. 住生活 語彙

1. 가옥구조

안채 : 안커리

바깥채 : 박커리

* 모커리 - 혼 곁에 있는 채(정지 있음)

방 : 구들

쪽마루 : 낭간

마루 : 상방·마리

창고 : 고팡(안커리에 있음)

기와집 : 지에집

낙수물 : 지신물, 지슬물 - 지붕 위에서 누리는 물

울타리 : 울담

디딤돌 : 잇돌

주춧돌 : 주춧돌

뒤주 : 두지

골목 : 올래

장독대 : 장항뒤

- * 무똥 - 낭간 배짚
- * 상모루 - 집의 제일 높은 곳
- * 귀역 - 초집 지붕 끝
- * 집가재 - 지붕에 물 흐르는 곳, 지붕의 가장자리
- * 정살 - 대문 없을 때 나무 두개 놓아둔 것, 고맙게 그냥 끼워 두주.
- * 물고랑·물골 - 물 나가라고 만든 고랑
- * 울왓 - 집에 떨어진 밭, 누물 간 밭

2. 부엌(정지)

아궁이 : 굴목 - 부엌에 붙 때는 곳

찬장 : 살래

굴뚝 : 창뚝 - 벽에 만듬

부지깽이 : 부지땡이

연기 : 내

재 : 불치

빗자루 : 빗자락

성냥 : 화곽

사닥다리 : 도리판

삼발이 : 시발쇠

화루 : 화리

- 돌화리 - 고기 굽는 화리
- 정동화리 - 구들에 놓는 화리

석쇠 : 섭쇠, 접쇠

그을음 : 그스렁

- * 솔덕 - 솔 안치는 곳
- * 불갈래 - 삼 닭은 건디 잉걸 건어 내는 것
- * 구문대 - 아궁이 꼭 차면 끊어내는 막대기
- * 솔각 - 소나무 송진 누린 거
- * 태기 - 초집에 대 세웁 흙 발르는 전체를 '태기 한다'고 함

* 축 - 흙 볼른 것

3. 문

부엌문 : 정것문

대문

- 걸쇄 - 문 거는 것
- 통쇄
- 말쇄

미단이문 : 밀창·밀문

여단이문 : 쌀문

돌쩌귀 : 돌처귀

* 샛문 - 구들과 정지 사이의 문

* 먼문간 - 마당과 울래 사이의 문

* 이문 - 배곳딕 있는 문

* 뒷문 - 상방 뒤로 난 문

* 널문 - 널판지로 만든 문

4. 부속건물·기타

변소 : 통시

* 쇠막·서막 - 쇠 묶어두던 곳

* 마구 - 물 매는 곳

* 놀 - 난가리 쌓아둔 것

* 놀굽 - 놀 아래 놓아두는 것

* 노람지·주쟁이 - 놀 덮어두는 것

* 팡 - 물팡 : 허벅 부리는 팡

- 쉬는팡 : 허벅 (물) 절영 오당 쉬는 팡

* 돛집 - 도새기 집

* 것 - 도새기 먹는 것

* 돛도고리 - 것 주는 그릇

- * 쇠석 - 쇠 매는 줄
- * 돌석 - 돌 매는 줄
- * 돌녹대 - 돌 씌우는 것

멍애 : 밭 갈 때 쇠 등에 씌우는 것

- * 쇠질매 - 짐 실을 때 소에 맞게 쓰는 것
- * 너댕이 - 소코 피는 것
- * 망울 - 소 입 막는 것, 물만 먹음 오랜

V. 動物과 植物

1. 새

참새 : 생이

- * 콩생이
- * 물오랭이 - 비오룩 비오룩 울고 주둥이 오그려 부난 물오랭이. 가마귀보다 커.

까마귀 : 가마귀 - 새 중에 크고 새카맣함. 아침에 울면 손님 오젠 험쩌허곡, 굶어 울면 어
디 영장 나젠 험쩌허곡.

비들기 : 비들기 - 다리가 졸랑, 앙큼앙큼 걸어다님

부엉이 : 옥박 - 비오려면 날아다니는 것. 똥쓰레기

뻬꾸기 : 뻬꾸생이 - 뻬꾸뻬꾸 울고 버꾸버꾸 울면 불길

재비 : 지비새 - 삼짓날에 들어오랑 구월 열 몇일날 나감. 쌍놈은 구석에 집을 짓고 양반은
한간에 집을 지음

평 : 장평. 압평. 평독새기(평알) 장평 - 더깡이로 이래 초록초록 오색

- * 비옥새 - 비 온 다음에 움

2. 짐승 · 가축

노루 : 노리

사슴 : 사슴 - 강록(숫사슴)

맹꽁이 : 가개비 - 비 온 다음 맹꽁맹꽁 우는 것 큰 것. 툭툭툭 뽀

개구리 : 맹마구리 - 작은 것

맹꽁이알 : 갯배리 - 가개비 알 싸 놓은 것

말 : 말 - 웅매(수컷), 주매(암컷)

송아지 : 쇠새끼 · 송애기

- 부릉이(숫컷)
- 다간 송애기 - 1년 넘은 것
- 사릅송애기 - 2년 내지 3년된 것
- 나릅송애기 - 5년된 것

개 : 황개, 백개

망아지 : 들새끼 · 동생이

닭 : 닭

- 장닭(숫컷), 암닭(암컷)

달걀 : 닭새끼

병아리 : 비애기

고양이 : 고양이

3. 뱀(배염)

실뱀 : 셋배염 - 노랗고 머리가 까망

물뱀 : 돛줄래 - 줄락하고 길게 나감

독사 : 물떼기 - 독한 거 사려 앓음. 주둥이가 몽클락함

도마뱀 : 장칼래비 - 다리 난 것

구렁이 : 구렁이 - 굵은 것

* 집지기 - 집 지키는 뱀

4. 곤충

사마귀 : 각다귀 - 푸러 주아부러 발도 진진하고 주등이 쪼작함.

개미 : 개염지

말촉 :

- 색색말촉
- 왕대말촉 - 큰 것

매미 : 젤

- 왕젤 - 부록힌 거
- 젤 - 기름힌 거
- 포색젤 - 눈이 못 색깔

귀뚜라미 : 공중이 - 검고 수염 돋은 것 툭툭톡 튀어다님

* 뱅이 : 보말 딱지 같은 거 썩워진 것

쥬머느리 : 굼벵이 버랭이

만뎃불 : 불난지

찐드기 : 부구리, 진독

장구벌레 : 고물이

파리 : 푸리

- 쉬푸리 - 알 잘 씹

지네 : 주녕이 - 청주녕이, 황주녕이(큰 것)

벌 : 청뿔

- 토벌 - 여름에 나는 것
- 소양벌 - 사람 잘 쏘는 벌
- 곰벌 - 담고망에 집지어 사는 것. 곰양 사니까 곰벌. 소양벌보다 뭉클락 함

날개 : 날개기

잠자리 : 웅젤 - 날아 다니민 강안도 지경에는 오징어가 잘 부뜨는 생이여.

* 개오리 - 돌 옆에 감아져 있는 것

* 지지랭이 - 짜끌락한 것

나비 : 내비 - 툫툫 튀는 나비

하루살이 : 눈에눈이

5. 식물

뿌리 : 불리

나무 : 남

팽나무 : 폭남

밀구슬나무 : 먹코실남

삼나무 : 숙대남, 팽개남

개피나무 : 죄피남

대나무 : 대남 - 대뽕 / 수리 대왕대, 질죽대

꽃가시나무 : 쫓가시남 - 열매는 간절미

* 풋개불처비남

* 개불남

유름 : 유름

* 불래 - 훑은 거 밧불래

* 탈 - 보리탈, 밀탈, 줄탈, 가문탈, 한탈

* 뱀딸기 - 개여미탈

머루 : 멀리 - 사름멀리는 먹는 것이고 고냉이멀리는 안 먹는 것

복숭아 : 복송개

* 감 : 짐칫감 - 우려서, 즉 장국에 담아 감 넣고 싸 넣은 것

VI. 其 他

1. 신체부위

머리 : 더맹이 · 더갱이 · 더가리

이마 : 이맹이

볼 : 볼치 · 양지

턱 : 아구턱

눈썹 사이 : 눈두새

코등 : 코쪽마루

귀청 : 귀착

귀윗부분 : 귓봉어지

귀 아랫부분 : 귓자락

눈꼬리 : 눈꾸석

*눈까죽

목 : 야개 - 뒷야개

어깨 : 옷дук지

겨드랑이 : 짓갱이

코등 : 코머루

코구멍 : 콧고망

팔굽 : 팔고비

팔목 : 팔모각지

손톱 : 손콧

손등 : 손등어리

손가락 :

- 엄지손가락, 집는손가락, 상손가락, 새끼손가락

손가락 사이 : 손아우생이

* 뱃마디 - 뱃모디

힘줄 : 씌줄

초기 : 짐

* 포리춤 - 얼굴에 알록달록

눈곱 : 눈곱채기

손목 : 흘목

등 : 등어리

옆구리 : 역갈리

가슴 : 가심

• 오목가슴 - 오목가심

꿇바퀴 : 귀마리

종아리 : 종애

허벅다리 : 허벅바리

엉덩이 : 잠지

무릎 : 동머릅

뒤굽 : 뒤치기

발등 : 발등어리

발목 : 득랑불기

잇몸 : 니염

이 : 니

• 턴니, 막어금니, 앞니

콧물 : 코괘괘이

손금 : 손그뭇

가마 : 가매

* 숨쭈, 엉치, 허리, 등배,

* 푼채팡 : 채 내릴 때

2. 가족사항 관련 어휘

치녀 : 비바리

총각 : 머슴

머느리 : 매느리

시누이 : 씨누이 - 손윗사람일 땐 성님, 손아래일 땐 아씨라고 함

매형 : 매비

아즈버님 : 아즈방 - 윗사람이면 아즈방님, 아래이면 아즈방

백부 : 큰아버지

중부 : 셋아버지, 족은 아버지

* 형제가 많을 때 - 큰아방, 족은아방, 말갯아방.

- 큰 족은 아방(아버지의 첫번째 동생을 부를 때)
- 매 족은 아방(아버지의 막내 동생)

환갑 : 한갑

칠순 : 친갑

방언조사에 도움을 주신 제보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이함(女·82) 김기숙(女·84) 부도배(女·68)

정의복(女·70) 강을길(女·72) 부생효(女·89)

民 謠

目 次

I. 조사경위	3) 달구짓는 소리
II. 제보자	4) 진토굿소리(테역소리)
III. 채록자료	5) 서우젯소리
1. 노동요	3. 동요·놀이요
1) 밧 불리는 소리	1) 애가 깨우는 소리
2) 느진 아워기	2) 꿩이야기
3) 죽진 아워기	3) 꿩노래
4) 사테소리	4) 원님놀이 할 때
5) 마당질 소리	5) 말 이어가기
6) 남방애 소리	6) 잠자리 잡을 때
7) 그레그는 소리	7) 매미 잡을 때
8) 흥애기	8) 뱀이 보일 때
9) 망건 만드는 소리	9) 방아개비 가지고 놀 때
10) 줄올래	10) 도롱이
2. 의식요	11) 풍덩이 가지고 놀 때
1) 행사하는 소리	12) 그 외의 놀이요
2) 꽃엄불소리(행사소리)	

I. 조사경위

1989년 7월 29일 제주문화방송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당시 조사되었던 민요는 다시 확인하여 조사·채록하고 조사되지 않았던 민요는 추가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첫째날인 1992년 7월 27일은 선홍국민학교 교실에서 밤 10시경부터 '그레그는 소리', '흥애기 소리'와 같은 노동요와 '서우젯소리'를 녹음하였다. 여성노동요의 제보자로 정이복, 이

경계, 김유순씨가 참석하였으며, 고인배씨가 '서우젓소리'의 선소리를 맡아 주었다.

고인배씨는 녹음에 들어가기 전 직접 기록해 두었던 사실 노트를 보여주면서, '마소 모는 소리' 등의 사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했다.

둘째날인 7월 25일은 낮에는 동요·놀이요를, 밤에는 노동요와 의식요 등을 채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낮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일터에 나가 있어서, 어린이들로부터 현재 불려지고 있는 놀이요 몇편을 얻어낼 수 있을 뿐이었다. 밤 9시 30분 경부터 선홍국민학교 교실에서 시작된 제보자들과의 만남에 많은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날 제보자로서는 김봉옥, 정이복, 부옥녀, 정순열, 고복녀씨와 김형조씨가 참석하였다. 이날 녹음된 노래들을 보면 노동요로서 '노진 아웨기', '즈진 아웨기', '사데소리', '마당질 소리', '밭 불리는 소리', '줄올래' 외에 '애기 재우는 소리'와 다수의 동요·놀이요들이 있다. 그러나 이날 김형조씨와 함께 의식요를 불러 주기로 했던 고인배씨가 참석하지 못하여 의식요의 녹음은 다음 날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셋째날인 7월 25일은 사실상 조사의 마지막 날로서 의식요를 중심으로 녹음하였다. 김형조씨가 조사팀을 속칭 웃선홍에 있는 동굴로 안내해 주어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 의식요의 녹음상황 자체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고인배씨와 김형조씨를 중심으로 한 선홍리 남자 주민 몇 사람을 통해 '행상하는 소리', '달구짓는 소리' 등의 의식요를 녹음하였고, 첫째날 녹음하였던 '홍애기 소리', '밭불리는 소리'를 재확인·녹음하였다.

II. 제보자

① 김봉옥(女·85세)

선홍리에서 태어나 줄곧 선홍리에서 살아왔으며 4·3사건 때 잠시 소개해 갔던 일이 있다. 당건·양태·망건을 만들었었다.

선홍리에서는 가장 좋은 소리꾼으로 꼽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아웨기소리', '사데소리', '마당질 소리', '밭불리는 소리' 등을 해주었다.

② 정이복(女·70세)

4·3사건 때 남편을 잃고 홀몸으로 남매를 길렀으나 아들 또한 30대에 죽어 지금은 딸을

시집보내고 아들 소생의 손자손녀와 살고 있다.

1989년 제주문화방송에서 조사할 때는 주로 김봉옥씨의 뒷소리를 맡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여러 노래의 앞소리를 맡기도 하였다. 특히 풍부한 사설의 구사는 매우 돋보였다.

③ 고인배(男·77세)

선흘리에서 태어났으며 18세 때 渡日했다가 25세 때 돌아왔다. 4·3사건을 겪었고 26세 때는 인천 조선기계제작소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해방을 맞았다. 47세 때부터 제주시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선흘리에 있는 큰아들 집에 왕래하고 있다.

선흘리에서 전승되는 민요의 사설들을 기록하여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신의 인생내력을 글로 적어 두었다.

'서우젯소리' 외에 '행상하는 소리', '달구짓는 소리', '홍예기소리', '밭 불리는 소리' 등을 김형조씨와 짝을 이루어 불러주었다.

④ 김형조(男·세)

김봉옥씨와 함께 '밭 불리는 소리'를 들려 주었고 '줄올래'를 비롯하여 고인배씨가 부르는 '행상하는 소리', '홍예기소리', '달구짓는 소리' 등의 뒷소리를 맡아 주었다.

7월 25일 의식요를 녹음할 때 조사팀을 동굴로 안내하는 등 여러 면에서 성의를 보여 주었다.

III. 채록자료

이번에 조사된 선흘리의 민요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요로서 발동사에 관계되는 노래인 '밭 불리는 소리', '노진 아워기', '즈진 아워기', '사태소리', '마당질 소리', '방아노래', '그레그는 소리'가 있고, 목축에 관계된 노래로서 '출 비는 소리'와 그 부산물인 말총을 가지고 양태·망진·탕건을 만들 때 하는 노래가 있다.

또한 의식요에는 '행상하는 소리', '달구짓는 소리'가 있다.

창민요로서는 '서우젯소리'가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 다수의 동요와 놀이요도 녹음할 수 있었다.

1. 노동요

1) 밭 불리는 소리

(1)

녹음일 : 1992. 7. 25

A : 김형조, B : 김봉옥

A : 어러어어이 요년의 물들아

오늘은 어떤 놈도 밭을 불리게해사 되엇구나

어형허양 어허허허 월월하랑

B : 어허어 어어어덜덜 하랑월월

A : 어허어허이 이 소장에서 먹던 물덜아

오늘은 요년의 밭을 불리젠 후면

각각의 자국이 피가 날 정도로 불리는구낭아

에헤에야 에~ 월월호아호

B : 월월허민 이에헤 돌아오는 물덜아

어허러러뒤어 월월

A : 요할망소리는 안직은 멀엇구낭아 에헤에~

물덜은 뒤으로 잘모아 몰아라 고개가 우뚝우뚝 사게 말앙

에헤에헤에 허어어야 월월월 월월 소리에 물들이 돌아온다

B : 돌아오는 이 물들아 어러어허허어~ 월월

A : 에헤에헤에 뒤으로 코등코등하게 물면은

물덜은 귀만 자음자음하고는 주연히 돌아오는구나

소리를 잘후면은 물도 다 알아나먹어그냉에

에헤에야 에헤에야헤에 월월월 호아호~ 하랑

B : 짹씨도 뻘서어 엉허 두어 에어헤에야아 하랑 월월

A : 에헤에헤 에헤 어두야 이년의 물덜아

훈즈훈즈 들어몰아야 해지기 전에는

또 좁씨닷됐다 다설러사 홀거 아니나
에헤야야 얼얼럴럴럴 어호아호 하랑

B : 어허에헤에헤에 달월 월하랑허려

A : 부름아 불어라 강풍이랑 불지마라그넵에

동남풍으로 불어야 물들도 건넌고 성글성글 불려지는구나

어허 어허어 호야야 월 하랑 허어 어럴럴럴럴 어허호호아 호 월 하랑

B : 둥글둥글하게들 불리는구나

어이에에에에에헤에 하러하러하러하러 월월허라 월월

A : 허러허러에헤 ~ ~ ~ ~

회초리소리가 꼬척꼬척하게 나는 소리나게

물이랑 들어 몰아사 하는구나 에~ 야

어럴럴럴럴럴럴 오호아 오~ 월월

B : 월월흐민 돌아오는 이 물들아 허어어 에헤 허 하랑 월월

A : 에헤이에 헤이

뒤으로 몰당도도 빨리빨리 나사라

물은 뒤뭇쳐야 잘불려지는구나

에헤에헤에영 어하야 릴릴 월월 소리로 돌아나간다

(2)

녹음일 : 1992. 7. 26

A : 고인배, B : 김형조

A : 어허어 어허어형 에헤헤야 월월월 어허호아 하랑

B : 어허어허어 요년의 물덜아 오닐날은 팔즈가 그만큼 뻗의 안뵈는구나야

에헤에헤에헤에 허리리아 헤에헤에 어허어호아 월~ 하랑

A : 영실기압에 살던 말덜아 어허어

오닐날은 한직먹을 बात 불리는구나

에헤에헤에헤에 어허호아 월~ 하랑

B : 에헤에헤에 들어몰라 들어몰라 혼자 뒤에서 들어몰라

들어몰아사 멩에도 잘 불려진다

어허어러러 헤헤양 에헤헤에 월월 어호아 월~ 하랑

- A : 요말달아 어허어허 일심권력 허여라 예혜ैया
기혜혜ैया 월월 아허호아 월 하랑
- B : 예혜ैया 몰달랑 몰아가멍 금실물랑 송애기랑 떨어부러라
어허야 예혜ैया혜 허허호아흥 예혜ैया 허호아호 월 어릴덜
- A : 산시풍경 주성시허리 사방에서 맞볼리는 소리가 왕왕허구나
어형ैया 월월월월허호아 월월하랑
- B : 허어어 동남풍아 허저불어라 건들건들하게 불어줍소서
어러어허러러 허야 예혜ैया헤어리 월월 하랑
- A : 팔십난 노인이 이허이 이허이허 야 이허 오호오호아 월 하랑

2) 느진 아웨기

녹음일 : 1992. 7. 25

선소리:김봉옥 후렴:김형조,김봉옥

아~ 혜 애양어요
 어기여차 두기여차 방에로구나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짐질것고 끝너른밭의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놀래로나 날을새자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저산골로 흐르는물은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홀리섯새 인식은물가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하늘우호로 내리는물은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궁네시네들 발씻인물가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거릿개로랑 나리는물은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거릿개똥 다씻인물가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강변으로 흐르는물은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개도새기도 발씻인물가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저돌속의 계수나무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은돌피로나 비여놓고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금돌피로나 비여놓양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삼관스관은 무어놓고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혼관으로랑 옥네를주고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혼관으로랑 선네를주고
 아하아양에혜양어허요

옥네야선네야 줌이나들라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선네방으로 줌자래간다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고대광실을 들끓은집의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쳐다보면 능와도비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내려다본다 각장장판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우들러라 족새팽풍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알들러라 한새팽풍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능매자리를 빼와놓고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급산비단 한산이불에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원앙금우 족베개에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무정눈에 줌이든다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서울서울 어떻게서울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훈숯밥을 열눔이먹엉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설리사난애 서울이라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노픈산의랑 앉이신새는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부름불어 근심이돼네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야픈산의랑 앉이신새는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비가오라서 근심이돼네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내꽃이나앉인새는 내가느려서 근심이라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바당꽃에앉인새는 절이칠가봐 근심이라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거렁갈비는 은살레가난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이불자리는 지녀사간다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만조절에 불싸래감은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심지어신 옥등에불은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동성방이 흰불아지더라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어떤새는도 밤이도울곡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어떤새는도 낮이도울곡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밤낮우는 우넘새로구나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아척에우는새는 배가고파서운다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낮에는우는새는 배가불어서우네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조낙이우는새는 임을그리고우네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대천바당에 가운데드렁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안개유어근 돌진밤샌다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밤중만의 우는돛으랴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궁셀귀나 물고나가라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밤중만의 주치는개는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촌서리나 맞고나가라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천채맹채 골롱패장시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돛이나올거든 발행울말고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간장간장 석든간장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선소리나 불르고가소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남문을열어서 바래물치니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계명산천은 다불아지네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세백요강은 장단을 치고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흑니불에는 닷을주네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모셋님은 해뜩해뜩하네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개남님은 반들반들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담고낭은도 베롱베롱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일락산에친구는 못사글친구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원고동틀면은 영이별뵈네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하산학도정준집의 행차가바빠지고
 아하아양에해양어허요

3) 죽진 아웨기

녹음일 : 1992. 7. 25
 선소리:김봉옥, 후렴:김형조,김봉옥

아하양에양어요
 어야도야 방에로구나
 아양하아양에해양허어허요
 서울서울 어떤게서울이나
 아양하아양에해양허어허요
 검질깃고 골너른밭되
 아양하아양에해양허어허요
 요네늘래로 날은도새자
 아양하아양에해양허어허요
 어멍늘던 정즈남그늘
 아양하아양에해양허어허요

아방놀던 정주남그들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앓안놀랜 조를어잇나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어야두야 방에로구나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하산확도정준집에 행차가바빠진다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정심채는 늦으나지네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어서댕감 들어나매소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앞명에랑 들어나오소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뒷명에랑 나고나가소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어떤낭은 복대기중앙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관덕정마당에 대들보세왕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만국백성이 다급어보네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어양어가 방에로구나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산어산아 수양도산아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울영도는 조금산아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한락산에 눈문은줄은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일만백성이 다알진마는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이내가슴에 화문은줄은
 아앙하이양에 헤앙허어허요

4) 사대 소리

녹음일 : 1992. 7. 25
 선소리: 김봉옥, 후렴: 김형조

어긴여랑 서아테야
 검질매고 골너른बाट
 어긴여랑 서아테야
 어긴여랑 사테로구나
 어긴여랑 서아테야
 요런날에 일홈이사도
 어긴여랑 서아테야
 성도얼만 가시를소나
 어긴여랑 서아테야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어긴여랑 서아테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어긴여랑 서아테야
 요런날에 일홈이사
 어긴여랑 서아테야
 성도얼만 가시를소나
 어긴여랑 서아테야
 어기여차 산넘영간다
 어긴여랑 서아테야

줍쌀만이 살을때시면
 어긴여랑 서아테야
 놉의집도 사름이사라
 어긴여랑 서아테야
 7랑줍쌀 니엇이먹영
 어긴여랑 서아테야
 놉의어멍 말엇이산다
 어긴여랑 서아테야
 다십어멍 개년의돌년
 어긴여랑 서아테야
 짐은공주 개주어두영
 어긴여랑 서아테야
 환공주로 날뵈래더라
 어긴여랑 서아테야
 짐질손은 조직조직
 어긴여랑 서아테야
 시디소린 느직느직
 어긴여랑 서아테야
 어긴여랑 사대로구나

5) 마당질 소리

녹음일 : 1992. 7. 25

A : 정이복, B : 김봉옥

A : 어요하야 B : 에에해
 A : 어가홍 B : 어야도하야
 A : 요거보라 B : 누게앞고
 A : 설운정네 B : 에에해
 A : 앞이로구나 B : 어요하야

A : 어요하야 B : 요거여저거여
 A : 어야홍 B : 때릴눔가
 A : 다하호오 (웃음)
 A : 누게앞고 요거보라
 B : 어호오 A : 누게앞고
 B : 조직조직 A : 설운정네
 B : 어야홍 A : 앞이로구나
 A : 어요하야 B : 에해행
 B : 예가홍 A : 어가호
 A : 어야홍아 어요하야
 B : 어야홍
 A : 요거보라 B : 에에행
 A : 누게앞고 B : 설운정네
 A : 앞이로구나 B : 앞이로구나
 A : 모뫼낭이 B : 에에행
 A : 털씩털씩 B : 어야홍
 A : 지쳤구나 B : 자쳤구나
 A : 보리떡에 B : 존직존직
 A : 어요하야 B : 보리못에
 A : 앞이라근 B : 들씩들씩
 A : 조직조직 B : 에해행
 A : 설운정네 B : 혼저재개
 A : 앞이로구나 B : 예야홍
 A : 어야하야 B : 어야도하야
 A : 예야홍 B : 요젤러라
 A : 뒤태레 조직조직 B : 예에홍
 A : 물러사멍 뒤사멍 B : 예에홍
 A : 앞이랑나사멍 B : 양손으로
 A : 예야홍 B : 에행해
 A : 뒤물러사멍 B : 요게로다
 A : 앞이랑보라 B : 보릿못이

善屹里 學術調查報告

A : 덜씩덜씩 B : 더망이웃테레영
 A : 혼섭두섭 B : 들씩들씩
 A : 요걸두드리민 B : 요거로구나
 A : 어멍호리 B : 요건도께
 A : 혼섭두섭 B : 앞이로구나
 A : 흐루만두드려도 B : 설운정네
 A : 스무섭씩 B : 아팠구나
 A : 서른섭씩 B : 때렸구나
 A : 도께로두드린다 B : 어가홍
 A : 뒷터래랑 B : 뒤로베씩
 A : 조직조직 B : 허염시냐
 A : 앞태래랑 B : 어가홍아
 A : 뒤물러사멍 B : 요거여저거여
 A : 요동산은 B : 때리고가라
 A : 누게앞고 B : 마치고가라
 A : 설운정네 B : 어야홍
 A : 앞이로구나 B : 어가홍
 A : 따려보자 B : 요게로다
 A : 혼모를랑 B : 저게로다
 A : 지고간다 B : 어요하야
 A : 혼모를랑 B : 어가홍
 A : 놀고간다 B : 혼모를랑
 A : 어요하야 B : 하고간다
 A : 어야홍 B : 어가홍
 A : 어야홍 B : 어야홍
 A : 어가홍아 B : 어야홍
 A : 어야도하야 B : 보릿뭇이
 A : 덜씩덜씩 B : 덜씩덜씩
 A : 옛날은도 B : 요거여저거여
 A : 요도께아니면 B : 어가홍
 A : 마당질도 B : 어멍흐난 늦엄신고

A : 못흐염구나 B : 어야하야
 A : 어야홍

6) 남방에 소리

녹음일 : 1992. 7. 25

정이복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가시오름	강당장침의
승시조嘿	들이젠흐난
밭갈췌도	지붕을넙나
그시란듯도	돌음은돈나
베긴개도	공공공흔다
트든도도	고기옥흔다
이연이연	이여도흐라
이여언	이여도흐라

7) 구래 구는 소리

녹음일 : 1992. 7. 24

A : 정이복, B : 김유순, C : 이경재

A :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B : 이여이여이여	이여도구래
A : 독은울면	날이나샌다
B : 나눌래랑	새님영가랑
A : 날랑울영	어느날새리
B : 이연이연	이여도구래
A : 새백독은	쟁쟁울영
B : 나눌래랑	새님영가랑
A : 어느정예랑	나아니올리

- | | | | |
|-----------|--------|------------|--------------------------------|
| B : 전성곳인 | 날난어멍 | A : 청이실에 | 흑니실노련 |
| A : 서울서울 | 어떤게서울 | B : 이어 | 이여도허라 |
| B : 날만못흐 | 점네도 | A : 놀개젓언 | 못내나간다 |
| A : 설리사난 | 서울이러라 | B : 이어 | 이여도허라 |
| B : 서울선비랑 | 들거리놀랑 | A : 이연이연 | 이여도허라 |
| A : 서울독은 | 쟁쟁이울영 | B : 이어 | 이여도허라 |
| B : 이연이연 | 이여도그래 | A : 이연말랑 | 말이근허라 |
| A : 제주강남 | 소냐애앗앙 | B : 이연이연 | 우리의 어머니 날무사 나시고 |
| B : 이어어~ | 이여도허라 | A : 이연허민 | 설운말한다 |
| A : 조선국도 | 지울럼서라 | B : 이연이여 | 이여도허라 |
| B : 이어어~ | 이여도허라 | A : 시앗신디 | 트드래가난 |
| A : 집의반추 | 십으도말라 | C : 이연이여 | 이여도허라 |
| B : 이어어~ | 이여도허라 | B : 이연이연 | 나놀래랑 산넘영가랑 |
| A : 반춧입에 | 비지는소리 | A : 가른밭되 | 메마꽃고찌 |
| B : 이연이연 | 이여도허랑 | C : 이연이연 | 질꽃집의 쟁그래소리 |
| A : 어신부모 | 발어름소리 | B : 이연이연 | 이여도허랑 |
| B : 이어어 | 이여도허라 | A : 해반듯이 | 나앉아부난 |
| A : 이에쟁쟁 | 지울럼서라 | C : 이연이연 | 무른디보멍 진디보멍 어멍
쫓앙 가는구나 이여도허라 |
| B : 칭칭하늘엔 | 즌벨도 많다 | B : 이연이연 | 이여도그래 |
| A : 질꽃집의 | 도실낭싱경 | A : 나눈에사 | 저만골적의 |
| B : 나놀래랑 | 새넘영가라 | C : 이연이연 | 이여도허라 |
| A : 씨나드나 | 맛불인셔도 | B : 이연이연 | 이여도허라 |
| B : 간다간다 | 이여도노래로 | A : 정든남눈에사 | 아니나고라 |
| A : 지녕살인 | 흐나이웃영 | C : 이연이연 | 전성곳인 요내몸이로구나 |
| B : 전성곳은 | 이몸 | B : 이연이연 | 전성곳인 날난어멍 |
| A : 서울서도 | 놀아온새여 | A : 가난질로 | 놀아나온다 |
| B : 이연이연 | 이여도그래 | C : 이연이연 | 전성곳은 요내몸이로구나 |
| A : 강남서도 | 놀아온새여 | B : 이연이연 | 이여도허랑 |
| B : 이연이연 | 이여도허랑 | A : 설운어머니 | 날설을때 |
| A : 오늘가져 | 널가져해도 | C : 이연이연 | 높은산상상봉 외로잇는 술 |
| B : 이어이여 | 이여도허라 | | |

나무 외롭게만 잇구나

B : 이연이연 둥은울민 날이나샌다

A : 어!-바당 매역국먹엉

C : 이연이연 이여도허라

B : 매역국마다 절국마당 다먹으멍

A : 보름불때 절일적마다

C : 이연이연 보름불엉 씨러진나무

B : 늠도가라건 오실거나

A : 혼들흔들 부모님생각

C : 이연이연 늠도살천마는 우리도언제문
살아나보코

B : 이연이연 이여도허라

A : 전싱긱인 구월에나난

C : 이연이연 어땡허난 요런농촌에 오란
살랜허여시리

B : 이연이연 이여도허라

A : 구월꽃도 벗이로구나

C : 이연이연 그래방에 소리나 불러나보
카

B : 산은 첩첩이로당

A : 한강바당 한가운디랑

C : 이연이연 산은참참 물은잔잔하는구나

B : 물은즌즌이 인다

A : 빨리어신 새삼놉나난

C : 이연이연 이여도허라

B : 이연이연 이여도허랑

A : 가린입은 열두가지

C : 이연이연 우리의냥군님 날고생아니시
기켄 허여땡 너미사 시겸구나

B : 청천하늘엔 즌벨도많당

8) 흥애기

(1)

녹음일 : 1992. 7. 24

A : 고인배, B : 정이복

A : 허야도아어허어영에해에 요소리로 어
허어 구경간다

B : 산천초목~ 에~ 젊어나지는구나 에
해에 젊어나진다

A : 요런일기에 요일허기사~ 어영허어
에 성이얼만가실소나

B : 칠팔월흥애기로나 에해에에에 사랑살
랑 에해에~ 기분이좋아

A : 구시월 찬바람에 에해~ 에~ 울고가
는~ 저기러기야

B : 산뭉고든 요호미로~ 아에~ 요출을
비는구나 에해에해에 출을 비어간다

A : 저기러기~ 북방소식을 유전허나

B : 동숫그든 주먹으로랑~ 요출을비어사
에~ 흥는구나

A : 일광님도 으~ 서산을 향허야 어허~
잘도간다

B : 해도지면은 아해~ 동으로 돌는구나
에~ 동으로돌나

A : 산천초목은~ 연년이나 돌아온다

B : 돌도지면은 에해 동으로 돌는구나 에
해에~ 동으로돌나

A : 산뽕그든 요호미로~ 어숫비숫 비어
나간다

- B : 인생한번 죽어나지면~ 에헤에~ 또
시 오기는 만무로구나
- A : 바람불어 후어진 남기~ 봄비가 온들
일어날소나
- B : 일락서산에 헤떨어지면~ 애~ 월출
동경은~ 애~ 달솟아온다
- A : 푸릿푸릿 당배추는 애~ 봄비오기만
기다리는구나
- B : 서산에 지는해는 애~ 지고싶어 지는
구나 날두고 가는님은 가고싶어가나
- A : 이구십팔 열요둠은~ 에헤 시집가기
만 기다려간다
- B : 청청한 하늘에는 애~ 준별도 많구나
애~ 준별도 많다
- A : 입신년이로구나 으호응~ 애에애에~
십오연풍에 임상봉하리라
- B : 날두고 가는님은~ 가고싶어서~ 애
헤에~ 가는 길이로다
- A : 푸린바다 짙는데 애~ 얼마나 된줄은
알건만
- B : 산은첩첩 청산이 되는구나 에헤에~
물은광광 어~ 에헤~ 녹수로구나
- A : 혼질되는 사름속은~ 에헤에~ 칙랑
홀수가 없는구나
- B : 녹수천강 흐르는물에 애~ 배추시는
~ 저쳐녀야
- A : 유정무정 허허~ 에헤에 사걸리 탈세
로구나
- B : 떡에 떡입이랑 에헤에~ 다자쳐두어
그네 애~ 속에속있만 애~ 주랑
- A : 정들고나 못사는건~ 에헤에~ 화류

계 여자로구나

(2)

녹음일 : 1992. 7. 26

A : 고인배, B : 김형조

A : 허야두야 어허어허어 에헤에 어기로
구나

B : 어야두야 산이로구나 에헤 ~ ~ ~

시름시름 낫도잘도 드는구냥아

어허어 허야도홍 흥애로구나

A : 칠팔월의 출비는 소리 이허이 요소리
로 우경간다

B : 오닐그든 날써에다가 애~ 일심동력
허영버어야

건부름에도 잘 돌르게 허여줍소서

A : 산천초목 에헤에 속에속일 나는구나

B : 팔즈팔즈 요놈의 팔즈야 에헤에

무신날에 난 팔즈가 일만허렌 날 팔
즈로구나

A : 요런일기에 요일 허가사 어허어 헤에
헤에 성이얼만 가실손가

B : 소리랑 굶건마는 에헤에 요놈의 낫이
야 잘도 안먹는고

허락허락 굴아도 허스로구나

9) 망건 만드는 소리

녹음일 : 1992. 7. 25

김봉옥 · 정이복

걸려지라 이눔이맹긴
 걸려지라 이눔이맹긴
 걸려걸려 걸렸구나
 걸렁썰로 걸렸구나
 걸렸구나 걸렸구나
 걸렁썰로 걸렸구나
 하나걸려 둘걸렸네
 하나걸려 둘걸렸네
 낫걸렸네 낫걸렸네

10) 줄을래*

녹음일 : 1992. 7. 25

김형조

이러이러이러 어 어허앵해애에 이러허야
 요년의 물아 요점은 가그냉에 집의강 피야
 겨울삼동에 너네들 먹을 양식아니가
 애해에 어허어야 이러어허어 아구기어
 걸어도 천리로구나 가명오명 만리가 될것
 이나

요년의 물아 요년의 썬야 혼저글라 혼저글라

해는 서산으로 가는데 너가질은 집의강 요것을 퍼부러야

다 무친거 아니냐

어허어허야 해애해애 허야 해이이이~

이년의 썬야 이년의 물아 혼저글라 혼저글라 혼저글라

* 마소에 짐승고 가는 소리

해도감저 혼저글라 먹고도 싶고
 나도 혼저가사 물도 막어야 항키어 혼저글라 혼저글라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요년의 썬야 혼저글라 등에 뚝이나도 질매는 벗어야

뚝을 따껴주마 혼저글라 혼저글라
 질매 벗기전은 뚝도 못다끈다

둥이벗어지엇건 말앗건 요점은 다시껴야
 너네 훔일도 다 혼것이 아니냐

이년의 썬야 혼저글라 일락이 뚝여도
 너갈질 가서 푸러야 집에강 다평 부어야
 다 훔일 아니냐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허헛시

혼저글라 요년의 물아 혼저글라 아이고
 불쌍도 흥구나

다 너의 부름써 아니냐

어허어허 이런 이런 이런 이런

2. 의식요

1) 행사하는 소리

녹음일 : 1992. 7. 26

A : 고인배, B : 김형조 외

A : 어어어~ 익

B : 어어어~ 익

A : 어어어~ 익

B : 어어어~ 익

- A : 어어어~ 익
- B : 어어어~ 익
- A : 어이어이어얼화로다
- B : 어이어이어얼화로다
- A : 인생흔번 죽엄가면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천추만년 또못오는 길이로당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북망산천이 얼마나도먼지 에~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노세놀아 절이절어서놀앙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놀다죽어도 공동묘지랑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일허당 죽어도 공동묘지로구낭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산천초목은 연년이나온당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우리인생은 한번죽으면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백골이 진토가되는구낭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세월이야 덧씌도당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돌아간봄이나 또오랏구낭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오닐오닐 날도나중앙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노당갑서 자당을갑서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저해가지도록 노당갑서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인제가면 언젠나올까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어린자식 다버려두고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북망산천이 웬말이고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입아입아 날잡지마오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 A : 서산에지는해를 머물러나주오
- B : 에헤에야 얼화로다

2) 꽃염불소리(행상소리)

녹음일 : 1992. 7. 26

A : 고인배, B : 김형조 外

- A : 해해헤이여라 거들만 거리고 놀아보세
- B : 아해에행어허이여리와 어덜덜 거리고
놀아보세
- A : 산도설고 물도나설은데 누구를 보려
고 여긴왔낭
- B : 아해에행어허이여이야 어덜덜 거리고
놀아보세
- A : 사람이살면 멧백년살아나보나
- B : 아해에행어허이여이야 어덜덜 거리고
놀아보세
- A : 막상살어야 단백년도 못사는다
- B : 아해에행어허이여리와 어덜덜 거리고
놀아보자

A : 산도설고 물도나 설업구낭
 B : 아해에행어허이여리아 어럴릴 거리고
 놀아보세
 A : 구시월 찬바람에는 우고가는 저기력아
 B : 아해에행어허이여리와 어덜덜 거리고
 놀아보자

3) 달구짓는 소리

녹음일 : 1992. 7. 26.

A : 고인배, B : 김형조 外

A : 이 이이 달구~
 B : 이 이이 달구~
 A : 여보시오 상주남네 천하명당 여기로
 구나
 B : 예 이이 달구
 A : 주산이야 높고보니 일만증을 올릴거요
 B : 예 이이 달구
 A : 갑묘봉이 높고보니 삼성팔현 날자리요
 B : 예 이이 달구
 A : 병정봉이 높고보니 백발부모 장수하고
 B : 예 이이 달구
 A : 선신봉이 높고보니 옥당한림 날자리요
 B : 예 이이 달구
 A : 곧모봉 높고보니 왕후왕비 날자리요
 B : 예 이이 달구
 A : 간인봉이 높고보니 칠새남아의 등과
 지요
 B : 예 이이 달구

A : 경태봉이 높고보니 천하명장 날자리요
 B : 예 이이 달구
 A : 진오묘유 스봉은 나라님의 필생지요
 B : 예 이이 달구
 A : 건곤간손 스대봉은 만고영웅날자리요
 B : 예 이이 달구
 A : 인신사해 스생봉은 천인달사 날자리요
 B : 예 이이 달구
 A : 감경병입 스순봉은 만고여장 날자리요
 B : 예 이이 달구
 A : 을신정해 사정봉은 천하력사 날자리요
 B : 예 이이 달구
 A : 진줄축미 스장봉은 석승거부 날자리요
 B : 예 이이 달구
 A : 간인옹이 병오돌아 신술좌가 되고보면
 B : 예 이이 달구
 A : 없다고나 한탄마라 인장묘발 여기로다
 B : 예 이이 달구
 A : 건해룡이 정미돌아 갑묘자가 되고보면
 B : 예 이이 달구
 A : 아들없다고 한탄마라 불유당년 생귀자
 라
 B : 예 이이 달구
 A : 손사향이 경태돌아 계속좌가 되고보면
 B : 예 이이 달구
 A : 삼대백두 한탄마라 대대정승 여기로다
 B : 예 이이 달구
 A : 건신룡이 임감돌아 을신좌가 되고보면
 B : 예 이이 달구
 A : 왕후간선 걱정마라 삼대왕후 날자리다
 B : 예 이이 달구

A : 어화세상 사람들이 수덕적선 명당이다

4) 진토굿소리(태역소리)

녹음일 : 1992. 7. 26

A : 고인배, B : 김형조 外

A : 이이히이 아하아호~

B : 이이히이 아하아호~

A : 선소리랑 안넬망정 훗소리랑 크등크
등하게 흥여줍서

B : 이이히이 아하아호~ ~

A : 좌청룡우백호 에헤어히 기영술기로구
낭

B : 이이히이 아하아호~ ~

A : 천추만년 살고갈집 지어잡니다

B : 이이히이 아하아호~ ~

A : 일락서산엔 해넘어가웁니다

B : 이이히이 아하아호

A : 청춘은 늙으면 백발이 돼웁니다

B : 이이히이 아하아호

A : 요달구로지어 에헤어어히어 기영술기
로구나

B : 이이히이 아하아호

5) 서우젓소리

녹음일 : 1992. 7. 24

A : 고인배

B(뒷소리) : 정이복 · 김유순 · 이경재

A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노세놀아 젊어놀아 늙어지면은 못노
리요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요때못놀면 어느때노나 거들만거리며
놀아보자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등장가자 등장가자 하늘임전 등장가자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요몽생일 놓았다가 집을사나 밧을사나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놀다죽어도 공동묘지 일흔다죽어도
공동묘지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오날오날 오날이요 날도좋아서 오날
이요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등장가자 등장가자 하늘임전 등장가자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낭도늙어 고목이됐면 오던새도 아니온
다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늙은사람 죽지말고 젊은사람 늙지말게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요런여유로 등장가자 요런여유로 등
장간다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오날오날 오날이요 날도좋아서 오날
이라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요때는도 어느때냐 화란춘성 만화방창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때도종구나 벗님네야 산천경계도 구경가자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삼월이라 삼짓날에 강남갓던 저재비도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오느라구나 현신희고 가느라구나 하직혼다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구시월이 좋다흔들 이삼월만은 못하구나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노당갑서 자당갑서 이밤이밝도록 노당갑서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새월이라 덧없구나 돌아간여름이 또왔구나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사름이나 살면은도 몇백년이나 살아볼꼬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사름마다 벼슬을흐면 농부한이가 어디잇소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오늘날은 임신년의 유월절이로고낭이여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산은첩첩 청산이요 물은흘러 녹수로구나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낭도늬어 고목이면 오던새도 아니온다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한라산에 눈물은줄은 일만백성이 알건마는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요내가슴에 화문은줄은 어느누가 알아줄꼬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눈물은도 흘러서나 한강수나 뚝엇구나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한숨은도 수여드난 동남풍이 뚝엇구나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노세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노리오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구야구야 담방구야 동래울산 담방구야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은을주면 너를사나 금을주어도 못사는구나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입아입아 날잡지말고 서산에지는해 머물러주소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A : 요몽생일 놓았다가 집을사나 밭을사나

B : 아하아하양에헤에양어허어요

4. 동요 · 놀이요

1) 애기 재우는 소리

녹음일 : 1992. 7. 25

정이복

왕이왕이	왕이자랑
우리에게	자는소리
문전답도	재운소리
녹전답도	재운소리
왕이왕이	왕이자랑
우리에게	잘도잔다
우리에게	재와도라
느네에게	재와주마
아니재와	주민
질긴질긴 총배로	걸려당
지픈지픈	천치소래
디리켰다 내쳤다	홀로구나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은즈동아	금즈동아
옥황맹지	비단동아
친척간의	화목동아
나라에랑	총신동아
우리에게	잘도잔다
우리에게	잘도
왕이왕이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어지시던	할마님조손
어서자라	어서자라

2) 꿩이야기

녹음일 : 1992. 7. 25
정이복

꿩의몸이 솟아날적의 의관은 호색이요 일 산다

름은 화청이요 입재엇인 주것눔은 구토아 살
라하여 삼태치장 눈치장 델치 좋다 머리끼은
초입이서 단정하고 아홉이들 열두똥은 줄줄
이 상에등에 줄줄이 돌아아진 삼년묵은 콩그
루에 오년무은 콩그루에 우적우적 죽엄시난
귀체그튼 도둑눔은 동으로도 총을매와 예와
사니 살아날정 정에었다 서오로도 총을매와
예와사니 살아날정 정에었다 개토시아 개토
시아 이걸먹고 죽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콩을
뉘아니 먹으리야 한방울먹영 꺾자지고 두방
울먹어 꺾자지난 귀체그튼 도둑눔은 오꽃들
렁 돌아부난 그즈름에 돌란 들어간보난 산맥
이도 내불라 뒷침개야 어디뉘 배설이야 이제
내불라 앞침개야 어디뉘 경헨 몬이젠 잡아거
세기헨 하루 손은 먹고 그리 대껴부난 아이
고 이것사 내불리야 그거이젠 개남뉘 톨아단
순렴하고 연남뉘 톨아단 대렴하면 이젠 문젠
현 보난 것도 방우막안 못 물어부난 꿩이
번성을 못헛젠 헛디다.

3) 꿩노래

녹음일 : 1992. 7. 25
김봉옥

꿩꿩장서방	어찌어찌사느냐
그럭저럭	산다
뺏음먹고	사느냐
그냥 어염어염	댕기명 초들을 좇어먹고

4) 원님놀이를 할 때

녹음일 : 1992. 7. 25
정이복

1. 혼다리 인다리 거청 대청 누님 스서 나
라 알롱 달롱 지등에 쳐
2. 혼나 인나 거청 계 지나 노저 버문 계 어
어 칭청 풍당 풍 떠러 떠러 들 감 새 꽃 세 끝

5) 말 이어가기

녹음일 : 1992. 7. 25
정이복 · 부옥녀

저산에 고박고박 하는건 무신깃고
미뻬쟁이여
미뻬쟁인 흰다
회민 할에비여
할에빈 등굽나
등굽으면 쉼질매가지여
쉼질매가진 니고망난다
니고망나민 시리여
시린집나
검으면 가마귀여
가마귀 뉘뜨다
뉘뜨민 심방이여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여
철쟁인 줍진다
줍으면 강이여

강인 붉나
붉으면 대추여
대추 돈다
돌민 옛이여
옛은 부뜨다
부뜨민 침이여
침은 듣나
뜨뜨민 장독이여.

6) 잠자리 잡을 때

녹음일 : 1992. 7. 25
부옥녀

웅제열 딱딱 고치제열 딱딱

7) 매미 잡을 때

녹음일 : 1992. 7. 25
정이복

제열제열 느려오라
쉼똥범벅 하여주마
개똥범벅 하여주마

8) 뱀이 보일 때

녹음일 : 1992. 7. 25

큰칼 우져오라 죽은칼 아져오라

9) 방아개비 가지고 놀 때

녹음일 : 1992. 7. 25

부옥녀

산디래 절허라 물데레 절허라

10) 도롱이

녹음일 : 1992. 7. 25

부옥녀

뱅뱅들라 도롱이나오라

뱅뱅들라 도롱이나오라

11) 풍뎡이 가지고 놀 때

녹음일 : 1992. 7. 25

부옥녀

뱅뱅들라 천왕밭되 드려다주마

뱅뱅들라 천왕밭되 드다주마

춤추라 천왕밭되 드려다주마

12) 그, 외의 놀이요

녹음일 : 1992. 7. 25.

* 높은 데서 뛰어 내리면서(부옥녀)

나춤간되 나발가라

* 보리피리(부옥녀)

주제다까드라 배엎다까주마

주제다까드라 배엎다까주마

주제다까드라 배엎다까주마

뻘옥

* 쇠비름(정이복)

불나라 처낭불나라

불나라 담배주마

불나라 담배주마

* 달팽이(부옥녀)

밧갈라 출주마

밧갈라 출주마

* 이빠진 아이 놀릴 때(부옥녀·정이복)

앞니빠진 고냉이 뒷니빠진 고냉이

* 뿔은 이빨을 던지면서

새니랑 돌아오곡 묵은 이랑 돌아가라

* 머리 깎은 아이 놀릴 때

중볼레기 풋볼레기

중볼레기 풋볼레기

* 오줌싼 아이 놀릴 때(부옥녀)

동싸라 오줌싸라

다시도 오줌싸라 다시도 오줌싸라

* 몸의 물을 떨면서

물할애비 털어지라

- | | |
|---|---|
| 물할애비 털어지라 | 우리언니 시집못간다 |
| * 비올 때
비아비아 오지말라
장통밖의 물넘엄져 | * 방귀편 아이를 놀릴 때
오렌지 방구 누가 꺾을까 |
| * 이빠진 아이(김강진, 남·국교4)
이빨빠진 고냥이 | * 즐넘기(김강진, 남·국교4)
콩나물삼서 두부삼서
한냥 두냥 세냥 네냥.....
(심원 이심원 삼심원 백원입니다) |
| * 원님놀이(김수희아, 여·국교5)
고모네집 갔더니
암탉수탉 잡아서
너희들만 먹어라
밥한술갈 안준다 | * 가위바위보(김강진, 남·국교4)
개미 토꼬냥에 털났다 |
| * 우는 아이 놀릴 때(김강진, 남·국교4)
울당 우스문 토꼬냥에 털난다 | * 머리깎으러 가는 아이에게(?) (김수희아, 여·국교5)
...야 ...야 머리깎아라
이왕이면 박박 깎아라 |
| * 고무줄이 영켰을 때(김수희아, 여·국교5)
(고무줄을 발로 문지르면서)
할머니 할머니 풀어줍서 | * 학교가기 싫을 때(김규호, 남·국교 5)
학교 때려부시자 엇바꿔 먹자
선생님만 때놓고 우리만 먹자 |
| * 비가 올 때(고효정, 여·국교4)
비아비아 오지말라 | * 아이를 등에 옆으로 업고
항아리삼서 항아리 삼서
열두구멍 뚫린 항아리 삼서 |



민요 조사 장면

제보자 : 부옥녀, 정순열, 정이복, 고복녀



제보자 : 고 인 배



제보자 : 김 형 조



제보자 : 김봉옥(左), 정이복(右)

說 話

目 次

1. 설문대 할망	12. 선홍 유리
2. 노가단풍 애기씨	13. 선홍 안씨 장사
3. 조생원 하르방	14. 마동이
4. 성삼문	15. 허웅애기
5. 용단호장	16. 원강압이
6. 죽은 동생 실린 누이	17. 스반이
7. 高良大 유래	18. 조청비
8. 불장울	19. 안택초상
9. 분소랭이 불미터	20. 김동지와 애기씨
10. 親父 묘터 껌앗은 딸	21. 과양생이
11. 부대각	22. 콩택이 풋택이

1. 설문대 할망

제 보 자 : 부의함(이 81)

조사일자 : 1992년 7월 24일 16:05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리 제보자의 집

<바매기¹⁾ 가지깁이 물에 설문대 할망 빠져 죽었던 행계양. 그 말 흐끔 그라줍서.> 옛날 설문대 할망이 이서났젠. 그 할망이 저 바당(바다)으로 건너 와도 발등도 아이 즈물안²⁾ 허난, 맹

1) 밤익(栗岳)으로 풀이하나, 구름을 뜻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되기도 함. 선홍리에는 알밤악, 옷밤악이 있다.

2) 잔겨서

취(명주) 선 동을 아전 소중이를 허도 처지³⁾가 부족하면 못허연. 이젠 치매자락에 흠 혼 갈래 죽⁴⁾을 싸아전 땡기명,⁵⁾ 이디 강 독독 저디 강 독독 문디려부난,⁶⁾ 그게 문 저 바매기가 되었 쟁 허주게. 또 물장우린지⁷⁾ 텃장우린지 강 나 요디나 디더보민 발둥이 즈물크나 허연, 실문대 할망이 양 가달⁸⁾을 영 허여났젠. 비 오키나 안 오키나 하늘을 씨려났젠⁹⁾ 험디다. 하도 커부 난. 계난게 맹주 선 동이민 거 몇 필이라. 거 처지도 부족허연 못허영 입었젠. 경허난 이젠 물 장우린지는 아이 디디고, 바매기 꼭지엔 현 동그란 물 이시난, 이디나 나 지래광¹⁰⁾ 그튼 물이 카물인가 허연 디디난에 움막 들어가 부런. 장우리에 상 그 물을 보민 보말도 조랑조랑 돌아 지곡 가지깁이도 이서들서, 그 물이 죽을 사름은 보곡 살 사름은 아니 보인덴 허매.

2. 노가단풍 애기씨¹¹⁾

제 보 자 : 부의환(여·81)

조사일자 : 1992년 7월 24일 16:10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1리 제보자의 집

노가단풍 애기씨가 옛날 어명이영 아방이영 살안 현디, 열댓이 되어 가난 어명도 하늘공서(하늘公事) 살래 오라, 아방도 지하공서(地下公事) 살래 오라, 영 허난 부모들은 이 딸을 어명 가냥해딩¹²⁾ 하늘공서 살곡 지하공서 살앙오린 생각이 들었주게. 계난 이젠 딸을 열두 살장 죽은 살장 속읍에 들여나네 문 채와딩, 어명 아방은 가명 우리 올 때꺼장 창공기¹³⁾로 물 주 곡 밥 주곡 허염시민, 우리가 혼¹⁴⁾ 되민 들어오켄. 계난게 창공기로 물주곡 밥주곡 허명 살안 신디, 절간에서 중들이 노가단풍 아기씨 얼굴이라도 뵈 오민 땅 혼착 물 혼착을 배여주켄 내

3) 밀넝 옷감

4) 삼

5) 다니면서

6) 흘려 버리니

7) 물장울[水長兀]인지. 地名.

8) 다리

9) 쓸어 냈다고

10) 키와

11) 심방들의 조상에 대한 본풀이인 제주도 무가 '초공본풀이'를 선택로 구연한 것이다.

12) 간수해두고

13) 창구멍

14) 기한

기를 허연. 겹으로 노가단풍 아끼씨 얼굴을 못보노넨. 어이 계건 내가 방 오켤. 이젠 침 노가 단풍 아끼씨 신디 오랑

“소승 저리배요. 권제 내시요.”

허난 노가단풍 아끼씨 종년⁷라 저 중오라시매 권제 주렌 영 허난 권제 거령간 주난, 노가 단풍아끼씨가 오랑 주는 딴 혼 가지깁이만 말앙 갈 거고 종이 주는 권제 혼 말을 쥐도 아이 반앙 가켤. 이젠 종년은 노가단풍아끼씨⁷라

“아이고 아끼씨 나오랑 권제 주는 딴 혼 가지깁이 쥐도 반앙가고, 나가 주는 딴 혼 말 쥐도 아이 반앙가켤 햐수다.”

경허난

“문 열지 못허영 못 나갈 주켤 그르라.”

계난 종이 나가 문을 열어 줄거난 권제를 도렌. 계난 아끼씨 문만 열어주민 나갈 주켤 허난, 이젠 종이 동드래¹⁵⁾ 돌아강 중중¹⁶⁾ 서드래¹⁷⁾ 돌아강 중중 허난 열두살장이 살랑허게 열 아지난, 이젠 아끼씨 너울 썬 나오랑 혼 가지깁이 권제를 거령 줄 거 아니라. 경헌디 혼착 손은 속움에 디물아¹⁸⁾ 불고 혼착 손으로 전대를 뷔우난, 그 쏘이 줄바로(제대로) 들어갈거라? 안 들어가난,

“이 쏘은 방울방울을 짓가락으로 좇어당 하나도 떨어지지 않허영 쥐사 복을 받넨.”

겨난 이젠 홀 수 어시 그걸 짓가락으로 좇어당 문 놔주. 그거 놓는 순간에 종이 혼착 손을 내어당 노가단풍 아끼씨 상가매를 썰어부러서. 그젠 권제 반앙 나가가난,

“노가단풍 아끼씨 중도 중도 깨썬한 중이여, 혼착 손은 어디 부러당 권제 반아서 쏘을 좇어 놓게 허엿켤.”

육을 허난, 중이,

“날그라 그 육 허여도 석달 열흘만 살아가민 나 생각이 저연히(자연히) 날 거온.”

“계난 아이고 이거사 무신 말곤. 저놈 본매본장 강 그차 오랜. 저놈 잡온.”

경허난 종년은 나간에 중움 앞자락음 간 그차 왔주게. 그걸 놔둬서 살아가난 침 석달 열흘 되어나,

“아이고 밤에 밥내여, 국에 국내여, 장에 장내여, 물에 물내여.”

허명 든(단) 게 아무 것도 어서.

15) 동쪽으로

16) 중얼중얼

17) 서쪽으로

18) 집어 넣어

“아이고 애야, 한라산에 강 외미지(오미자)나 타오라.”

외미절 타고난 낭에 낭내여 먹지 못허연.

“아이고 이것도 못먹켜. 이 저녁엔 선홀 끝에 모새나 강 타오라.”

그디 강 모셀 타고난 그건 먹어전. 맞이성 모새 모새 모새 허여났쟁 허주게. 모새 모새 허 단애 이젠 밤내도 아이 나고 물내도 아이 나고 허연. 석달을 넘어 살아가난, 뭇 배는 패동만 은 해가고 눈은 곰방눈이 되어가고, 머린 매방식이 되어가고, 입은 뽕롱새가 되어가고, 발은 곰배발이 되어가난,

“아이고 이 노릇이 안되켜. 아방그라 하늘공서 그만 살앙 읍센허라. 어멍그라 지하공서 그만 살앙 읍센허라.”

허멍 옥황애다 그자 두서너번 편지를 올랐다가 내렸다가 허연.

“아이고 무슨 일이 난 영 편지가 날아들업신고 하늘공서 그만 살앙가주. 지하공서 그만 살앙가주.”

이젠 경허연 들어오랏주. 들어오랑 보난, 아이고 그만 아기썬 병 독허영 볼 나우¹⁹⁾가 어선. 하님그라

“야, 아방방에 들어갈 땐 어멍허영 들어간다?”

“플 죽은 치매 입영 속속 들어가수다.”

“어멍방에 들어갈 땐 게민 어멍허영 들어간다?”

“플 썬 치매 입영 저직저직 들어가수다.”

이젠 아기씨가 아방방에 플 죽은 치매 입영 소옥소옥 들어가난,

“너 어멍허난 입은 그렇게 뽕롱새가 되었!-냐?”

“아이고 아버지가 언제 오시코 오시코 눈 새왕 창고망으로 드러 뵈려부난 입은 뽕롱새가 되었수다.”

이젠 어멍방에 갈 땐 플 썬 치매 입영 저직저직 들어가난,

“아이고 이젠 사름일이 망허였져. 물동이 가경오라.”

물동이 앞의 영 사랜 허난 물동이 앞의 사난 중의 자식 삼형제가 뱃속음에 들어앉았거든.

“아이고 이 노릇이 아이되켜.”

이젠 어서 질 바른냥 앞 바른냥 너대로 나가랜. 나가난 아방은 금봉채 하나 내어줬주. 가당가당 질이 어선 허건 이 금봉채로 때리민 질이 난덴. 게난 이젠 가당보난 바매기에 불이 활활 타서.

19) 나위

“야, 저건 어떻게 불이고?”

“아이고 혼 집에 우리 내쫓아뒀 가심에 붙으는 불 아니파.”

이젠 또 가당가당 보난 물이 한강물이 그득 허여부난 그만 질이 으서(없어). 아이고 어느 질을 디딩, 어느 굽²⁰⁾을 동경 어드레 가코 허멍 근심을 허였주. 이젠 아방이 금봉채로 따리민 질이 난댄 헌 걸 생각난 금봉채로 딱 따리난 그만 물이 바짝 줄어 부런 길이 났주. 그 질로 가단 보난 질 닦으는 사람들이 몇 천명이 나오랑 질을 닦아서.

“어드레 가민 사름 사는 디를 봐집니까?”

“이 질매기로만 감시민 인간 사는 디를 가집니다.”

질이 맥이도록²¹⁾ 가단 보난 절간 무똥²²⁾에 들어가져서. 그 절간에 들어간 보난 굴장삼이 드러져서.

“저 굴장삼을 강 보라.”

굴장삼을 보난 혼 귀가 그차진 굴장삼이라. 이젠 아저당 굴장삼 귀를 마취보난 그것이 맞 안. 이 굴장삼 입젠 불르랜.

“이 굴장삼 입제가 누구우파?”

허난 절간으로 스님이 나오라서게. 나오란 허난 이젠

“이 굴장삼 입젠 차자 오라수다.”

허난

“날 차자온 손님이 어떤 손님이고?”

허멍 나락을 혼 동이 가져당 주지 않혀. 이 나록²³⁾을 손으로 깡 쓸 혼 동일 맨들민 날 차자온 손님으로 알겐. 허난 이젠 혼 방울씩 까젠 허난 그 나락을 까져? 조라왕²⁴⁾ 아맹이라도²⁵⁾ 까질 못허는 거라. 아이고 암만이라도 죽어져도 줌이라도 혼 줌 차방 이 나락을 까사주. 조라왕 아이되켜. 잔게 뭐 언뜻 깨난 보난 생이들이²⁶⁾ 오조조조허게 나락을 문딱 까부런. 뭐 파롱 파롱 놀아나단 보난 나록첸 문딱 느라된 쓸만 혼 동이 소드래기 맹글아 난.

“아이고 이젠 죽젠 허여도 죽지아녕 살아지켜. 이 나록 아저다 준 중을 불르라.”

20) 경계

21) 다하도록

22) 앞마당

23) 밭벼. 山稻

24) 줄려서

25) 아무리 해도

26) 새들이

나록 아저단 준 중을 불란 날 차자 온 손님이 확실허던. 우리 중은 부배간²⁷⁾ 출렁²⁸⁾ 사
 는 뱀이 어시난 산밭을 정해주건 산밭에 강 애기 해산허곡 살랴. 이젠 그디 간 아길 난 게 아
 들 세 성제(兄弟)를 낳주게. 이제 어명도 못 본 본몽기(?)로 나랜 느단 즈드랑이로 허난 살랴,
 또 셋아덜도 아방도 못 본 본몽기(?)로 나랜 눈두랭이로 살랴, 이젠 또 죽은아덜도 아방 못 본
 본몽기(?)로 나랜 오목 가슴 헛산 살랴. 경허난 게 그 아이가 어우록 킨 글 공부영 활공부영
 허겐 서당애 강 부칭 허겐 허민, 어이구 중아기도 서당애 선비아기덜광 부칭 공불허라 허명
 나무련. 게난 그 공부허는 아이덜 글소리 들곡 활소리 들곡 말 곧는 소리 들곡 허명 그 아
 들은 문 공부를 했거든. 게난 안에서 선생한티 들은 것보단 더 공부를 잘허면. 이젠 선비애기
 들이 서울로 과거허래 가젠 헐 거 아니. 겨난 중애기들도 선비애기들광 갈 거 아니?

“이젠 우리광 같이 가커든 가당 우리 선비 수정애 배 하나씩 타 주민 우리가 얻어 먹영
 너네 드랑 가겠다.”

그젠 선비덜이영 가단 보난 큰 배낭이 있주게. 중애기들은 이젠 그거 하나씩을 타당 선비
 수정²⁹⁾애 주젠 해주. 배낭 위의 오랑 타젠 허난 배 입젠 오랑

“왜 남의 배를 그렇게 타느냐?”

“아이고 경허지 마셔. 일흔 선비들이 서울애 과거허래 가명 저 배 하나씩을 탕주민 우리
 드랑 가젠 허면 이 배를 탐수다.”

이젠 그 배를 타는디 종이풀애만 타노난 더 타져? 더 타지 못허면. 배 입재가

“너 의견이 부족했다. 아래로 사릉사릉 타야 타지시, 종이풀애만 몇 개를 타서 그 선비 수
 정애 다 주겠느냐?”

게난 종이풀을 킬린 사릉사릉 아래로 타는 거라. 그거 수정애 하나씩 줄 걸로 탄 느려 오
 랑 보난 선비덜은 오곳 가부렸주게.

“아이고 어땡형 조리, 이 선비들광 돌랑 굴이 가젠 허당 보난 아이 되켜.”

바깥애 이젠 종이텅이 있거든. 그걸 간 세 성제가 돌새기 드래매영 데끼난 선생이

“뭘 굴키가 이래 느라 오람시니? 저걸 봉강 이래 가져오라.”

아저강 뵈우난 킨 글씨가 이만 저만 좋질않여.

“저 문 열라.”

저 문 여난 그 아이 세 성제가 떨어졌단 들어갔주게. 들어가난 그 과거들을 헐 거 아니라.
 과걸 허난 중애기 세 형제만 과거애 되불지여. 양반집 아기들은 그만 떨어져 부렸주게. 아이

27) 夫婦間

28) 차려

29) 숫자

고 이젠 그 아이들이 중애길 과거주=넌. 중애길. 과걸 아이주는 거렌.

“저 아으덜 도래길³⁰⁾ 앓당 쥐 봅서. 먹!나.”

도래기 앓당 주난 가으덜이 안 먹주게. 이젠 과걸 칫당 낙방 헐 거 아니? 경헌디 가으들이 하도 억울헌 거라. 억울허난 이젠 너네 또로³¹⁾ 한 번 시험을 받아볼테니까 그 시험을 치민 과거를 아이 거두켄. 계난 무슨 시험이젠 허난

“연두문을 무시 걸로 마청 맞이민 과거를 헐 거, 아니 맞이민 너네 과거를 못헌다.”

경허였주. 계난 연두문을 큰성으로부터 마치난 웃대망 간 다락 맞안. 셋아시가 마치난 가운데 대망을 간 다락 맞안. 죽은아시가 마치난 알대망 간 다락 맞안. 아 겨난 이거 산천으로 나는 과거난 거두지 못허켄. 경허연 중애기들은 과거를 허영 들어오라부난 이젠 양반집 아기들은 과걸 못허연 허난 심설헐 거 아니라, 심설 허난 이젠 노가단풍아기씨가 어멍아방이 내쫓아 부난 나오란 울명불명 중 좃앗 살질 얹여서, 그 아기들이 서울 과거가분 순간에 이제랑 난 친정 살아난 어멍 아방을 차자 보주긴 허연, 어멍 아방을 차자 오라 부난 그 하님(하인)은 그냥 집 의 이섯주. 그 하님이 시난 선비들은,

“저 과거를 낙방을 시켜도라. 우리가 돈 모왕 주크매 과거 낙방만 시켜도라.”

허난 좋은 돈 받을켄 낙방을 시킬 거 아니라. 이젠 그 아덜 들어오라가난 건대 쓰고 두건 쓰고 상장도 짚으고 허연 나오란,

“아이고 아이고.”

허멍 울었주게. 계난 아덜덜은,

“아이고 이것사 무신 말고 어멍 죽어부러시민 이제사 우리가 과걸 허영 무시 걸 허리. 과 거등단도 돌아가라. 인력가³²⁾도 돌아가라.”

이젠 돈 돌아가랜 보내볼 거 아니? 보내여던 이젠 종³³⁾(종 더러) 우리 어멍 죽은 봉분이 나 그르쳐도랜. 봉분 그르쳐딩 좋은 일천 선비가 모왕 준 돈 받았 돌아가볼 거 아니라. 이젠 봉분을 팍팍 팡보난 무신 어멍시체 셔? 어선. 주걱만 허나 뵈 그거 어멍 무덤이엔 허연. 이젠 중의 예기들이 아이고 어멍시체도 못 보고 이런 노릇이 어디시런. 이젠 세 성제가,

“오라. 우리 신산만산 올라강 물 사우기 쇠 사우기 되어 그냉에 장고 맨들곡, 종 맨들곡, 좌영 맨들고, 쟁 맨들곡, 맹두갈 맨들곡, 이젠 산판 맨들곡 허영 어멍 질이나 쳐보게.”³³⁾

이젠 물 사우기 쇠 사우기 해당 장고 맨들앙 종 맨들앙 맹두갈 맨들앙 허멍 허는 체 허연.

30) 돼지 고기를

31) 다시

32) 가마를 이렇게 바꾸어 말했다.

33) 곳에서 사후의 극락왕생을 비는 것을 ‘질친다’고 한다. 시왕맞이에서 질치는 행위를 잘 보여준다.

신방질(신방일:무당일)을 허였주게. 어멍 질 츠지랜 우당탕 허난 그게 이젠 므을 사람이 다 알아 갈 거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은 어멍 죽으난 신방이 되어부렀구나.”

신방이 되난 이젠 그 므을 저 므을 멩감도 허여도라, 굿도 허여도라 허멍 빌래 올 거 아니라게. 이젠 굿도 허노라, 멩감도 허노라 허멍 돌아댕기단 보난 어멍 간 방을 좇아 간 어멍도 보고 외할망도 보고 외하르방도 보고 경허였주. 계난 외할망은 이제 땅 보멍 오란딘 땅문제 내어주고, 하르방은 하늘 보멍 오란딘 하늘 문제 내어주고 경헌 계 좌영도 나오고 북도 나오고 쟁도 나오고 허연 그만 그게 신방이 되어부는 거라. 겨난 신방도 할망³⁴⁾도 어섯단 중의 애기로 허연 신방 나오랏젠 허주게.

3. 조생원 하르방

제 보 자 : 부의함(여 81)

조사일자 : 1992년 7월 24일 16:35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리 제보자의 집

조생원 하르방이 이젠 장개간 살안 아들 허나 나된 각신 죽어부린. 이젠 백씨엔 허는 할망을 얻어당 살 거 아니라. 백씨할망을 얻어당 아들 서너 성제 난 살았주게. 살안 허는디 죽어분 각시엿 아들을 공붙시키고 장개갈 한이 되언 장겜 보낼 거 아니라. 장겜 보내난 아맹해도 부재로 살아나신고라. 종은 서너개 데령 살지 않아서게. 이젠 장개 보내는 날은 그 백씨 할망 이엔 현 죽은각시가 좋 하나그라

“늘랑은 오늘랑 새각시 모시래 가지말고 ‘아야 배여 아야 배여’ 허멍 배만 아프덴 등글라. 경허민 그 늬 야가지³⁵⁾만 떨어지민 그 종문서 반허영 잘 나강 살게 허켜.”

허난 그늬의 종은 그걸 고정들어그냉³⁶⁾ 장개가는 날은 ‘아야 배여 아야 배여’ 허멍 새각시 모시래 가랜 허난 안가퀸 허주. 이젠 다른 디 강 하인 빌어당 새각실 강 모셔오난 그날 즈난은 판 방 출령 새서방 새각시 눅질 거³⁷⁾ 아니라, 이젠 두가지 혼디 혼 무릎지성 누영 폭허게 들어부난 이젠 각시 우의 올라앉앙 줌 들어분 걸 이젠 종늬이 간에 야가지 강 떨어비였주게.

34) 삼신할망

35) 모가지

36) 진실로 믿어

37) 늘일 것

야가질 떨어당 마래 아래 물어비어서. 각신 좀자당 깨난보난 이녁 우의 피가 막 내리고 구들에 피가 벌경허어서. 아이고 요것사 무슨 일이린. 스뭇 예젠은 울어간다 울어온다 난리라. 시아방은 저년 어디간 물어된에³⁸⁾ 우리집의 시집오켄허연 들언 시집오난 허엿젠. 저년이 죽일 년이엔. 잠을 년이엔. 막이 죽여똥 저 엮치허는³⁹⁾ 소리 허엿젠. 시아방은 날마다 막 옥만 허주께. 그 여잔 어디 가도 못허곡 그지 종사허연 앓안 그자 아이고 해실(解實) 허여도라. 이놈 아 해실 허여도라. 매날 우는 게 옳이라. 막 옴만 매날 그자 허난 죽영 그자 혼날 새에 한스 무날은 되언 허난 머리가 마래 알로 둥글어오란 이녁 배 우티래 툅 허게 앓으멍 피 혼방울 흘쳐된 나간 저절로 둥글어간 또시 마래 소꿉대래 들어간. 언뜻 깨어난 보난 꿈이라. 아이고 요런 세상이 어디 시리. 윈 서방 머리뺨이 배 우의 올라앓양 피흘쳐된 둥글어가는 이런 세상이 어디 시린. 이제 뒷날은 시아방?라

“아버지, 아버지 이 마래 아래 떼영봅서.”

아 마래 아래 떼영보난 침 아들 머리뺨이 그디 서. 그디 시난 그젠 종놈을 막 답도릴⁴⁰⁾ 허엿주께.

“어떻허난 아들 머리뺨이 마래 아래 시넨.”

막 죽이기로 종놈을 답도릴 허난.

“그런 것이 아니고 백씨가 이 머리뺨을 끌어당 감영허여주민 눈씨 몇 섬지기 받고 종문서 발양 나가랜 허는 그말 들영 경해수덴.”

이젠 종은 그냥 나가랜허고 백씨 난 얘기 서너 성체를 조생원냥으로 문딱 죽여된, 머!리 그라 이집 울래에 풀이나 매어도랜. 경해된 그집 내불어된 그 하르방이 절간으로 들어가부리서. 절간으로 가부난 이젠 머!리가 그 집의서 비영비영 사는디 흐르즈낙 눈 것도 태기증(胎氣症)이 앓안 아길 그 집의서 나져서. 아길 난보난 아들을 나전. 그 아기가 열살이 넘어가난 이젠 어멍이 밥을 혼 차룽 허여주멍 손가락 하나 놓곡 허여주멍,

“이 밥 다 먹어지민 마을마다 땡기멍 조생원 봐집디강 조생원 봐집디강 허멍 츠지랜.”

겨난 그자 그 밥 다 먹어지난 동냥허영 먹으멍 “조생원 봐집디강, 조생원 봐집디강.” 허난 보난 그 절간집을 들어가지는 거라.

“이디 조생원이엔 허는 하르방 시넨.”

허난

“조생원이엔 허는 하르방은 있젠.”

38) 정부를 숨겨두고

39) 엮지않는

40) 신문울

“너 어떻게 아이로 영 차자 오랴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나 여나문살 되어간 밤허영주멍 이 밤 다 먹어지건 동
냥허멍 조생원을 강 차자오랜 허연 오라수다.”

“나가 조생원은 조생원이여마는 너가 어덩허연 여길 오란다.”

허난 어머니가 영정 허영⁴¹⁾ 살멍 하르방을 차자오랜 헛디덴. 켜 가으 조름에⁴²⁾ 돌란⁴³⁾ 오
란 보난 이녁(자기) 집이주. 그젠 며누리 홀목(손목) 잠곡 손지 홀목 잠곡 누위 둥글멍 막 울언.
그 하르방이 그 손지 믿어 살드랜…….

4. 성삼문

제 보 자 : 고태수(남·72)

조사일자 : 1992년 7월 24일 20:20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1리 2836-6번지 제보자의 집 앞 평상

우리 나라 성삼문이라고 성삼문이 낄 때에는 아무 시에 나아 좋다고, 거니까 강 물었거
든, ‘흔 시간만 더 있당 나라.’ 게니까 윈 것도 그 말 우의 앉혀가지고 여자를 말 우의 놈 가
지고 그 우의 앉정 딱 해기냉 해영. 것도 말이 닳아 빠지 않허여. 켜디 다시 강 “어떻게 험메
까?”고 “아 나도 좋다.”고 성(姓)은 성(成)가 주게. 세 번 물으니까 삼문(三問)이라고 석 삼재
(三字) 물음 문제(問字). 삼문이 경 해가지고 허니까, 그 선비가 허는 말이, “우리 나라 이
조선의 문장 노릇을 허겠다.”고 조선의 문장 노릇을 허겠다. 그래서, 대국 강 글을 짓는디 대
국 문장이 (×××)⁴⁴⁾ 통소를 읊으거든 ‘동방의 무월경이요’ 그니까, 성삼문이는 그 대국 문장
글은 오언(五言) 글인디 글재 두재를 더 낱 지었거든. 성삼문이는 글 두개를 더 뇌가지고 ‘유
월 동방의 무월경이요 (×××)’ 경행 글을 지영허니까 성삼문이는 전부 차원(借韻)을 허고, 대
국문장은 성삼문이 글을 차작(借作) 했다고 (×××) 게니까 (×××) 경행 허니까 죽어 가지
고 춤 죽어 갈 때 글이나 흔 귀 더 지영 죽자고 허니까, 대국문장이 춤 거 뗏이라고 지었드
라. ‘일일 칠석이면 하우 동방’ 경허니까. 성삼문이는 (×××) 하늘의 그물 치멍 의미를 따
가지고 하늘의 콩을 갈았드니 다만 일곱 말이드라. 춤 우리 나라 말이 좋다고 (×××) 대국

41) 이리 저리 하면서

42) 그래서 그 애 뒤에

43) 좃아

44) 청취불명. 이하 같음.

도 글을 강 한번 하여 보리라고 그런 정보가 들어 오거든. 그러니까 성삼문이 어부로 출려 가지고 피기 낚으러 갔거든. 피기 낚양 눈영 쟁기리고 피기 낚안. 눈 쟁기리고 허명 피기 낚 암시니까, 대국서 배 탄 오라 가지고 탁 오랑 허는 거가, 허기를 '어부 목탁(漁父目琢) 아니 오?' 성삼문이 그라. 피기 낚으는 사름은 눈이 트라졌다. 게니까 그저 대국문장은 코가 트라진 모양이라. '문장 피풍취'(文章鼻風吹) 바닷 바람은 다 대국문장 코에다 불었다. 그러니깐 그 대국문장이

"아 이 저 글은 사름이 이 조선에 벗어나 있느냐?"고

"아이고 무시거허는 사름이지만은 문장 상당히 많이 했다"고

"아이고 아니 되젠. 피기 낚으는 것들이 이렇게 문장 노릇을 해시니깐 다른 사름이야 뭐 말할 게 있느냐?"고

그저 그대로 돌아 갔다고 그런 그 말이 있주.

5. 용단호장

제 보 자 : 고태수(남. 72)

조사일자 : 1992년 7월 24일 20:25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2836-6번지 제보자의 집 앞 평상

이 용단 호장(龍短虎長)이 벗어나. '용은 줄르고 범은 길다'. 이것이 뭐 뜻이나. 그러니깐. 야! 용이 길고 범은 쪼른 것이다. 용은 쪼르고 범은 지니까 이게 뭐이고 그거 각시가 영리현 사름이라고 해여. 그런 이것이 험니다고 (×××) '도원서방'(圃園書方)이라고 했었거든. 글로 쓰면 네모난 거고 그림으로 그리면 동글랑 현 거라고 도원서방이라고 글써네. 글로 쓰면 날 일재(日字)가 네모나지 안 허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 지구가 동글랑 허주게. 우리가 안방으로 해가 뜨며는 길고 진방으로 해가 뜨며는 쪼르거든. (×××) 그래서 춤 조선도 인물이 있구나. 영 행 그렇게 해난 말이우다. 도원서방이구나.

6. 죽은 동생 살린 누이

제 보 자 : 고태수(남. 72)

조사일자 : 1992년 7월 27일 20:30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1리 2836-6번지 제보자의 집 앞 평상

옛날 이정승이 오누이 나뉘던 죽었거든 오누이 나뉘던 죽으니깐 그 딸은 좀 몬여(먼저) 낫던 모
냥이라. 딸은 몬여 나고 아들은 말제 나 가지고 그 오래비를 다가 서당에 공부를 시켰는다.
그 이정승네 집이 아주 재산이 좋았거든. 겐디 그거 선생이 젊어 그것 오라방만 죽여 붙여는
(제자 하고) 살아가지고 재산은 전부 내가 먹고 허겠다고 그런 염치로 있었던 모냥이라. 게내
춤 죽일 여산(을⁴⁵) 했거든. 아무날은 산보를 갈테니까 점심이랑 가지지 말고 그대로 오라고
허난, 춤 그 다른 제자들도 그냥 가고 이정승 아들도 그냥 가실테주 뭐. 옛날에 그 선생허랜
허는 대로만 허민 아니 돼주게. 아니 돼가니깐 아맹 독약 창 밥을 행 준 모냥이라. 행 먹었
다 집이 오란신디. 오란허니까 그 이정승 아들이 누님보고,

“누님 나 대구리가 아프우다.”고

“음식은 뭇을 먹었느냐?”고

“음식은 뭐 선생이 해다 준 밥 먹음뿐인디 대가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래 누라.”고

누니까 죽어부린.

“아 이거 아니 아니 됐다.”고

선생이 흐끔 몇 시간 후에 강 똥 오랜 했던 모냥이라. 그 제자보고 이정승네 집이 강 보라
고 죽어시나 살아시나 이런 말은 안 허고 강 똥 그 학생을 데려 오라고 보낸. 그 이정승 딸은
그만허 연골해 보니까 아니 됐거든. 그냥 거 오래비를 산거추록(산 것처럼) 안아 가지고 니⁴⁶를
잡고 있거든, 대가리. 게나칸

“선생이 아무 아이 오랜 행 돌래(테리러) 와수다.”

“아구 저 산보간 오랑 막 지천이 지천 가지 못 허켄 햐져. 나 니 잡고 널 아척이랑 보내
켜. 널랑 보내켜.”

경 그랑 보냈거든. 거니까 제자가 허는 말이

“저 산보간 오랑 좀 지천 널랑 오켄 햐디다.”

이렇게. 그라 부렸어. 게내 선생 생각엔 ‘하! 그거 산천 좋은 놈의 집이로다. 요게 죽으카
부텐 현 것이 사는 거 보니까. 요건 나한티 장래 복수나 허지 안할까.’ 게내 선생은 자살행

45) 계획음

46) 이

죽어 부렸거든. 그래서 이불 잘 꿰우고 오라방 그디 간 짝 늙전. 딱 문 통쇠로 채워두고 종놈 보고,

“일절(一切) 이 문이랑 열아 보지, 내가 오기 전이랑 열질 말아야 한다.”

고, 경행 그냥 나갔거든. 그 이정승 딸이 아주 공부를 춤 잘헌 모양이라. 공부를 잘 해가지고 얼굴도 좋거니와, 공부를 잘 해 가지고 이리저리 댕기단 어디 시골에 황정승네 집일 갔거든. 황정승네 집일 가가지고 남자의복으로 출려서. 남자 의복으로 출령,

“얼어 먹으래 댕기는 걸바사⁴⁷입니다.”고

“헌디 오늘 저녁 밤이나 유숙(留宿)할 수 없습니까?”

허니까 그 황정승이 보니까 아주 얼굴이 미남이고 공부 꽤나 헌 남자거든.

“아! 들어오라.”고 “오라 가지고 저녁식사하고”

가니까 잘 대우하고,

“저 지금 우리 집의 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게니깐 내가 독선생으로 할 테니까, 우리 아들을 잘 그리쳐 주라고 게민 아주 후히 화채를 주겠다.”고

게니까,

“아 경 허십사고”

해서 그리치는디 거기 딸이 아주 미인이 있었어. 미인이 있는데 제자가 아 꼭 자기네 매부 허시민 좋암직 허거든.

어떻 켜 어떻게라

“어머니.”

“무사?”

“저 선생님 우리 매부 헤시민 양.”

“에따, 내 아나? 아버지가 알지.”

근데 하두 권에 부디껴 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래게 남잔줄 알아 결혼을 해 가지고 결혼을 행 혼방에 줌을 갖지마는 정 붙이지 못하고 헌디. 황정승 딸이 두 갓 삼으난, 이젠

“우리 꽃밭에 강 꽃이나 구경허자.”고

요건 무시거 허면서 막 그리치다가 꽃 하날 그리쳐 주질 안 허거든. 게니깐,

“이건 뭇 꽃이나?”

허니까. 그냥 확 오라 붙거든.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각시 자는 동안에 강 꽃은 꺾어서 다 허고 허나 이름 안 그리주는 꽃은 토루⁴⁸ 행 놓고 해서. 내가 혼 삼일간 집이 강 댕겨 오겠

47) 거렁뱅이

48) 따로

다고 오란 보니까 춤 빼만 남아시니까 그 꽃은 닳으니까 술이 오르고 경해서 말장. 이 꽃 하난 목숨있는 꽃인 생이라. 그 꽃은 차서 그 춤 살려 놓았거든. 살려 놔서 꼭 오누이가 얼굴을 닳았다고 원 구별할 수 어서 닳으니까 가가지고 나 스실이 이리 지리 됐으니까 강 그렇게 허라고 경하고 만일 거기서 어떤 점이 이시면 그냥 편지를 다 엽서를 씌어 냈거든. 엽서를 씌어서 온다. 오란 내가 왔노라고 허니깐 문을 확 열안 힐끔 봐래 반 문을 탁 더끄거든. 아, 이상하다고 꼭 누님 닳았는데 왜 그럴까. 문을 열라고 허니까 안 뚫다고 하면서 문을 아니 열아 주거든. 그러니까, 겐 이 편지나 받으라고 편지랑 창구녕으로 달라고 편질 주니까 황정승한테 가져가 바쳤거든, 스실이 영 왜우덴. 그 엽서를 보니까 들여 노라고 해서 춤 두 갖을 삼양 살았다고

7. 高良夫 유래

제 보 자 : 고태수(남 72)

조사일자 : 1992년 7월 24일 21:15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리 2836-6번지 제보자의 집 앞 평상

근디 그디 강 불사약(不死藥)을 캐래 가젠 허면은 사름은 몇 명이나 가며 식량은 어떻게 허고 (×××). 사름은 처너 500명. 백일기도힐 군량미를 가져야 같겁니다고 그래서, 춤 제주도를 들어왕 보니까 좁거든 좁아. 좁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맹해도 그때 영 보니까 그 서대사⁴⁹⁾가 영리헌 늬이라. 거도 곧은 것도 가져나신 생이라. 그냥 동쪽으로 그냥 일본을 갔거든. 간 오니까 거형도 넓으니까 집도 짓고 하간 거 하는데 이제 짝을 채워 보거든. 짝을 채우는데 사름 여자 세개가 남아. 그때 고량부가 제주도에 그냥 이서분 거라. 해서 동의 온평⁵⁰⁾인가 어디 온평. 거기서 만났거든. 개난 거 우리 저 고은 하르방 우리 할머니 폐위는 낙랑 공주엔 해서 낙랑 공주엔, 물결 랑재(浪字) 게 가지고 헨 역사가 지금 2,600 몇년이고 42년인가 되실 거라. 근디 소뭇 맺 만년 되고래 일본놈들 출삭거려⁵¹⁾

49) 徐市. 진시황 때 사관.

50) 성산읍 온평리. 세 짝이 혼인을 했다는 혼인지가 있다.

51) 잘 난척 해서

8. 물장울

제 보 자 : 고태수(남 72)

조사일자 : 1992년 7월 24일 21:20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흥1리 2836-6번지 제보자의 집 앞 평상

우리가 (×××)를 어릴 때 보았는디 영새들도 막 울먹으래 와서게 갔는디 한 가운데는 거 설문대 할망이 빠져난 물이라고 상당히 깊은 물이라고 헌 뜻이거든. 오름을 깨수와 가지고 바당광 통과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어. 오름도 상당히 크매. 한라산은 무신 아방이고 큰 아들은 (×××) 그 다음 (×××) 그 다음 (×××) 상당히 큰 걸로 큰 물인 중 우린 알았거든. 바당에 가난 발등도 (×××) 혼 할망이 그디 물에 빠져 죽었다고 겐디 혼 짝 가달은 뭐 어디 바당하고 어느 바당에 놓고 행 서답해나고, 맹쥐로 속옷을 해주면은 추자⁵²⁾하고 제주도에 드리(다리)를 놔 주겠다 헐 맹쥐를 뭐 여든 동은 구허고 스무동 구허지 못행 못해주난애 조천으로 드리놓단 말았져. 조천 영 강 보민 조천영에 밋 이시매 이저 두듯돌 경했젠 헌다.

9. 문소랭이 불미터

제 보 자 : 고태수(남 72)

조사일자 : 1992년 7월 24일 21:25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흥1리 2836-6번지 제보자의 집 앞 평상

아주 오랜 땐 생이라. (문소랭이) 불미터⁵³⁾라고 허는 산이 있는디. 문소랭이라 허는 사람이 제주도 이방직⁵⁴⁾으로 있었던 모양이라. 개니까 제주 목사로 오젠허민 상당히 잘 알아야 허고, 그 산을 아주 잘 오르코 말이어. 그런 사름인가 허여. 근디 그 문소랭이가 이방으로 이실 때 자꾸 목사랑 나들이를 허거든 밤의. 그러니까 한번 뒤를 쫓아 보자고, 뒤를 쫓앙 가보니까 그 물장오리 강 '하 좋다 좋다' 허거든. 게 문소랭이가 딱 들어가니까 너는 이 땅에 텨지 않했다고 텨질 않했으니까 너는 안된다고. 게도 막 수정 허거든. 게 어쩔 수 없이 산을 쓰되 삼년이

52) 추자도 북제주군 추자면.

53) 풀무터

54) 吏房職

랑 집 밖에 나강 안된다고 산을 씌자마자 비가 오기를 상당히 폭우가 쏟아졌 그대 내⁵⁵⁾가
 있는디 말이여. 내를 넘지 못할 거 아니라. 이 제주도 그 사실 내가 하나까 내 터지민 못 오
 거든게. 이렇게 문소랭이가 이래 파짝 저래 파짝 허멍 그 역사군이 전부 내쳤다고 게내 집에
 오니깐, 그 춤을 수가 없었던 모냥이라. 팍 허민 그자 어디간. 요새 무시거허는 사람들 경 허
 는게. 높이 뜨는 사람들 있지 안혀게. 그 추록 허거든게. 춤을 수가 어시니깐 이제 분향에 가
 가지고 높은 남신 맹글앙 신영 성당을 다가 가달 태원 넘어가멍 허는 걸 어떻 알았거든 신하
 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이 도적을 잡자면 어떻게 잡을 게이나고 뭐 이 사람은 정하지 저
 사람은 정하지 해서. 한 대신이 있다가 좋은 수가 있다고 기와집에 불을 질러 놓고 이불을
 끄는 사람은 천금상을 줄 것이며 (×××) 방을 씌영 내 불이라고 해서 춤 그렇게 불을 질러
 그런 방을 씌영 내불이니깐. 문소랭이가 강 그 불을 끄더라 해여. 그니까 폭 심어서 너 어디
 살았다고 제주도 아무도 내 었다고 허니깐 그때 그 임금도 영리한 생이라. 광목 열두곱을 해
 영 친 후에 장막추록⁵⁶⁾ 영 처 논 후에 산을 파야 한다. 게내 그대로 했던 모냥이라. 켜 산을
 막 도니까. 상어가 용이 될 건디 띄는 것이 광목 열곱은 풀르고 두곱 못 풀랑 알러래 떨어져
 서, 거기서 불 스라 부렸다고 파짝 허게 튀니까 열곱은 풀르고 두곱은 못 풀랑 알러래 떨어
 졌다고 그래서 임금도 오죽 영리한 사람 아니라. 그래서 문소랭이 불미터라고, 게서 그대 산
 을 씌영 경해서. 그루후에⁵⁷⁾ 산을 거기 좋던 허난게, 술책이 강 산을 씌영 막 장마치곡 경해
 서 그대 산을 원 중간까진 못 씌었주.

10. 親父 묘터 빼앗은 딸

제 보 자 : 고태수(남 72)

조사일자 : 1992년 7월 24일 21:35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1리 2836-6번지 제보자의 집 앞 평장

광산 김씨 선묘가 (×××) 때에 성전다. 광산 김씨 아들들이, 아시는 정시고 성은 그 보통
 사람이다. 옛날엔 그 부모나 부친이나 모친네가 죽으면은 직접 제라한 자리에 간 묻지 안허고
 그 좋은 자릴 볼 수가 없거든게. 게 아무디나 그냥 묻었당 막 (×××) 좋은 디 봉가서⁵⁸⁾ (×

55) 河川

56) 장막처럼

57) 그 후에

58) 찾아서

××) 물어난 모냥이라. 요즘은 경 안허는다. 광산 김씨 선묘가 이렇게 묻게 되는다, 죽영 토
 통⁵⁹⁾해된 아내가 굳은 말이 아 널 모리⁶⁰⁾ 소상이 당허는다 어찌 해가지고 산을 이제 쇠할텐
 디 어떻게 허젠 험신고 아시가 어떻게 산을 (×××), 아니 됩니다고 당신이 나상 해야주 어디
 그렇게 행 됩니겐. 또 아시네 집이 갔어.

“아우 이서?”

“예.”

들어간. 아시가

“어찌 행 읍디가?”

“아저, 아버지를 그렇게 험 물어야 험텐디. 어떻게 허민 좋고 어떻허고”

“글쎄 말씀. 정신 들어 봅디가.”

“아니! 이 사람이 자네가 정신 (×××) 어떻행 정신들일 말인고.”

“아 난 저들이⁶¹⁾ 없어서.”

“아 저르이시나 뭐나게 아버지를 모셔야주게 무신 말을 그렇게 허는고?”

“산 봐주민 옷 혼벌 해주쿠라?”

“아 원 말허는 거 허곤. 아 경허주.”

집이 오란. 이만저만허고 이만저만 허고 온 게 경해야 해주곡 말곡 (×××) 벨라그녕에 어
 디 몰안장 빌영 들음읍서. 경 굳거든. 뭐 할 수 어시 그렇게 행 가니까. 그 아신 물 타고 성고
 라. (×××) 이꺼아전 저 기저곳⁶²⁾이런 험디 갔어. 가가지고 산을 보면서 여기 어떻게 봐옵겐.
 경그라. 아 뭐 자네가 좋다는 뭐 허주. 여기 허젠 허면은 산쎄 하영 들어야 합니다. 게 하영
 들어도 할 수 없주게. 게 토지세 얼마나 들어서 땀겨라. 형님 재산 (×××) 다 날 쥐사 합니
 다. 아이고, 아 그게 다 주어그냥 다 주멍 게 산만 좋으면은 즐 거 아니짜고 그렇게 행 할 수
 어시 집문서영 밧문서영 다 주언. 산쎄는 아시가 허자, 게내 거 산쎄 허는디 산을 쇠었거든.
 아마 겨울이었던 모냥이라. (×××) 쇠워두고 형님은 그걸 직허라는 거라. 아방이 죽어가멍 아
 덜그라 유언을 해가지고 허거든. 내가 죽거든 야가지 그차당 아무 바다에 어디 대껴 달라고
 경해서, 오다가 돌랑 봐지진 무지견⁶³⁾ 죽여 달라고, 이권 꼭 지켜야 험다고, 그래서 경 했는
 디 결국은 돌을 죽이지 못했던 모냥이라. 그래서 막 스정허니까, 아맹아맹 험디 해당 무덤 갔

59) 가매장

60) 내일 모래

61) 겨불이

62) 地名

63) 무조건

다오고래 허난, 똥은 팔자액이 아방 딸 판 들러볼겨똥 지네 시아방인가 시하르방인가 문영 잘 됐다 헤.

11. 부대각

제 보 자 : 고태수(남·72)

조사일자 : 1992년 7월 24일 21:50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리 2836-6번지 제보자의 집 앞 평상

부대각. 그 옛날, 옛날도 개 뭐 하영 잘 먹으면 주식도 세고 무시거 허고 현 말덜이 이서서, 이제 풀텔 대니까 쇠를 열마릴 잡아먹었다 허여, 아들 나지카부덴, 열마릴 잡아먹영 보니까 아덜이 나서, 개서 상당히 힘이 세거든. 그저 아들 이길 사람이 업서 윈. 씨름이나 허곡 심겨루기, 무시거 들르기 허곡 이런 걸로 힘을 겨루었는데, 한번은 누이가 열세덜이 얼마나 나보다 션건가 약할건가 남자 의복으로 찰려 입영 강 나강 씨름을 하느디 대번 매다치언. 어라 막 탄복을 허여.

“윈 세상 날 이길 사람이 어실 거 같으디 날 이길 사람이 이시니 이런 일이 있냐”

고 막 탄복을 허니까 막 경행 빛날 정도로 경허니깐 그 누님되는 사람이

“그렇게 허지 말라고, 너가 하도 세덴 허길래 내가 힘에 빠라보기 위해 너와 씨름했다고”

“하이고, 경이나 허주, 이겨야 윈”

부대각이 상당히 세난 모양이여. 이렇게 씨름을 허래 강 영 보니까, 씨름허느디 중놈덜이 우머니에 쇠방맹일 놋당 헛차 허멍 매붙들렀당 쇠방맹이로 찍고 청 허난 죽고 죽고 허거든. 하 요겨 아니 됐다고, 여차 허당 내 죽을 건 아니지만 되게 얼먹어짐직 허거든 생각에. 요놈을 어쩌크류헤영 경 못허도록 헤영 해야 헐 틈디 맹심어난디 씨름을 혼디 앗앙 꼭 허게 땅다래 존등 들어가게 박아본 생이라. 거난 그냥 그 사람이게 살거라. 죽으네 그냥 살짜 배 잡앙 제주 들어와 부렸거든. 거니까 그 아시가 있느디 성 원수를 갚아볼라고 쟁이 장시를, 쟁이 막 질머정 오랐거든, 제주도예. 오랑 초짐 초짐 부대각이를 좇아어, 부대각이를 찾아가지고,

“쟁이나 사겠소?”

“든든헌 거나 시른 허나 사주.”

가저와 보라구, 오랑 쟁이를 영 아정 허당 쟁이로 대가리나 때려 죽이젠 현 거주개. 오랑 그저 여산 풀콕산일 꺾으듯 영 패왕,

“랭이가 어떻 약허다 요거, 아. 이견 못 살로구나. 든든헌 거면 내 허나 상 쓰겠는디, 이거 약해영 어디 써지키라.”

경헌 그 사람이 보니깐 아이 될거 곱으거든게. 랭이도 패와 불고, 랭이로 찍영 죽이젠 오긴 왔는디 랭이로 죽이질 못허거든. 경행 그냥 돌아갔다고 경헌 부대콕이 새다고.

12. 선홀 유리

제 보 자 : 고태수(남. 72)

조사일자 : 1992년 7월 24일 22:00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홀1리 2836-6번지 제보자의 집 앞 평상

사람이 세계 본래에 탄생헌 사람은 음식을 잘 못 먹어도 쎄는 모양이라. 많이 먹진 못해서. 겐디 선홀 유리라고 허는 어른이 이서. 이서나서. 유리. 이가(李哥)라, 성(姓)은. 지금, 저, 손자가 살아있는디 성우(人名), 성우 정조(曾祖)계, 이성우 있지 아녀, 무사? 그 어른이 상당히 쎄났다고, 이 어른은 그... 저... 퇴점(?)을 싣거서 가당 도투기(?) 싣프민 짐 시긌(?)을 오뎀 들렁 담을 냉경 가곡, 가곡 해났다고, 오죽 쎄 어른이라. 아니, 그때, 그 봉쟁(人名)이 정조가 큰물토(64) 밭이 이서났던 허대계. 겐디 그디서 일허당 보면은 그 유리, 유리 동산이라고 헌디, 그 허영허게 된 그때 지지라(?)헌디 돌을 그자 몽몽몽 뻑뻑 막 데껴. 야, 이거 그자 돌만 죽엄신가, 예, 어떻헌 돌을 죽엄신고, 간 보니까 쪽은(?) 덩드렁(?)만씩헌 돌을 손으로 뽑으멍 데껴. 상당히 보기엔 저, 엄엄해 보이거든. 허나 일우젠(65) 허난 재각 랭이 들여도 일우기가 어려운 돌을, 경 여상(66) 그자 우리 잡기 줍듯 죽어났다고 그렇게 쎄여난 어른이라. 개난 왜 유리라고 했는고 허니깐. 예미유리엔 말들어봐서? 예미유리. 젓 굵은 것(7)라 유리(乳巖)엔 허매. 예미유리. 젓, 젓 못 먹은 거, 아이 곱아도 요거 예미유리, 저 소나 쇠도 새끼 낭 곧 죽어 불어 그네게 젓 못 먹은 거 곱아 요거 예미유리. 젓도 굵은 사람이 그렇게 쎄나서. 예미유리를 그 벨호(別號), 옛날은 그 벨호, 벨호가 이서나서. 이, 저, 젓 “유”(乳) 자에 무신 걸꺼라. 젓 굵은 사람 곱아 예미유리엔 허는 거주. 개난 그 체질이 딱 허게시리 크게 되면은 무시거 먹지 안해도 크는 생이라.

64) 地名

65) 파내려

66) 업계

13. 선홀 안씨 장사

제 보 자 : 고태수(남·72)

조사일자 : 1992년 7월 24일 22:10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홀1리 2836-6번지 제보자의 집 앞 평상

그 선홀 경현 사람이 이서났주께. 안 칩(집)이 사람이라 하여, 저 대남모래⁶⁷⁾ 너른 밧이(밭 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맹해도 혼 2,000평이 남아. 연날은 따비, 따비 알아져? 밧 가는 거, 혼 50평백이 못 갈거든께. 계난 지금은 이 따비에 쇠를 끼웁 갈거든. 쇠, 요리(?)라고 해서이. 나, 지금, 우리집이도 있지마는, 연날⁶⁸⁾은 쇠도 아니 끼웁고, 낭으로만, 낭으로만 해서. 지금 사람들은 혼 병맹인⁶⁹⁾ 못 갈거든께. 아무것도 아니끼왕 건디, 그 상대(人名) 정조네 밧인디, 그 때 안 칩인 안 칩의 사람인디

“성님, 밧이나 매틸(머칠) 같이줍서.”

“어디?”

“대남오름⁷⁰⁾ 마쭈. 매시나(멧이나) 갈코양?”

“그거 혼 아흙은 같아야 허.”

“예, 형님, 그자 늬⁷¹⁾ 빌어그네께, 아무 날랑. 같이줍서.”

“뉘, 경허주, 저 징심이고 조반이고 흙치 해당 밧되 내붙어. 저녁이랑 나 집이 오랑 먹크 떤.”

게서 아흙 늬 먹은 징심, 조반 헨 강 보니깐, 밧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 이상허다. 없지? 이 어른이 빈말은 안허는 어른인디, 거 이상허다.’ 아, 지금, 봄인, 봄인디 한 여덟시가 넘어야 혼자, 혼자 오거든.

“어명현 당신만 완수가?”

“일로 비어적(?) 절로 비어적 허명 안 되영, 이제 몇 사람 올터사.”

“게민 이, 저 징심은 영 허영, 징심 조반 행 위수다.”

67) 地名

68) 옛날

69) 덩어리리는

70) 地名

71) 일꾼

“내불어동 가민 거시기 허쥬.”

경 그 बात을 혼자 다 같았다고, 그 아흠 늬 먹을 정심, 조반 다 먹고, 계난 험센 사름은 식량도 크는 생이라게, 게서

“बाट은 다 같아신게.”

저냐이 완,

“아고, 거참 고맙수다.”

बाट 강 보니까, 두드릴 수가 없어, 도저히. 파록허께(?) 일위노니깐, 거니깐 저금이민이, 썩 बात, 용서⁷²⁾ 안하는 बात, 게니깐 그 어지랑(?) 새랑(?) 허민 그거, 걸 보고 썩बाट이라고 허는디 여깁, 태역बाट이엔 허쥬. 두드릴 수가 없으니깐,

“저, 어떻습니까? 정 처 일위낭게 저거.”

“어떻게, 뭐...”

“두드렁 어떻게 건디게, 형님이 어떻 두드리나 어떻?”

“저걸. 저걸 아멩해도 간 것보다는 더 두드려.”

“게민 댓이나 험네까?”

“헌 열 두어개 두드릴테쥬, 아무 날랑 정심이여 조반이나 허영 오랑 놔 두민...”

간 보니까, 허, 아무도 없어, 사름은. ‘아, 이어른이 몬여도⁷³⁾ 경헨 헨게, 어떻헨...’ 조금 이시니깐 이망 뿌러진 헌(?) 낭을 헌, 아주 진디, 저 전봇대만이, 그거 아정,

“아게, 어떻허난 이제사 오랑, 이걸 어떻허젠 험서?”

“멧 사람 올거라. 내불어동 가민 어떻허여 가쥬.”

경해동 오명 영 돌아상 보니, 구름이 하늘광 땅광 막 맞붙게 됐거든. 거, 이상허다. 그 장 낭으로 그자 혼번씩 내 후리낭 혼거 그 뭐 간 것보단도 혼 낮전이만 헨 처와 났다고 게도 옛 날은 이 ‘중’이라고 헌 게 있거든. 중. 중. 중. 중이 무시거라. 부리는 중. 중살이, 계집 녀(女) 변에 또 우썩(又字), 중 노계(奴字) 자. 중이엔 헌 건 장남허고 틀리거든. 장남(?)은 월급을 받았 살고, 중은 거기 강 돈을 빚쳐 오거나 뭐허면은 그자 그 값으로 멧 해나, 죽기 생전 살당도 부족허민 그 아덜까지라도 살게시리 허는, 그렇게 해났던 허대. 그 중이 하두, 거칠거칠 허거든. 그뻐 뭐 법도 그렇게 잘 세워지도 안허고 허니깐, 힘있는 사름만 좀 거들거렸거든. 경헨, 상태징조가

“이 늬이 얼마나 힘이 썩여서 이렇게 허는고 요걸 한번 힘을 받아봐야 할텐디...”

72) 농사

73) 먼저 번도 전에도

해서. 물고래 맞두루(?), 물고래 맞두루 살짝 알려래 털어졌거든. 거 상당히 무거우매. 아맹
도 1톤 정도 될꺼라. 1톤이 더 되여.

“아고, 저거 저거 멧돌 내려져 부렁 못허쿠다.”

중놈보고

“저 멧돌 강 올려봐 줘 불자.”

“예.”

헨(×××) 가고 조름에 강 봤거든 간 보니까 바닷 그 물고래가 산돌 올려 놓당 툭 털어지
고 툭 털어지고 허거든. 상태정조가,

“영허자.”⁷⁴⁾

구름에 확(×××) 오꼴 올려놔 무렵으로 속 밀언

“영허영 올려놓주, 이까짓 걸 못 올려 봐그네게.”

그루후제는 77딱 안행 거시기 했다고

14. 마툽이⁷⁵⁾

제 보 자 : 부의함(여·81)

조사일자 : 1992년 7월 25일 14:20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1리 제보자의 집

옛날, 가문장 아기 아방 어멍들이 하도 잘 살아지만, 풀이 시 성제⁷⁶⁾가 이서서. 하도 잘 살
아지나네, 이젠 어멍 아방네가 아기들 뺨쪽 받아보젠

“큰딸애기 나고 오라, 네 말 들어보져. 나오라, 너는 누게 덕에 사느냐?”

“어머님도 덕이우다, 아바님도 덕이우다.”

“이젠 내 조식 기특하다. 네 방으로 들어가라.”

“셋딸애기 너는 누게 덕에 사느냐?”

“어머니도 덕이우다. 아바지도 덕이우다.”

“에, 게. 또 내 얘기가 확실하다. 네 방으로 들어가라. 작은딸애기 나고 오라. 네 말 들어보
자. 너는 누게 덕에 사느냐?”

74) '저리 비키게, 내가 할 테니' 정도의 뜻.

75) '삼공본풀이'를 실화화한 것이다. 같은 날 17:44에 같은 자료를 구연하였다.

76) 세 형제

“난 어머니도 덕이 엿수다. 아버지도 덕이 엿수다. 나 배똥 아래 선그릇이 덕이우다.”

아, 계난 이제 어서 계거든 나강 어서 너 공으로 해서 살넌, 나 주식이 아니엔. 경허난 이젠 나갈 거 아니우파? 이제 시살 적 입던 옷 두술 적 입던 옷 추워 신경. 가마 넘채 신경, 이젠 돌아 사는 종 하나 내여 놓고 해영 보내여 똥, 어명도 나가는 거 보져, 아방도 나가는 거 보져, 이젠 아방도 나가는 거 보젠 허난, 앞문전에 눈 걸령 그만 봉사가 되어봤당, 어명도 나가는 거 보젠 허여 가는 재 문전에 뭇 눈 걸령 봉사가 되여. 이제 큰성은 아고 죽은아시 나가는 거 보젠 쇠거름 우테 오짝하게 올라서명 보젠 허난 용달버섯 되영 소룩하게 골라앉아불고, 이젠 또 셋성도 아시 나가는 거 보젠 이젠 화득하게 나오란 보젠 허난 청주뎡이 되영 소룩하게 들어가 불고, 아고 경허난 어명 아방넌 잘 살던 재산도 그만 어서지고 봉사되여뎡, 이제 한때 두때 얻어먹영 살젠허난게, 놉 빌영 먹젠 허난게 아니 재산이 어서질거라. 계난 가문장 아긴 이젠 나가명 종 하나 돌아 그자 가명 가명 보난 바매기에 불이 벌겁게 붙어.

“바매기에 저거 무신 불고?”

영허난

“아이고, 한집님. 이제 한집님 우리 내좃아 되네 어명 가심에 불 붙으는 불 아니우파?”

이젠 가당가당 보난 이제 길이 맥현 길이 어선, 길이 어성 물이 그득해부린. 물이 그득해부난

“아고 어디랑 그을 잡아 질 좃앗 이제 나아가린?”

영행 허다네 아방이 나가명 금봉채 하날 내 주명 가당 가당 질이 없건 이걸로 따리든 질이 난덴 정행 준 거 시난. 물이 그득허난 이젠 그 아방 준 금봉채 딱 하께 서너번 따리난 물이 바짝허난 길이 날 거 아니라. 금봉채 딱 놓 이젠 가당 가당 보난 마쿠뎡이 하나미 글강글 강 째서.

“어딜로 가민 사람 사는 인간을 봐 집니까?”

“아이고, 춤, 엿쳐넉 꿈사리가 굿터니마는 저런 걸 들리기 때문에 오르니만 파젠.”

또 흐쓸 더 가당 보난 또 글강글강 파는 사람이 이서.

“아이고, 어덜루 가민 사람 사는 인간을 가집니까?”

그것도 그거라,

“아고 엿쳐넉 꿈사리가 굿터니만 저런 걸 굴려 노니 마오르니만 파젠.”

아이고 이젠 또 어평허영 좋으엔 어덜로 가민 좋으엔. 그자 그리저리 가당 보난 또 이젠 글강글강 허는 사람이 이서.

“아이고 어덜로 가민 사람 사는 인간을 가집니까?”

“야, 요 재 넘고 저 재 넘영 가 봅써. 저 쫓폴락한 비슴이 초막 이제 외지등에 청저집(청기

와집) 닳은 집 시우다. 그리 좃앙 강 봄써.”

“아이고, 고맙수다.”

해여동 이젠 이 재 넘곡 저 재 넘엉 강 보난 비습이 초막이 이서.

“아이고, 할마님께 이제 집이나 흐꿈 빌립써.”

“에에 못허크라, 우리 큰마통이 등글어오민, 어, 나그네 머칠 때 어신디 나그네 머쳤겐 허민 못헤여.”

“게건 못등이나 빌립써.”

“그럼 못등이나 거기 아쟝당 가.”

이젠 게난 못등에 아쟝당 흐솔⁷⁷⁾ 시난 울크롱 울크롱 등글어 오는 소리가 난,

“할마님, 저거 무슨 소리짜?”

“우리 큰마통이 등글어 오는 소리여.”

아이고 큰마통이 들어 오난 참 욕을 허여,

“아니, 어느 거 나 궁둥이 좁지고 녀으 궁둥이 좁질거랑.”

뭐 셋마통이도 오난 쿠롱쿠롱 등글어,

“저건 무신 소리짜?”

“건 우리 셋마통이 등글어 오는 소리여.”

뭐 셋마통이도 오난 그거라.

“아니 어느 집이 차마 나그네 머치려던 느 궁둥이 나 궁둥이 좁지젠 나그네 머칩디젠.”

영허난, 또 흐솔 시난 울크롱 울크롱 등글어 오는 소리.

“저건 무신 소리짜.”

“저건 우리 족은마통이 등글어 오는 소리.”

족은마통이 오란,

“아야야야 이젠 나그네 이제 못등만 빌립써 어떻습써 해영 홀 수 어시 저디 앓음생 했져.”

“아이고, 어머니 춤. 나민 나그네 들민 주인 아니짜? 잘 빌려 내어수다.”

이젠 큰마통이도 마를 구워 먹고 셋마통이도 마를 구워 먹고 마 구워네 야배긴 나그넬 주곡, 이제 가운뎃 또막은 어멍 아방 안네곡, 봉편인 또 지가 먹고 셋마통이도 마를 구민 야배긴 나그넬 주곡, 가운뎃 또막은 어멍 아방 안네곡, 봉편인 지 먹고 족은마통인 마를 구워 갈라 주는 거 보난, 족은마통인 가운뎃 또막은 꺾언 이제 어멍 아방 먹읍센 주곡, 야배긴 꺾영 지가 먹고, 봉편인 나그네가라 먹으랜 주어. 경허난 요건 참 사람이 될 거로구나 해영, 이젠

77) 잠깐

밥인 그 마 구왕 먹어 놓고,

"아이고, 술이나 흐끔 빌립써, 식사나 해영 가져."

"에 저디 강 흐술 빌영 술이나⁷⁸⁾ 해영 먹어."

술은 강 보난 뒤 그자 마콩밥만 행 먹어나부난, 뭐 마채만 그자 스뫓 버대기 누왕 밥힐 나 위 서. 뒷밭디 강 상수배기 앞밭디 강 삼수배기 거려당 어섯비슷 단장해 똥. 이젠 뭐 존등이 쏠아정 잣당 존등이 쏠 셋어 놓고 도염시방 출리고 해영, 이젠 어멍 아방넨 들러당 놓 먹고, 이젠 죽은아덜신던 들러가난 선인장만씩 비에기만씩 얼망걸망.

"드냐?"

"무사, 둘주 굿어? 성 이레 뇌불민 그차 먹주."

손 내미난 한 숟가락씩 착착 손드래 그차 놓난 이레 한 착 저래 한 착 갈라 먹언.

"거 맛이 춤 좋은 거여."

"뭐 좋주 굿어 무사? 뭐 줄 때 먹주."

그젠 이젠 밤엔 돈 할망 하르방 줌자불고 허난 죽은마통이⁷⁹⁾ 그라 이젠 물 데왕⁷⁹⁾ 저 물 데 와네 술디 물 퍼낭 데왕 나오라그네 모옥행 들어강 누우렌, 이젠 물 데왕 이젠 그 죽은마통이 그라 모옥허랜 해영 목욕시켜네, 죽은마통이 늙는 방에 강 곱이 누웠주. 뒷날 아치엔 붉으나 네,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 저 성 파난 마쿠댕이들을 그리칩서."

"경허주."

성 파난 마쿠댕이덜은 뭐 큰성 파난 마쿠댕이영 셋성 파난 마쿠댕이영 강 그르칭 보난 뒤 그자 물개똥만 수북.

"이제랑 저 도련님 파난 마쿠댕이나 그르칩서."

도련님 마쿠댕일 강 파난딜 강 그르치는 걸 보난 압채하고 수채만 이셔. 이젠 압채 풀리고 수채 던그고 해영 뭐 그래 드러누왕 줌을 자당 보난 그자 왕강성강 풍경덜 이신 집이 와라차 라 그만 일어난,

"어느 향에 물질어 늙네까? 어느 술디 밥을 험네까? 뭐 어드레 마당을 썰어 늙니까?"

원 종 한집이 그만 원 일시로 나오랑 그자 바글바글. 아이고, 요런 시상 줌 자당 보난 좋은 집이 나지난. 그자 종 하니 스뫓 이거 험니까, 저것 험네까, 허멍 들어강 보난 이젠 그자 만고대풍년⁸⁰⁾으로 그 낭자들 이젠 살아, 막 살다네 하도 호강을 불런 살아지난, 이젠 읍써 서방

78) '밥이나'라고 해야 할 것을 잘못 말하였다.

79) 물 덥혀서

그라,

“계와시 잔치나 우리 허여 보게.”

“어! 경허게, 이만 살아진디 우리 뭐 계와시 잔치 계와시 잔칠 허젠.”

될 일 열나흘날을 계와시 잔칠 허나네, 그자 춤 열 나흘차 마주막 날차사 어멍 아방이 뭉
둥이덜 끄시멍 줄줄허게 들어왕. 마주막날꺼장 손입이 끌르다네 그 자 끌렁 돈 끌러가는다,
그 말자 온 손입덜 밥을 놔렌 행 그 할아방네덜 얻어먹젠 그래 강 오뚝허게 아잔,

“저 할아방덜랑 주지 말라근 저 사람만 맥영 보내.”

아, 그 손님만 맥영 보내난 그 할망 할아방덜은 밥을 쥐사주. 이제 또 요펜이 오랑 이제
그 다른 손입이 또 오랑 얻어먹을 손입이 오랑 앓으민 그 손입은 강 주곡 또 그 할아방덜은
그 즈끗디 강 아자도 아니 주거든. 하이고, 이젠 막 어둡누난,

“아이고 이레 강 아장봐도 밥 한 직⁸⁰⁾ 안주고, 저레 강 아자봐도 밥 한 직 아니주고”

“이제랑 우리도 가주.”

영허난 그젠 돌이,

“그래 아줍쎄. 밥 안네져.”

이젠 일어상 나가젠 허난 아장 밥을 먹을 거 아니짜. 먹영 일어상 가젠 허난

“아이고, 하르방네 밥도 안네고 옛날 살아난 역사나 그라동 감쎄. 옛날 어멍행 살아납니
까?”

“아이고, 곧도 말고 이레도 밥쎄. 우리도 옛날 살 적엔 하도 유가 호복 호강허게 살앙 이
제 ‘숫장애기 나고 오라, 네 말 들어보져’ 숫장애기 나오랑 ‘너는 누게 덕에 사느냐?’ 허난 ‘어
머님도 덕이우다. 아버지도 덕이우다’ 헤영 ‘네 방으로 들어가라’ 헤 똥, 죽은말아기 마지막
똥은 나오란 들으난 ‘나 배똥 아래 선그릇이 덕이우덴 행, 어멍도 덕 어수다. 아방도 덕 어수
다’ 해부난 그만 그 딸 내쫓아부난 내쫓아분 날부터 우린 눈봉사 영 되영 농그리멍 영 어둑
어부런 허곡, 큰똥애기도, 숫장애기도 용달버섯 되영 그만 수록허게 골라이작, 은장애기도 청
주넝이 되영 수록허게 골라이작, 어느 누게사 밥...⁸¹⁾”

15. 허웅애기⁸²⁾

제 보 자 : 부의함(여 81)

80) 술

81) 부모가 눈뜯다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녹음이 중단되었다.

82) 역시 본풀이를 선풍화한 것이다.

조사일자 : 1992년 7월 24일 14:50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1리 제보자의 집

옛날 허웅애기가 얼굴 좋다 허웅애기, 소리좋다 허웅애기, 춤 잘 춘다 허웅애기, 저승에서 두려 가켄 해신디 저승에서도 어영 춤사 추켄 해신지, 소리라도 허랜 해신지. 이제 드라가부 난 애기들도 먼 어린 거 싣고, 각시도 어린 각시 싣고 부모들도 싣고 헌디 얼른 강 올 건강 싶영 강 오랜 허당 보난 가난 춤도 추라 뭐 소리도 허라 저승서도 허난 그것도 저것도 다 해 보난 이젠 난 어린 애기도 때어뎡 왔수다. 부모들도 때어뎡 왔수다. 가긴 부모도 보고 애기도 보고 인간에 나가사 허쿠다 허난 경허민 손바닥에 춤을 딱 뺨아냥 이 춤이 다 모르기 전의 이승에 강 애기도 보고 부피 뎡 오랜 헌난 이승을 나오난 다시 강 안 오카부덴 어멍네도 가지말라, 애기들도 가지 맵쎄, 신랑도 가지말라 허난 계민 아니가켄. 계민 곧 올 시간이 되난 돌려 온데, 허난. 계민 요 독 소꿉의 곱아 불렌 이시난, 차사는 오난 찾당보난 독 속에 허웅애기가 들어 앉앙 이시난 아방네영 주식이영 이번에는 못 잡네다, 못 잡네다 허난, 이제 차사는, “혼을 가질테냐 몸체를 가질테냐?”

물으난 이승사람이사 누시 알아져? 혼이 무신 계멍 몸체가 무신 계멍 몸만 아삼시은 이제 살아 질 길로 알았주. 몸체 아스쿠덴 허난, 돌래든 차사는 혼을 뎡 가부난 허웅애기는 오꽃 죽어븐 거라. 독 이제 열영.

“혼져 나오라. 차사 가부러져.”

해도 대답이 이서? 종종 독을 열영보난, 파리만 ‘왕 - .’

“죽어 부러구나.”

허연. 허웅애기 때문에 이승과 저승이 더 급갈랐덴 허주게. 이제 사름이 귀신과 생인을 온 다간다허당 허웅애기 때문에 저승과 이승이 백지 한 장으로 차이가 나난 생사름은 귀신을 보지 못하고 귀신은 생사름을 놀아 뎡기멍 본덴 허주게. 옛날엔 돌도 말을 한다, 낭도 말을 한 다행 다 해나신디, 허웅애기 때문에 다 말모르기⁸³⁾가 되어 부러주.

16. 원강암이⁸⁴⁾

제 보 자 : 부의함(여 81)

조사일자 : 1992년 7월 25일 16:55

83) 병어리

84) ‘이공본풀이’를 선회화한 것이다.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1리 재보자의 집

어명 아방네가 아기가 어서난 중이 절간에 강 축 드리민, 절간에 강 공 드리민 아기 있넨 허난... 옛날 김진국 원진국 아기가 어서났주. 김진국 원진국이 절간으로 강 공을 드리난 김진국은 아들을 탄생시켜주고 원진국은 딸을 탄생시켜줬주게. 계난 오명 허는 말이 우리 아기가 서그녕 아무 사름이라도 딸 낳고 아들 나지민 구덕 혼사를 허영 살겐. 계난 축 드린 사름 딸이 딸 낳고 아들 나난 열 다섯 시오새가 되영 낫살이 먹어가난, 남자 아진 집인 여자 아진 집의강 어명 아방네 그라 새각시 구협센 안허여? 딸난 집인 부재집이주. 뭐 구덕 혼사 허켄 의논을 허영 그 얘기덜 낳주마는, 딸 집의신 아들집이 가난허고 돈 엇뎠 허명 아이 듣주게. 경 허난 이젠 아덜냥으로

“어머님네 우리 낳을 때 그 큰 말이 어수짜?”

허난,

“무사 어시니? 느네 딸 낳고 아덜 나지민 우리 구덕 혼사 허게 영 해뎠 우리 돈이 어서지고 그던 돈이 하난 아이 들으켄 햐져.”

“고만 봐들서. 계건 나냥으로 강보져.”

새서방냥으로 강 어떻게 그라신디, 어서 장개들랜 허연. 계연 그디 장개 들었주. 시집도 오고 장개도 가고 헌디, 이젠 오난 각신 아길 벨 거 아니라. 아기 배영 날 때가 되난, 저승서 쫓생관 쫓생이로 신랑을 오랜 편지가 오랏주.

“아이고 계민 나도 헛디 가쿠다. 나만 떨어정 어떻 삼니까?”

허난 하루 해정 걸음으로 갈 수가 서? 해는 그만 움막 기어 들어붙고 의지할 데도 없고, 발은 붕물고, 아기 배여 노난 걸진 못허고 허난, 어욱 혼 풀기 시난 그 속굽에 들어 앉앙 붉 거든 나상 또 건주. 이젠 닭이 고고요 허난,

“아이고 서방님 서방님 저건 어디 독이우짜?”

“재인들어 재인장이여, 말인들어 말인장 집 독이주.”

“아이고 경허거든에 날 그디 돌아뉘동 잡서. 나 암만이라도 걸영가지 못허쿠다.”

허난 이젠 재인들어 재인장집 말인들어 말인장집의 간,

“종이나 삼서.”

“어떻헌 종이우짜?”

“전대유전 만대유전 내려오는 종이우다. 삼서.”

이젠,

“큰똥애기 나강 보라.”

허난,

“아이고 저 종 사지맘서. 집 망혈 종이우다.”

셋똥애기 나강봐도

“아이고 저 종 사지 맘서. 집 망혈 종이우다.”

“죽은똥애기 나강 보라.”

죽은똥애기 나강 보난,

“아이고 이만허민 그자 쓸만허고 살만허우다. 삼서.”

계난 이제 죽은똥애기 말 들영 종을 샀주. 서방은 각시 풀이똥 가젠 돈을 받는다, 어멍은 열만이 받고 아덜은 열만이 받으꾸재 허난, 어멍이랑은 선냥만 주고 배 속읍에 아긴 백냥을 도랜. 이젠 경허여 된 이 사람 식사나 허영 링 맥영 보내랜. 들여온 건 보난 원강남이(서방) 밥상은 두운칠반에 쏘 씻어낸 밥허영 오금 어시 올려다 놓고 각시한틴 식은 밥 혼 병뎡이를 아저당 이거 먹으랜 쥘. 이젠 그 원강남이 허는 말이,

“이디 풍속은 경허는디 몰라도 우리 풍속은 영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두갓 상은 맛상 출령 혼 상애 먹으랜 허는 풍속이우다.”

이젠 식은 밥 가져다 똥 각시도 같이 밥상 반앙 먹으랜 상을 출려오난, 서방은 혼저가젠 허난, 그 밥을 먹고 각신 비새우듯 눈물만 솟아정. 그 밥 혼 숟가락 거러먹을 새가⁸⁵⁾ 서, 밥을 아저다 봐도 못 먹언. 서방 갈 시간이 바빠노난. 이젠 가젠허난,

“아이고 이 배 속읍애 애기 나민 무시거엔 이름 지읍니까?”

아덜랑 낱거든에 한라봉으로 짓고 똥랑 낱거든(×××)로 지으랜.

“이젠 경해도 본장이나 쥐동 가사주 그냥 가민 됩니까?”

이젠 용얼래기 아정갓당 용얼래기 혼착 꺾어주고 춤실 혼 쥘 쥐똥 간. 그거 이젠 주맹기⁸⁶⁾ 답안 그자 어멍은 어느 때껴장이라도 그 아기 크도록 봐 뒹주. 어멍은 그디 니랑⁸⁷⁾ 종살이 허멍 살겐허난 하도 월강남이 각시가 얼굴이 고와노난, 종산놈의 아들은 그날 즈냐,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허주.

“아이고 이디 풍속은 어멍사 허는디 우리 풍속은 영 아닙니다. 뎨 애기가 나건 저 마당애 어러더러 뎡겨가사 문을 여는 법이우다.”

85) 사이가

86) 주머니에

87) 늘

“에 개진 혼번 속주.”

그냥 속앙 지네 사는 디 돌아갔주. 아기가 난 어러더러 물타명 땡겨가난 또로 오랑,

“문을 열라. 열라.”

허연, ‘아이고 이번은 어떤 말을 허영 이 사름을 속이코’ 허단,

“이디 풍속은 어떻 허는지 몰라도 우리 풍속은 영 아닙니다. 이 얘기가 용장일령 어러식식 허여가사 문을 여는 법이우다.”

“에 개진 두번 속져.”

이젠 속앙 돌아갔주. 아기가 열 다섯이 되영 용장일령 어러식식허명 밧을 갈래 땡겨가난, ‘아이고 이번은 오랑 문 열렌허든 무신 폐막을 허영 조리. 이젠 허여볼 수 어시 안부인신디 강 토탈허여사주. 아이 7랑은 아이되켜.’ 안부인신디 강,

“이만저만허영 도련님은 문만 열라 문만 열라 허난 이 폐막 저 폐막허명 아이 열엇당 아기가 열 다섯이 되난 용장 정 밧을 갈래 가난 이번은 오랑 문 열렌 허민 무시거엔 대답을 허민 쫄니까?”

다시랑 문 열렌 허건 아이고 도독놈 들어오랏젠 야단을 허랜. 개난 세번째 문 열렌 해가난 이거 어떤 도독놈이 오랏젠 난리춤을 허연. 큰 각시(안부인)도 일어난다, 딸도 일어난다, 와당탕 와당탕 허여노난, 종년 7라 말이나 글아져? 이젠 뒷날은 종년 그르덴,

“뒷밭디 작지 걸라. 앞밭디 벌통걸라. 종놈을 불러들이라.”

허명 막 죽이젠 담도리를 허였주. 경허난 딸덜 허는 말이,

“드랑살던 종을 죽여볼민 집안 어지러지고 허난 경 말앙 벌역을 시킵서. 어명은 낮에 맹쥐(명주) 쉰 동을 짜랜 허고 밤에랑 맹쥐 쉰 꼬리를 감으랜 시킵서. 아덜이랑 저 산에 물이영 쇠 영 널어진게 흐루에 강 좃고 낭 백 바리를 허고 그 백바리 이젠 그 물에다 시끄고 집의 다 물양오랑 문 부렁 데미랜 허곡 경 시킵서.”

“에 개민 경허주.”

이젠 어멍허고 아덜신디 그 벌역을 시켰주. 경허난 이젠 홀 수 어시 어멍도 흐루 맹쥐 쉰 동을 짜사 살아질 거, 밤의 맹쥐 쉰 꼬릴 감아서 살아나질 거. 아덜도 또 그 시킨 걸 해사 살아질 거. 이젠 어멍은 맹쥐 쉰 동을 죽으라고 짜난 조라왕 허질 못허연. 눈 굵앙 영 속속허게 자난 그자 혼준 영 자당 보난 뉘 선녀들이 내려 오랑 맹쥐 쉰 동을 확 짠 내어놔.

“이젠 오늘은 살아질로구나.”

밤임 이제 이 맹쥐 쉰 꼬릴 어멍 감아서 내 목숨을 살리린 허명 혼 꼬릴 영 감당 그만 조라와. 자당보민 이젠 또 선녀들이 내려와 그 맹쥐 쉰 꼬리를 확 감아부런.

“아이고 개민 이 즈낙도 살아질로구나.”

아덜도 쇠 백시 물 백시 그 수정에 낭 문 그치고 시꺼오고 데미랜 벌역을 시켜노난 아덜도 그자 물 흐나 츠지민 물 백시 다 츠자지고, 쇠 흐나 츠지민 쇠 백시도 문 츠자전. 낭을 간 끊으는디 낭 흐나 끊으면, 그자 그 물 수정 그 쇠 수정에 문딱 그 낭이 끊어진. 이제랑 이걸 어떻 다 시끄리 허멍 쇠 흐나에 시끄민 그자 쇠 백시 물 백시에 문딱 시꺼전. 아이고 살아질 로구나 허영 집의 돌아오랑 낭 흔 바릴 부령 놔두민 그 백 바리가 문 부러전. 흔 바릴 강 데미난 그 바리가 문딱 데며져부런. 경허영 그자저자 허멍 살아진 거라. 흐르는 아덜그라 저 산에 강 비루헌 물 흐나 츠자당 쯤씨 흔 섬지길 그냥 같고 뿌리고 다 허랜. 어떻 그걸 헐 수가 서? 게도 이제 비루헌 물 츠지래 가민 어가라⁸⁸⁾ 츠자져? 그걸 아정오랑 갈젠허민 조라왕 갈 아져? 쯤 자당 보민 그 밧을 문딱 같아지는 거라. 쯤씨 흔 섬지기 시꺼간 걸 흐끔 뿌리민 문 뿌려져. 이제 다 허영 가난 그 뿌린 쯤씨를 문 쯤영 오랜 시꺼지 않여? 이제 또 강 어떻 쯤으린 허당 보민 흐나 쯤으면 문딱 쯤어전. 이제 아정 강 화평행 살아질로구나 허멍 가난, 그 흔 방울 떨어진 걸 쯤영오랜 않여? 그젠 울멍들멍 어디 강 쯤씨 흔방울 쯤어오린 밧되 강보난 거위지⁸⁹⁾ 쯤씨 흔 방울 물영 불불불불 기어오람서. 이제 그 쯤씨 흔 방울을 빼앗아딘, 아이고 이 거위지야, 이 흔 방울 무사 물어강 그거 쯤어오는 벌역을 허게 해시닌 허리를 문들랙이 불라부난, 허리가 장근 물 되어부렀젠 허주.

아덜이 흐르는 비가 촉촉하게 오난,

“어머니!”

“무사?”

“저 모멸 장막이나 강 털어봅서, 있거드네 거러당 범벅이나 험서. 무쟁이 닷말에치랑 소금 닷되를 낵 범벅을 허고 그루 닷되에치랑 소금 흔 방울만 낵 범벅을 험서.”

“아이고 애야, 어디 모멸이 있느니?”

“쨌으로 장제집의 모멸 장막 털영 모멸 댕되 어십니까?”

간 터난 모멸 댕말은 나완. 그거 이제 그란 무쟁이 닷말에친 소금 닷되를 낵 범벅을 허고 그루 닷되에친 소금 흔방울을 낵 범벅을 허고 허연.

“어머니 저 콩장막이나 강 털어봅서.”

콩장막 강 터난 콩이 시난,

“이제랑 솔되 낵 볶읍서.”

볶아가난,

88) 열른

89) 개비가

“어머니!”

“무사?”

“장제집의서 하르방이 불립수다. 가봅서.”

이젠 어명을 그디 보내된 짓는 낭죽을 곱저블 거⁹⁰⁾ 아니라?

“아이고 어머니, 혼저 오랑 콩 짓읍서, 콩 캄수다.”

돌아오랑 보난,

“아이고 낭죽 어디 가시니?”

“모르쿠다. 손으로라도 혼저 짓읍서게.”

손으로 짓어가난 꼭 어명손 데어분 되⁹¹⁾ 강,

“어머니 바른 말 허여 줍서.”

“아이고 무신 바른 말고?”

“어느 거 우리 아방이우짜?”

“저 쟈드리 쟈 장계가 느네 아방 아니가?”

“우리 아방 곁오민 무사 우리한티 그 벌역을 시킵니깁? 바른 말 아너쿠깁?”

이젠 데어불도록 막 뭉썸,

“바른 말 허여 줍서.”

허난,

“아이고 이 손 봐보라 곁아주켜. 느네 아방은 느 뻐 때에 이디 오랑 나 가지 못 허켄 허난
종으로 풀아된 꽃생관 꽃생이로 들어가시네.”

“개난 아버지 본장은 어서니수깁?”

“본장은 있져.”

“이래 줍서.”

이젠 용얼래기 혼착에 춤실 혼주에.

“이거 느네 아방 본장이여.”

허명 주난 이제 그거 주머니에 담아놓고 무쟁이 범벅지고 그루 범벅지고 허영 나가명,

“어머니, 아들 어디 가난 물어오민 모르켄만 험서.”

허여땡 '갔주. 아니 훌씨 아들이 어서부난 아들 어디가시넨 어명신디 막 들으난 모르켄만
허난,

90) 숨겨 버릴 것

91) 뜨거운 데

“천리동이 천리가라. 만리동이 만리가라.”

허명 무슨 개를 풀영 한라봉이 추자오랜 허였주. 개들이 추자 오라가난 한라봉인 무쟁이 범벅 혼 병대이씩 들러 대끼난 갠 그자 먹영 물 기루왕 물래래 돈고, 한라봉이는 거자 꽃밭되 들어갔주게. 꽃밭되 들어가 큰 낭 시난 착 치도랑 우의강 안지난 개들은 낭을 못 그창허연. 궁녀 시녀들이 낭우의 아장보난 습통이 시난에 물동이를 이영 그 물을 뜨래완. 개난 한라봉인 춤실로 피를 내왕 피 잔물을 물동이래 들이쳐 부렸주. 피잔 물 들어간 물을 꽃밭되 강 주난 꽃이 죽어볼 거 아니라. 이젠 꽃생인 어떤 물을 쥐난 꽃이 다 죽업시넨 허난 시녀들은 어떤 총각이 높은 낭에 앉아두서 물동이래 뿔사 들이쳐 부러신디사 물주난 영 햐수덴. 게저든에 그 총각신되 강 귀신이나 생인이나 물어방 오랜. 개난,

“귀신이나 생인이나?”

물으난,

“귀신사 이디 올 수가 잇수광? 생인이우다.”

허난 생인이 어뎡 올 수가 시닌 들으난, 그재사 월강냄이가 나올 거 아니라. 내려 오난 월강냄이 손가락 빠지고 한라봉이 손가락 빠정 피를 잔 물동이래 들이치난 혼덩이로 탁 어우러 전 혼 피가 되어부난, 이젠 월강냄이가,

“나 아기로구나.”

허연 손목 부여잡앙 울었주. 울어난 월강냄이가,

“너 울적의 발등좁은 물 엇디냐?”

허난,

“이십디다.”

“그건 너네 어뎡 초대받은 눈물이다. 잔등 친 물 엇디냐?”

허난,

“이십디다.”

“그건 대금받은 눈물이다.”

경 그라된 아방이 꽃밭되 강 사름 살리는 꽃을 문 꺾언 주맹기에 문 담이뎡 그 살아난 주인 죽어볼 꽃을 꺾어줬주게. 강 처음 들어가면 죽은뎡을 죽은방에 들어가겐 해뎡 멸망꽃을 태 우랜.

이젠 짐의 들어가가난 저 늑 죽일 늑 살릴 늑 오랍젠 허명 죽이젠 허난,

“혼 말 일러뎡 죽어도 죽으쿠다.”

허명 웃음꽃을 태우민 황천대소허명 가가가 웃어진덴. 웃음꽃은 앗앙 태우난 그자 황천대

소허멍⁹²⁾ 웃어전. 그 끝엔 죽은똥을 가냘해딩 싸움꼳 앓앙 태우난 죽자살자 싸우난 또 그 끝엔 멸망꼳을 태우난 맨작 죽어부린. 죽은똥은 종신디,

“아이고 오라버님 살려줍서.”

허난,

“우리 어멍 죽인 디 어디냐? 그르쳐내라.”

허난,

“쌔동방 아래 목걸렁 죽여부려수다.”

이젠 그디 가서 억만 창창하게 난 어욱을 복복 돈 비어딘 보난 어멍은 팡만 솔그랑이 시난, 그거 맨딱 죽영 살 오르는 꼳을 그 배 우의래 덮으난 살이 그자 오르고, 웃음꼳을 앓앙 태우난,

“아이고 설운에기야, 나 너무 자졌져.”

허멍 와들랑 깨어난. 그젠 아덜은 어멍이 누워난 땅을 그냥 놔두라 허멍 그 흙 모다방 큰 고리 동반, 죽은 고리동반 맨들야 놓고 이제 어머님이랑 살려놔시난 큰곳 죽은곳 시경 고리 동반 조배기 떡 해놓곡허영 아덜꼳 돌꼳 태와 주멍 얻어먹음센 그랏주. 게난 아덜도 그자 굶 허는 것에 들영 얻어먹고 어멍도 굶 허는디 꼳 태와 칭 얻어 먹곡 했던 허주게…….

17. 스만이⁹³⁾

제 보 자 : 부의환(여 81)

조사일자 : 1992년 7월 25일 21:27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1리 제보자의 집

옛날 스만이가 막 강곤하게 살아났주게. 동냥이나 허듯 살아갈 정도로. 매날 낭을 허영 풀민 그날 수입뻐끼 못허여. 경허난 비온 날 먹을 건 어실거난 비온날 먹을 거꺼장 낭을 허영 데미주게. 경허민 비온 날 먹을 거꺼장 굴루이 되는 날이민 그만 그거 풀래 강 보민 나라에서 새금이연허멍 확 걸려가불민 혼가지도 어서. 아이고 이 노릇도 못허영 살켤 비온 날은 굶어죽 음배긴 혈 수가 엇덴. 이젠 스만이 각시가 머리가 좋아서 각신 머리를 써서 돈 몇냥을 받아왔 단 신랑그라,

92) 仰天大笑하면서

93) '사만이본풀이'를 설화화한 것이다.

“이 돈 어정 강 시장에 강 쓸 받아옴서, 먹계.”

허난, 신랑은 그 돈 어정 시장에 갔주. 시장에 가난 서방은 그 돈으로 술집의 강 쓸 먹고 안주집의 강 안주 먹고 허난 보난 돈은 두냥 반이 남았주. 이 돈으로 뿔을 행 가코 허연, 이젠 시장에 땡기단 보난 총장시가 서.

“이건 뿔을 허는 겨우파?”

“이거 아정가민 꿩도 마청 먹고 노루도 마청 먹고 이거 들렁 땡기민 어려운 게 어수다.”

계민 요거라도 상 가보카허연 두냥 반을 톱 털영 그 총을 샀주. 집의 아정 오란 보난 각신 쓸 받아오랑 주낙허영 먹어지카부덴 현 거 아니? 계난 쓸은 아이 반양 오고 제우⁹⁴) 총몽땡이 허날 아정오라서.

“이거 무시거 허젠 사웁디강?”

“장에 가난 총 푸는 사람이 이걸 아정가민 꿩도 마쳐당 먹어지고, 노루도 마쳐당 먹어지고 허민 잘 살 수가 있덴 허난, 상 오랐져.”

그젠 각시가 뒷집의 간 장 꾸고 앞집의 강 쓸 꾸고 허여당 받음 허영 신랑을 안네었주. 스 만인 그젠 그거 먹고 총몽땡이 아지고 허영 나갔주. 허루종일 땡겨도 생이도 혼 마리 못 보곡 가마귀도 혼 마리 못 보는 거라. 이젠 안개가 담썩 끼난 집음 못 훑아 올 거 아니라? 계난 담 옆에 가랑비⁹⁵) 맞으멍 앉았주. 겹눈은 금고 속눈은 터진 거라. 좁은 안들고, 계난 겹눈은 금 앙 영 시민,

“스만아 스만아, 날 두라당 초허루 보름을 허여주민 너 살 도량을 허여주마.”

원 눈 땡 보민 아무 것도 어서.

“거 이상하다.”

또시 눈 감으민,

“나가 여기 오지 앓음 건디 몹셀 늬의 총끝에 오랑 여기 시난 날 도라당 잘 허여주민 너 살 도량을 허여주마.”

눈땡 보민 편편. 아무 것도 엇곡 엇곡. 이젠 볏앙 보난 맹겅냥 주꿏디 앉아져서.

“에 이늬의 맹겅냥 뿔이 이서두서 영 허염신고?”

허영, 맹겅냥을 복복 비단 보난 백년 대구리가 허나 서. 얽어져지난 어욱 혼 포기 비영 백 년 대구리를 썩 두러매영 오랐주. 오당 주몽냥 주꿏디에 뇌땡 집의 들어 오랐주. 아무것도 못 허영 오고랜 허난 각신 식사를 허여당 먹음셴 영 주난,

94) 겨우

95) 가랑비

“아이고 스만이 스만이 나 여기 오라도 말 안허난 나 살아난 굽으로 돌아다 도라, 돌아다 도라.”

“이거 무슨 소리우짜?”

“아, 저, 백년 대구리 허나 봉간 오라신게 치매입영 가그냉 우리 대에 태운 조상이건 치매 래 등글어오민 우리가 잘 대우를 허쿠넨 곱아봐.”

각신 곧는냥 강 말허난 백년 대구리가 치매에 등글어 오란. 그 치매에 강 싸아정 오란 안고팡으로 간 선반 우에 백년 대구리를 모셔다 둠서, 지네 밥 먹어지민 그래 밥 아저당 났당 비와당 먹고, 죽써지민 죽 아저다 났당 느라당 먹곡 허난 뭘 뒷날은 뭘 총매여아전 산에 올라가난 노루여 시슴이여 대여섯씩 팡팡 걸러정 죽는 거라. 그걸 정오랑 각시그라도 풀래가라 이 녀도 돌래간다 허멍 돌아가난 일시로 부자가 되영 그자 삶이 편하게 좋안 경해가난 백년 대구리가 스만이 삼십이 다 되언 맹(맹)이 맥일 거 닳아되언. 차사가 스만이 잠오래 오는 거라. 겨난 하루는 그 백년 대구리가 송시를 부렸주게. 스만이 핑 잠오래 가분 날은 선반 우 의서 뱅뱅 굴렁 떨어지난 스만이 각시가 불습단,

“이 나덜놈의 구신!”

창지그득 잘 먹어지민 송시 부렸젠, 부지깽이 앓양 착착 뜨런 뒷밭되래 들러 대껴 부렸주게. 스만인 그날 양진 대구만 허게 붓고 눈이영 막 부언 질 제우 추장 집일 들어 오랏거든. 각시가,

“아이고 오늘은 백년 대구리가 송시 부려가난 뒷밭되래 대껴부러수다.”

허난,

“아이고 이년아 경허난 내가 오늘 양지도 붓고 질도 못 보고 핑도 생이도 못 잡양 제우 들어 오랏다.”

영 허멍,

“너가 잘못헤지난 너가 치매 입영 백년 대구리신디 강 아이고 그자 잘못허여수다. 이 치매 래 들어옵세. 다시랑 잘 모셔내쿠다 허라.”

각신 그디 강 경허난 백년 대구리 허는 말이,

“너네가 잘못허고 잘헌 일 아무 것도 없넨. 스만이 죽어불민 난 물 혼직도 얻어먹지 못헐 겨난 나가 이녀쿠로 경 허였주. 는 잘못헌 거 없넨.”

“게민 어떻허민 좋옵니젠?”

허난,

“나 곧는냥 들으켄 허민 같껴, 나 곧는냥 아이허켄 허민 난 이디 그냥 시켄.”

“게민 어떻험니젠?”

허난, 스만이 잡으래 차사가 오라시난, 매 깨끗하게 지영그녕 새게 허고 신 새게 삼아놓고 무명 석자 놓고 송락 새게 쪼갯고 상꿀(향을) 피와 농곡, 백보 바깳되강 곱으랜. 곱아듬서 집 의서랑 너 올 동안 대통계 소통계 털어노라고 경해딩, 첫번째 너 잡으래 찾아오는 차사가 배고파 우는 차사, 신 떨어정 맨발로 못 오는 차사, 땀수건 어성 못 오는 차사, 영 오랍시니까 그 차사를 잘 사귀민 어떻게 할는지 모른덴. 이젠 집의선 대통계 소통계 다 털어노왕 첫번째 불러도 대답말고 두번째 불러도 대답말고 세번째랑 그 차사들이 배고팡 못 건디민 이제 그 밥도 먹고정, 그 신도 신고정, 땀수건도 앗구정 영힐 거난 두번 불령 대답말았당, 그 음식을 다 먹영 나살 땀 그 입젤 부른다고 이 음식을 해는 사람이 누게고 누게고 불르걸랑, 세번째 랑 개우리소리만이만 대답을 허라고 경허민 알아볼 도래(도라)가 있넌. 이젠 체시가 오는 걸 곱아두서 들으난 차사들이,

“아이고 원 신이 다 떨어정 신이나 누게 당해주켄 허민, 맹(命)이나 있어주고정허다.”⁹⁶⁾

또 배고픈 차산,

“시장이나 물려주민 어신 맹이나 있어주고정허다.”

땀수건 어신 차산,

“땀수건 당해주는 딴 맹이나 있어주고정허다.”

경그란 혼 두턱을 올라오랜 허난, 춘물내기 건허게 나난,

“밤말은 쥐가 들고 낮말은 새가 듣는덴 허는 디, 이거 아이 굴을 말을 그라진거담다.”

차사들이 올라오란보난 먹음직이 마구 출려와서. 원 이거 먹영조카 말양조카 허단 압만이 라도 배고팡 못건디고, 신 떨어정 신도 엇곡 땀수건도 어성허난 뒤번 입벨 불러도 대답안여난 막 먹겐허멍 먹었주.

“우리 일어날 땀 혼번 더 불러봐야 된다.”

고 누게고 누게고 불르난 세번째 개우리 소리만치 대답을 허여. 이젠 허난 이래 나오민 우리 보켄허난, 나오난 너가 누구넌 허난,

“나가 스만이우다.”

“오, 스만이구나. 우리가 스만이 잡으래 오는 차사여.”

허멍 저승터래 돌리젠 허난,

“아이고 집의 팔십난 어떻게 이수다. 집의강 부모 대허고 자식대허고 허영 잡주.”

허난,

“어서 경해라. 네것 먹고 네말 아이 들느나? 집으로 글라.”

96) 이어 주고 싶다.

오리가난 대통계여 소통계여 월랑탕 월랑탕 허멍, 술도 먹읍서 밥도 먹읍서 떡도 먹읍서 부추기연. 경허난 그 차사들은 그자 먹고정 현낭⁹⁷⁾ 술도 먹어간다 떡도 먹어간다 밥도 먹어간다 허멍 막 먹어노난, 이제랑 저승대래 글랜. 결박허여갈 거 아니라? 경해가난, 아이거 돌아가지 말앙 이 사람을 풀어줍서 풀어줍서 허난,

“뵈으로 인정을 바치겠느냐? 강맹기 닳동 있겠느냐?”

“강맹기 닳동 이수다.”

“물맹기 닳동 있겠는가?”

“물맹기 닳동 이수다.”

“다 바치라.”

다 바치난,

“두 말치 시냐? 두 말치 내어노라. 외말치 있겠느냐? 외말치 내어노라.”

막 내어노난 부족헌 거 시면 도랑가젠허난, 부족헌 거 어서 막 내어노비인. 허난 이거 우리가 혈수 엇덴. 이거 영 받아노민 우리가 체면이 아이웠겐 허는 양 내어노민 이 사람을 도랑갈 수가 엇덴. 이젠 스만이를 스만 삼천년을 살랜 문서를 바뵈 부렸어.

저승을 들어가난 염라대왕은,

“왜 스만이를 아이 잡아왔느냐?”

“아이고 문서를 건어봅서. 스만 삼천년 살랜 현 사람은 이서도 스만이랜 현 사람은 어수다.”

이젠 염라대왕은 문서를 훑어간다 훑어온다 허여도, 스만이랜 현 사람은 어서. 아 계난 혈수 어서 염라대왕도 겹주게. 이젠 스만이라도 스만 삼천년을 살아노니, 스만삼천년을 잡아오랜 허난 잡으래 오란보난 늙은이 되어 부러, 젊은이 되어부러, 몇번 번덕을 허여, 스만이를 잡을 수가 어선, 노시 잡지 못허난, 조왕할망이,

“아이고 요 미옥헌 아이들아 느네 경허영 스만일 잡아지느냐? 저 검은 술을 상 스만이 물물매이는 물통에 가진, 그걸 발강발강 씻업시라. 그젠 알아 볼 도래가 있져.”

이젠 조왕할망 굶는 냥 검은 술을 사당 연못에 강 발강발강 씻업시난, 꼬플락헌 아으새끼가 물탄 물매이래 와두서,

“너네덜 거 허는 거 뭐이냐?”

“우린 검은 술도 이래 오랑 씻으면 진덴허영 지랜 씻업수다.”

“젠장 스만삼천년을 살당봐도 검은 술 씻어 진덴 말은 들어보기도 처음일세.”

겨난 그젠 차사들이 스만인 줄 알앙 결박허여 저승대래 돌린 염라대왕신디 강 요거 스만

97) 먹고 싶은 대로

삼천년을 잡아오라수덴 대령허주. 스만이가 큰 굿허영 디몰아 죽은굿허영 디몰아 허영 저승대
래 돈을 디몰아노니, 저승 곳간이 그득양 염라왕은 그놈 심영 돈 땀겨 불젠 잡아갔젠 허매.

18. 주청비⁹⁸⁾

제 보 자 : 부의함(여 81)

조사일자 : 1992년 7월 25일 21:50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1리 제보자의 집

처음은 주청비라는 처녀가 이서났주게. 부모랑 살곡 허는디, 문왕성의 문도령이(옥황의 사름
인디) 서당에 공부허래 가노랜 노러오란에 그 처녀가 서답허는 디 강 처녀가 하도 곱닥허난에,
“물이나 훗설 떠주라. 목 물란 물이나 얼어 먹영 가져.”

경허여났젠. 서답허는 디 물 떠도랜 허난에, 이젠 낭섰을 꿩영 탁탁 따려된에 물을 낭섰으
로 거려퀸 허난,⁹⁹⁾

“노 얼굴은 곱다미는 무사 물을 따려된 물을 거려칩시?”

허난,

“하이고 모른 말 말서. 먼길 가는 어른, 물에 야개건 건¹⁰⁰⁾ 약도 어십니다. 이제 영 낭섰으
로 물을 따려뒹 거려취사 물을 조록조록 빨아먹영 야개 아이걸 정도로 거려냅수다.”

“경허나?”

허연,

“게난 어디래 가는 길이파?”

“난 서울에 공부허래 감짜.”

“아이고 게거든에 우리 오라버님도 빗 어성 공부허래 못감수다. 우리 오라버님이영 혼디
강 공부협써.”

허난,

“어서 게진 경허라.”

허난, 이젠 젖은 서답은 옷드래 놔가땡 므른 서답은 굵드래 놔가땡¹⁰¹⁾ 개어뇌된 그 처녀가

98) '세경본풀이'를 선회화한 것이다.

99) '나뭇잎으로 물을 떠 주었다.'는 뜻. '세경본풀이'에서는 '물바가지에 나뭇잎을 띄워' 건네주는 것
으로 되어 있다.

100) 채한 것은

101) 젖은 빨래는 위에, 마른 빨래는 아래 놓아 가면서,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것.

집의 갔주. 이젠 어멍 아방 방에 들언,

“우리 벗덜이 서울대래 공부허래 감수다. 나도 혼디 가쿠다.”

허난,

“아이고 지집 아이가 무신 공불 서울꺼장 가명 허느니?”

허난,

“아이고 늬도 우리 같은 지집아이도 공부허래 감수다.”

문왕성의 문도령을 난 여자가 공부허래 감수다 허멍 나도 공부허래 가켄허난,

“여자가 감시민 어서 강 공부허영 오라.”

영영허영 공부허래 갔주게. 그 여자가 공불 3년을 허여도 여자 남자인 쉼 모르게 공부를 했주게. 남자 입성주록¹⁰²⁾ 출령 강 남자광¹⁰³⁾ 공부해부난. 물동일 영 뇌난 춤실 한뻔 영 흘러 난, 우리가 이 춤실을 것저서는¹⁰⁴⁾ 3년 공부헌 게 1년 공부헌 것도 안된덴. 이걸 것지지 안허 도록 줌을 자야 공부가 잘 된덴. 문왕성의 문도령은 조청비가 남자로 출려부난 남자인 줄 알 았주, 거 여자인 줄 알았수과? 경허난 그 춤실 안 것지젠 품작도 안행 줌을 장 공부만 매날 혼 거라. 공부만 매날 허난 문왕성의 문도령은 하늘 옥황서 어멍 아방넨 서서왕의 딸 구허영 결혼허렌 허난, 이젠 편지 아들신디 아무절로 결혼헐 거매 공부 그창 오렌만. 편지가 자주 놀 아가난, 이젠 문왕성의 문도령은 세수허래 나오랑 보난 가마귀 짓 날개에 경 편지 떨어진 걸 보난, 오랑 혼지 장개 가렌 편지가 오란. 그젠 조청비 그라, 나 이젠 공부 문 못해도 부모네가 장개만 가렌 해부난 가사켄 허난. 아유 경허든 나도 혼디 가켄. 경허든 혼디 글랜. 이젠 오당 연못 우에 오난,

“오라 우리 목욕들이나 허영 가게.”

허난, 경허렌. 문왕성의 문도령은 알력통에서¹⁰⁵⁾ 목욕을 허렌 허고, 조청비 얘기켄,

“난 저 옷통에 강 목욕허크매, 놀랑 여기서 목욕허라.”

옷통에서 목욕허멍 낭섰 허나 그창 글광 썩,

“아유! 이 문왕성의 문도령야! 3년 3년 연 3년을 공부해도 여잔 줄 모르는 문왕성의 문도령야!”

글을 썩 담그냥 물내려오는 뉘로 뛰와부려서. 게난 그 낭섰의 글이 문왕성의 문도령 앞으로 올 거 아니라게. 경허난 그걸 건정 내보난, ‘아유! 이 문왕성의 문도령야! 3년 3년 연 3년

102) 옷차림처럼

103) 남자와

104) 건드려서는

105) 아래 쪽 통에서

을 공부해도 여잔 줄 모르는 문왕성의 문도령아! 영헨 글을 썼거든. 하이구, 문왕성의 문도령이 그만 겁이 나고 종예를 바지꼴을 이래 디무랴다 저래 디므랴다 슷 거꾸로 느다¹⁰⁶ 입으멍 그 여자 혼저 쫓아가젠 가지 않을 거광? 그젠 그 올래만 강 상 지들렀주.¹⁰⁷ 그 여자가 어가라¹⁰⁸ 여자 입성을 아정 왕 문도령을 입전. 어명방에 돌아 아정강, 우리 곶이 공부하는 동무우덴, 동창이우덴. 경헨 문왕성의 문도령을 여자로 출런 부모방에 돌아가왔젠 험디다. 잘 오랴젠. 부모들은 배후¹⁰⁹헨 거 아니짜? 곶은 여잔 돌이영 혼방에 이 주낙 자그네 종예 썰고 허영 천천허 부모 집드래 가는 길이란 가랜. 계난 혼방에 강 큼짜이 허영 두갓 노릇 헨 거 아니짜게? 집에 오라놔사 두갓 노릇허연. 갈 때엔 도실꽃인가 하나헨 오단에 문왕성의 문도령이 올라갈 때엔 도실꽃을 구멍에 도실낭 심경 이 도실꽃을 피워가민 늘 보래 다시 오켄. 그건 장개갈 걸로 행 오라간. 계난 새각시 구행 그 도실낭 심경 그 도실꽃이 피므로 문도령을 혼번 시상 풀을 봐져? 못뵈. 그디 사는 종놈은 문왕성의 문도령광 미친처렐 어뎡 알아신고라, 종놈 요라 매일 놀아가난,

“오늘 낭이나 강 해 오라게. 경 매일 놀앙 사라지느냐?”

이젠 종 놈은 낭 허래 갔주. 낭허래 강보난 하이구 문왕성의 문도령은 산에 오랑 역락살이, 준지살이 놀음놀이 문 허멍 허는 짓 구경허단 보난, 낭도 혼 가지 못허고, 영 오랴수덴. 허영 주청비애기씨헨디 곶아부난,

“하이구 문왕성의 문도령이 그기 오랑 경 험서냐?”

날 거기 돌아다도랜 허난,

“경 험주. 돌아가젠 허른 돌아잡주게.”

“이젠 그디 가젠 허른 마놀라님은 물 타사 갈 거 아니짜?”

“게 경 허주게. 나가 물 타사 가주, 걸어가지느냐?”

“물 타젠 허른 술 혼 팽하고 둥 혼 마리 잡아 놓고, 저 미녕¹¹⁰ 석자 꼬차당 물머리 허곡, 영 험사 갑니다.”

“게 그거 어렵느냐게. 그것사 허주게.”

둥 혼 마리 잡아 코서¹¹¹ 지내고, 미녕 석자 그차당 물머리에 즐라매곡 허영

“날 타거든 니깁(이끌어서) 글라게.”

106) 바로

107) 기다렸지.

108) 급방

109) 倍厚. 크게 환대하다는 뜻.

110) 무명

111) 告祀

“경 험서게.”

이젠 똥 흔 마리 잡아 숯양 코서 지내고 한것 복복 먹영,

“이건 종놈이 다 먹는 거우다.”

“게 느만 다 먹으라게. 누게 못 먹게 험샤”

“미녕도 이저 니경 간 사람이 앓는(갓는) 거우다.”

“노가 문 아시라게. 문...”

아, 이젠 안장 지와네(없어서) 그 한집을 태울 때엔 구쟁기 박새기를 안장 속읍에 낳 안장을 지우난, 그 둘은 안장 우의 앉아도 그 속읍의 구쟁기 박새기 담아부난 아파가난 들러킬 거¹¹²⁾ 아니파게. 와들랑 와들랑 들러기난,

“저 거시기 초담(처음) 탐은 내 그르쳐 나사 탐니다. 나 타그네 막 그르쳐 놓거든 한집이 무라 니경 가다그네 물이 쭈글쭈글허진 그제랑 한집이 탐서게.”

“경허진 경허라.”

지 탈 땀 구쟁기 박새길 쏙작 앓앙 데껴땡 안장만 지완 툽 타난 뭐 어떻허여?(아무렇지 않다.) 한집은 흔저 그릅센 허난 물 걷는 냥 죽자 사자 돌았주(달렸지). 애만 먹고 뭐 산에 올라 가난 애씨영 또시 물 탈 생각도 없고 물만 그리완 물만 먹구정 허연, 물 신 디 강(물 있는 데 가서) 물을 세워 노난,

“어유, 애야 먹는 물 어디 신디? 먹는 물이나 그르치라. 난 애쌍 물 기리왕 물 먹켜.”

“여, 요기 가문 먹는 물 이수다.”

물 신 디 강 그르치는 것 보난 그젠 낭들 사랑사랑 물 조쯔디 신 디 강 그르쳤주게.

“저 물을 먹젠 허른 옷 맨작 벗어땡 똥구멍 하늘 우트레 바작 헤그네 먹어사 먹는 물이우 다.”

물 기루왕 허난 그 종놈 곤는 냥 허켄. 옷 맨작 벗영 없어져야 물을 먹는다 종놈이 옷을 나무 우트레 훌훌 앓앙 데껴부난, 물 먹영 일어나 그 옷을 입켄 보난 옷이 어신 거라.

“아이구, 애야. 나 옷 어디 가시니?”

물 우에 그르치멍,

“저저 문왕성의 문도령이 오랑 역락살이, 준지살이 험수게.”

그 옷이 굴메(그림자) 비칭 물이 얼랑얼랑 허난 준지살이 역락살이 험 땀 한집그라 그르난, 어유 그제사 주청비가,

“내가 이놈한테 속아졌구나.”

112) 날뻐 것

허영,

“어유 저 옷 누류와 도라. 저 옷 누류와 도라.”

옷 누류와 주난, 그 옷을 입은난 해가 먼 저불 거 아니짱? 먼디 그 물로 허불어정 텅거부난. 해가 똑꼭 정 집엔 못 오게 돼난. 이젠 그 종놈그라,

“아유 애야 이젠 어둡허난, 정네 먼 디 오라부난 집은 못 좃앗 가꼭 저 낭 휘어자칭 움막이나 메라. 이디나(여기서) 밤살앙 붉거든 별랑 한걸허게 가계.”

“경 험서.”

막 구젠 지꺼정(기빠서) 동드레 서드레 즐라매영 담을 매우난,

“애야 이제냐 살젠허든 얼영 못 살켜. 저 검질허영 이 그냥들(구멍들) 막으라.”

경허난 한줌 비영 그 그냥 꼭 막으든 한집은 흑허게 땡(뻘)에서 불 솔바불곡. 한줌 비영 따시 그 그냥 막노랜 허민 또 막은 그냥 흑 허게 땡 불 솔바불곡. 만날 뵤으려(검질을 배어도) 그 그냥을 막질 못허난 그자 날은 새영 붉아가난 이 놈이 막 부엘 내영 들러키는거라. 그젠

“애야, 이제링 날도 붉아가고, 이래오라. 저 호실 쉬영 가주.”

그젠 텅씩허게 오랑 앓으멍

“경험주.”

이젠 앉아들서

“애씨, 한집네 흘목(손목)이나 심어보져.”

“아유, 애야 나 흘목 심어보는 것보단, 집에 강 날뛰는 토실 쩌 보라. 그게 더 낫나.”

“애씨, 한집네 강알이나 먼지가 붉주.”

“아유, 애야 나 강알 만지금보단 나눴는 요강에 강 오줌을 소롱소롱 누워보라. 그것이 더 좋나.”

아, 경허멍 그래 그랑 애와 저래 그랑 애와 허멍

“애야 나 동무료더래 옹어지라. 나 니나 잡아주마.”

“경험서.”

옹어지난, 흑은(굵은) 닌 내부러 두꼭 좁진 니만 똑똑 잡아가난, 그놈이 정 그락 영 그락허당 좁이 소르르허게 들어부렀주게. 그놈 존등이실때를 따려보난 장도칼이 서. 장도칼이 시난 좁 들때에 완그로누당 장도칼로 쏙 쥘러부난 그만 죽어부런. 죽어부난 그젠 몰그라

“먼 붉으난 너도 마음을 먹고, 나도 마음을 먹으니 집 좃앗 그르라.”

이젠 툇 타아정 사롱사롱 오라가난 산신백관들이 앉아들서 허는 말이,

“절로 오는 처년 놀랑네 놀판나가 탕천헌니 이젠 처엄이라 막걸리 하옥허고 두번째 소지 하옥허영 집에 가라.”

그치년 그말 들영 “그 말 어뎡헌 말이파?”

허난

“너 우로 놀랑네 놀핀네기 탕천하니 이제 집이 가거든 막걸리 하옥하고 두번첸 소지 하옥
허영 들어 가지주. 경 안허른 너가 살지 못헌다.”

경허난 집에 강 막걸리 하옥하고 두번첸 소지 하옥허영 들어간 어뎡. 아방그라

“종 허는 행실머리가 꽤쌌스리완 죽여뎡 오라수다.”

“아구 이년, 저년, 가련하고 가련비야, 주청하고 주청비야. 나 생전 부러떡첸 허는 종을 무
사 죽연디?”

똥이고 아기고 필요없다고 너 어서 발 돌아 가는낭 나가랜. 종 죽여부렀던 내 쫓아부난,

“아이구 경허른 어딜강 조으난?”

그만 신작로에 강 걸러질 거 아니파. 신작로에 강 머리 탁 허부치고 걸러져시난 술장시허
는 할망은 들런

“아이구, 어떡허난 영 곤곤(고운) 처녀가 신작로에 영 누원딘?”

“난 갈테도 올테도 어신 사람이난 그자 영 아무디나 자빠져수다.”

“경허거든, 나 똥도 어신 사람이난 나 수양똥로나 들어왕 살타?”

“경허쿠다.”

경헨 술장시 할망신디 딸로 들어강 그 할망이영 혼디 강 사난 술장실 헤가난 사람들이 허
영 부끝 것 아니파. 하영 부끄난,

“어머님, 어머님, 이 술장시 설러똥 강맹질, 물맹질클을 사다줍서. 나가 강맹질, 물맹질을
짜민 어뎡 이 술장시 안해도 평안하게 살아집니다.”

그젠 강맹질클, 물맹질클을 사당 줘서. 강맹지, 물맹지를 차명 포난 수양어뎡도 편안하게
살아지고, 막 편안허여. 어뎡헨 소문들영 문왕성의 문도령이 술장시할망 수양똥로 든 소문을
들어서. 들으난 술장시 할망신딜 오락

“똥 시우젠.”

허난

“똥 있젠.”

허난

“날 사우 삼아줍젠.”

술장시 할망은 문왕성의 문도령이 좋으난

“어서, 경허랜. 똥방은 저디 이시난 저기 좃앙가랜.”

사우삼젠 수양어뎡은 똥집앙 똥숲아 놓고 똥방에 들어강 보난, 똥은 문왕성의 문도령은 강

“문 열리라 문 열리라. 나가 문왕성의 문도령이메, 문 열려드라.”

허난,

“문왕성의 문도령이건 창그냥으로 손가락을 내밀민 보쿠다.”

허난 손가락 내미난 비단짜는 바능으로 꼭기 쥐부난 피만 졸라치게 나난, 문왕성의 문도령
은

“에이, 꽤씩한 년.”

허멍 나가부난 가시어멍은 둥잡앙 강 사우먹어젠 방에 아정 들어강

“아맹 아맹 흰 사람 안오라서나?”

“창그냥으로 손내밀민 보켄허영 내밀진 바능으로 쥐부난 들어오지 안행 나가수다.”

“이년 저년 꽤씩한 년. 경허니 낳은 부모의 눈에도 굴리나고 싶지나난 내좃아부렀젠. 나도
굴리나고 싶지나니 너껏 가정 가랜.”

경허영 조청비에기씨를 내좃아부난 나간 후제 따시 증으로 즐령 문왕성의 문도령을 좃아
간. 증모자 쓰고 권제 받오래 문왕성의 집을 들어강

“헌절도 수리하고, 헌당도 수리허커메 시권제 내줍서. 소송 절이봐오.”

영 허멍 간. 문왕성의 문도령은 영 바래보난 꼭 바난 얼굴이라. 모자는 증모자를 썼지만
얼굴이 축이나 어시 조청비에기씨라. 권제는 내어 쥐덩 ‘에이 요놈과 훗설 시험이나 붙어보주.
나허영 지민 여자고 아니 지민 율게 남자로구나.’

“읍서, 우리 씨름이나 혼 번 해보게.”

“경협서.”

씨름을 해봐도 조청비에기씨가 이겨. ‘어, 이런 판이 있다. 얼굴은 축이나 어시 닳은디 남
자같이 출려왕 씨름을 해도 이기니 이런 판국이 있다.’ 권제 반앙 나간디, 여자도 문왕성의 문
도령인 줄을 아니, 그 율래 밖을 떠나지 않은 것 아니짜. 권제 반앙 나가도 그소시서 팽돌이
시난 어둑우난 팽돌 우에 갈라정 누워듬서 달이 흰허게 텅(떠서) 비추우난, 문왕성의 문도령이
“하이구, 달은 곱긴 곱다마는 조청비에기씨 얼굴만은 못허다.”

이 말을 그라. 조청비에기씨도 돌팽돌에 갈라져듬서,

“아이구 달도 곱음 곱다만은, 문왕성의 문도령 얼굴만은 못허다.”

영 허영 ‘하이구 이런 시상이 어디 시여. 증도 이말을 굳고 허니 옛다, 나강 보주.’ 나강 그
누운 모자광 확 데경 봐서. 데경 보난 조청비에기씨라.

“아이구, 어땡허난, 영 행 오라듬서 이츄룩 날 속영 험시닌?”

그젠 믱 흘목 잡앙 들어올 거 아니짜? 두갯을 맨들어부렀주게. 두갯이 되어부난 문왕성의
문도령이 아방네 구해는 새각신 장가 안가켄 허는 거 아니짜? 어땡 아방그라,

“식은 밥이 좋습니까, 더운 밥이 좋습니까?”

“아이구, 재기 먹고 확 출립은 식은 밥이 좋나.”

“계민 새옷이 좋습니까, 묵은 옷이 좋습니까?”

“새옷은 버물카부덴 이리 꺾저 앉악, 저리 꺾저 앉악하곡, 묵은 옷이 문뎃허영 아무디나 앉
아도 좋나.”

이것사 무신 말곤. 아방도 야단, 어멍도 야단하는 거라. 시어방은

“나 내일 서울로 과거보러 감시니까 나 몸에 맞게 나를 보지 마랑 관비(官服) 지어오민 며
느리 삼으켜.”

이젠 문왕성의 문도령은 주춧비한테 오랑

“아버진 내일 서울드래 과거보러 가겐 허는디 관비를 당신 몸 보지 마랑 몸에 맞게 딱 지
어오민 며느릴 삼으켄 허난 이 노릇을 어떡허여.”

“경협서게. 나 안봐도 몸에 맞게 관비 지우쿠다.”

딱 해도 남자는 조든거라. 저녁도 먹고 시계때 되도록 12시 되도록 놀앙, 옷은 허켄허고
웃은 허는 냥이 없어. 피씩 즈들아정,

“아 이제 안한 옷을 언제 허영 내일 입영갈 옷을 허켄 험시니?”

“아이고 걱정도 맘서 누웁 줌이나 잡서 나냥으로 허커매.”

붉앙은 뭐,

“이거 관비 지어수다. 강 입저 붉서, 맞으커나 안맞으커나.”

강 입저보난 축없이 딱 맞앙 떼어 볼 디가 영 어성. 하르방은 이젠 홀수 없이 며느릴 할
밖에 할 수 없덴. 아방 벌역시키는 걸 시어명인 나가 벌역을 안시키랴. 나도 벌역을 시키켄.
이젠 숯 신섬을 구덩일 파냥 거니 낭 신발을 담아냥 불을 채질러허 그 채질른 우에 칼선 틀
을 뇌서 그 칼선 틀을 바라든다. 바라난 다 해도 패적없이 바라나민 나도 그젠 며느릴 삼으
켄. 아이고 그젠 주춧비가 하늘님신디 축소를 해서,

“아이고 나가 정이없인 정순에비 죽여본 죄밖에는 죄가 없우다. 날 죄 지었거든 이번 고개
에 떨어정 날 죽게 해줍서.”

그 칼선날 위로 바라든다 바라난다 했는데 뒤축일강 불곤 태어부러서게. 그젠 치마꾸역(치
맛자락)으로 발치기로 끌앙 앉앗당, 치마꾸역이 혼설 붉오랑 허난.

“어떻겐 치마꾸역이 붉오랑 해니넨?”

“여자 열다섯 시우제가 되민 구슬오는 법 마련허는 따문에 이녀 구슬오랑 치마까에 영 해
수다.”

영허더라 험디다. 이런 내력으로 여편들 열다섯되는 구슬마련헌덴 험니께. 장갈 주춧비신

딜 문왕성의 문도령이 가난, 시집오젠 사주 언어오라난 아랫녘의 서서왕의 딸은 그 사줄 앓안 강

“어떻 강 사줄 주느냐?”

허난 새서방 허는 말은

“문 죽어가난 오랑 홀어명으로 살젠 시집오느냐? 이젠새서방 어신디 어떻 오느냐? 허영 문은장을 쥐봅서”

그 새각시 집일 강 새서방 문 죽어가부난 장갈 못 들거난 시줄 앓엇왔덴 허난

“그 문은장 이리 좁센”

경허난 불에 소란 물탕 먹어낸 어명 아방네 그라

“석달 열흘 나 사는 구들에 문 열어보지 맙서.”

허난 석달 열흘 넘엄 문 열어보난 앞니망은 하기새여, 뒷니망은 조작새여, 뭘 일로도 포르름 절로도 포르름 희 동서로 놀아났첸 고릅니께. 경허난 옛날은 새각시 시집가든 제반건영 가짓쟁이 상 알더래 놓는디 그 새만썸. 새각시 먹기 전에, 시집 못 가부난 놈 살림사는 거 해말림해분덴 건영 상 알래 놓는 거주게. 문왕성 문도령 두것이 살아가당 살단에 또시 주침비 에기씨가 종을 살리첸 해서. 종을 살리첸 헨디 꽃밭에 꽃히는 집이 물탕 들어간 허난 하도 얼굴이 좋아부난, 꽃히는 집어서가

“우리집이 저 물팡들에 부영이가 맨날 저녁 부영부영허니 저 부영새나 누게 죽여주는 사람 시민 사우삼으켜 마는.”

주침비 남자로 찰령 땡겼주게.

“건 내라도 죽여내쿠다.”

“죽여민 주몬 사우삼아도 문제가 아니켜.”

하루저녁은 물팡들에 강 누위시난 부영새가 부영부영허명 왕 앓안. 경허난 부영셀 죽연 부영일 꽃밭드래 강 데껴부난,

“아이쿠 꽃밭디 강 부영셀 주머니에 담아땡, 이거 부영새 좇아수덴.”

경허난 문제어시 어서 죽은말 사우로 들랜. 아 경헨 죽은말 사우로 들어가난 죽은말 늙는 방얄 주침비에기씨도 그췌 디떨안. 석달 열흘을 살아가도 윈 예편을 문지가 보질 앓허난. 그 새각시가 어떻게 고라.

“아고, 날 미우난 산디 윈 나 주뜻의 늙긴 허는디 날 흠치 손도 안 심어 봅니덴”

“아이고! 이것사 무슨 말곤?”

사우고라,

“아 우리 딸이 미왕 경헨시나, 경헨건 들어도 말아불민 말 거 아니께.”

“아이고 그게 아니우다. 나가 서울터래 과거허래 갈 거리부난 두갯노릇을 허젠해도 과거 낙방을 허카부덴 경험수께.”

아이고 경허른 종덴, 어서 강 과거허영 오랑 살랜. 그젠 돌 타아정 그 꽃 꺾어아정. 소랑소랑 오랑 정이어신 정순애비 죽여난 터를 강 좇장. 그 광을 딴 주신 그 꽃패왕 삼시번을 도리난

“아이구. 줌도 너무 자져수다.”

와들랭이 일어나난 그젠 어멍아방신디 돌앙오란,

“종 살려수덴. 종 살려오라시매 이젠 아버지네 부립센”

종 살려났덴 돌을 들여놔.

“이년 저년 께썸한 년, 남도 낫저. 주청허라 주청비여. 무신거여 허멍. 고릴나고 싶지났젠 나가랜.”

내꽃아 부난 그 종 살려놔뎡 또시 문왕성의 문도령한테 또시 돌아강

“아고 나 대신 그 꽃밭의 처녀신디 강 석덜 살 건 나신디왕 석덜 살고 경 해도랜”

“나가 나가 아무딜 처널 나가 남자인 첼 허영 살당 와서니깐 그 처널 칩여 붙은 나도 죄가 갈 거난 그자 나 대신 나노랜 행 가건 그 처널 좇앙 강 석덜만 살 건 또시 석덜을 후제랑 나신디 오랜”

경험주께. 본내 본장이영 그 처녀신디 방아논거난, 본내 본장 출실이어 어울래기여 아정강 요거에 강 맞추민 똑기 그것에 강 맞을거난 계민 ‘요거 기로구나’허영 그 서방인카부덴 허영 살아진덴. 그 처녀신디 반앙 온 본내본장을 주멍 나대신 그 처녀신디 강 석덜만 살앙 나신디 오랜. 경험 보낸 뇌두난 문왕성의 문도령은 그자 꽃밭의 여자광 미쳐부난 주청비 생각을 잊어 부렁 원 안오난 이젠 주청비가 그래 편질 험을,

“아이고, 문왕성의 문도령야. 무정도 하다. ‘어멍아방 다 죽영 대소상 다 냉겨도 혼번 오질 았오난 이런 무정한 문왕성 문도령이 어디 이시닌?”

편진 까보난 경 가시난, 그젠 그자 문왕성의 문도령이 꽃밭 처녀광 살당

“요게 무신 일인근? 꼼막 잊어부렸젠. 석덜만 살앙오랜험겘 나가 그자 여기서 일생 못차졌젠.”

몰안장도 거꾸로 타멍 주청비신드래 돌려올 거 아니꽈? 돌려오라가난 주청비

“날 오죽 미와사 몰안장도 거꾸로 타고 드랑오랜.”

이젠 문왕성의 문도령을 자락 거리밀러부난 돌아래 털어정 죽어볼 께 아니꽈. 이젠 홀수어시 종 살려당 아방어멍한티 맵겨분 걸 이제랑 돌앙 살았시나 말았시나 어멍 아방을 또 좇아 보젠, 주청비가 어멍아방을 좇아아정 그 종이영 이젠 오랐주گی게. 어멍아방을 좇앙 오린보난

어떻게 이밥도 다 죽어볼곡 아무도 어실 거 아니냐? 아무도 어시난 사려온 종이영 그디 저디 땡겨가난 배고픔이 바싹하고 혼 자국도 고짜살 생각이 어선. 건다보난 밧가는 사람이 봐전. 종놈그라

“애야 밧에 강 밥이나 먹다 남았건 훗설 줘센허라. 먹영 시장이나 어디 가보게.”

“밥이나 먹다 남았건 훗설 줘서. 우리 배고팡 건질 못허쿠다.”

“나 먹을 밥도 어시난 질 걷는 사람 먹으랜 헐 밥이랑 마랑 아무것도 없져.”

아 이젠 흘 수 어시 또 그냥 배고파도 건젠. 건다보난 또 밧가는 밥을 봐전.

“아이고 저 밧더래라도 강 고라보라. 암만해도 시장허영 건질 못허크라.”

이젠 종놈그라 저 밧더래 강 들어보라 허난

“점심이사 저기 해다 왔주마는 배고팡 건질 못허켄 현 사람을 주주. 나 먹젠 안 주어져. 나 사 어시민 강 해당이라도 먹주기.”

그 밥 흔차룽을 쥘 먹으난 어디 천리강산이라도 가짐직 허여. 하도 좋앙 게난 그 구신들이 주청비애기씨 허고, 정이어신 정순네비허고 밥 안준 밧에랑그테 밧갈명 뱃두설에 쌀도 쥐볼곡. 조랑 끌리거든 감비역(시커멓게 나오느) 쾌살이 부살이 나게 불어볼곡, 밥 잘준 밧에랑그네 이제 (용지도 허건 멍들살이 나게 볼곡) 이제 밧도 갈젠 허건 잘 갈게 허곡. 밥 안준 밧에랑 쇠귀에 봉아지(봉봉허를 벌레 쏘영) 돌영 들어키게 허곡. 경 말헐 허랜. 말잔 주청비광 문왕성의 문도령은 재식으로 들어사그네 모든 인민 용시짓거든 요시잘되게 허영 얻어먹기마련허는 재식 할망으로 들어사고, 정이어신 정순네빈 국도 하흡동에 밥도 하흡동에 이구 십팔 열여덟 동이 먹던 정이어신 정순네빈 무정봉쇄 너른 땅으로 가건 무시질되주전 하양 백중대제 일로 국이영 밥이영 허당 놓거든 잘 얻영 먹으랜.

19. 안택초상

제 보 자 : 부의한(여 81)

조사일자 : 1992년 7월 25일 22:50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1리 제보자의 집

안집 사람이 서울을 나간디 하도 시 성제가 강패짓을 서울 묵을에서 막 해가난, 저 사람들을 이 서울에 놔두민 서울사람들이 못 살젠. 그냥 배에 신건 제출 보내부런. 제주를 보내부난 이리 들어와 보난 거기 웃선홀리넨 현건 선씨 할망이랜 현디 밖에 어선. 선씨 할망뵈에 사는 디가 어시난, 그 할망신딜 들어강 훗설 의지허영 았앙,

“우리가 이만저만 허영 욕지갔당 거기서 보내부난 들어오라정 같 같이 여성 영 들어오라수 덴.”

“그냥 여기서 주무시렌.”

허난 그냥 거기서 주무신 허난 뒷날은 거기서 산에 올라강 산보구경이나 시 성제가 허켄. 재 올라간 저기 유람 요기 유람 허단에 노루 사냥이나 꿩사냥이나 해지카부덴 해도 꿩사냥도 노루사냥도 그날은 못허연. 그냥 선씨 할망 사는 털 오란

“오늘 나가도 노루사냥도 꿩사냥도 아무것도 못 봄디다.”

“아이구 애야 그냥 강 그런 걸 봐지느냐? 나가 델 지영 주거는 지어강 어디 깨끗헌 동산으로 강 거 케우려두곡 느네 점심먹영 허여 보라. 그켄 알아져 간다.”

“아 고맙수덴.”

그 할망이 매 지어주난 약도리엘 싸아저강 높고 깨끗한 동산일 강 아장 케우려두곡 행 시 성제가 혼직석 거려먹인 거려먹어도 아무것도 보질 못허연. 경허난 조라움은 쭉쭉허곡 그자 돌베개 베영 좁이나 훗설 자당 정신 출령 가주. 돌베개 베영 좁자당 오줌이 파삭 매려우난 오 줌을 누래 강 오줌을 뉘땡 이녀 뉘난 자리를 영 보젠 행 보난, 그자 눈이 등대알만헌 게 벌경헌 눈을 확 띠민 하늘이 흰허여 불곡. 이것 구신도 아니고 무신 것도 아니고 그자 고광방석만 이 한 베업닭을 것을 베영 누워져서. 이젠 안집 사람들 시 성제가,

“성님 저기강 봄서. 베업도 아니고 귀가 작방만은 허고, 눈도 등대알만이 허고 귀 벌경헌 게 윈 보와 델 틈이 어시 튀노난 무서왕 못 보쿠다.”

강 보난 경해시난

“아이고 우리에게 태운 조상이건 이 약도리¹¹³⁾에 들어옵서. 가건 잘 모상 대우허쿠다.”

움쩍도 안허고, 셋성이 또 강,

“우리게 태운 조상이건 이 약도리에 들어옵서. 지어강 대우, 적선허쿠다.”

움쩍도 안허난 죽은아씨가 강,

“우리게 태운 조장이건 이 약도리에 들어옵서. 지어강 잘 대우해내쿠다.”

술술술술 허게 죽은아씨 약도리에 그자 들어간 큰 성그라

“이거 성님이 정 그릅서.”

거 지난 굽이나 때와져. 윈 움쩍도 못허연. 이젠 셋아씨도 강 지젠허난 윈 움쩍도 못허고, 들르지도 못허연. 이젠 죽은아씨가 강,

“내가 지어 보주.”

113) 약도리는 그물 같이 모진 부대를 발한다.

허영 지어보난 가뭏허게 지영 옷곳 일어나전. 그젠 지어 아정 오당 어디 무신 섯 듸박낭 아래 낵 여기서 주무시민 우리가 대접허쿠덴. 그디 강 낵 모산 그 조상을 잘 대우해 가난 혼 어미애(잡자기) 일부자(一畵者, 큰부자)가 되연.

20. 김동지와 애기씨

제 보 자 : 부의함(여·81)

조사일자 : 1992년 7월 25일 22:55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1리 제보자의 집

가운데 아뭏 도령이랜 현 초상은 어옥물 김동지 영감이 육지 과건지 무신건지 보래갓당 굽닥한 처녀가 붙어오랑 각시 모르게 김동지 영감 늙는 구들에 그 처닐 낵, 각시 밥해 올 순간엔 평풍 뒤에 안지고 경현 밥해 오민 또 가불민 두것이 앗양 먹고 이제 또 저녁때 되도 밥해올 시간엔 평풍뒤에 그 처닐 앗허불곡, 김동지 영감만 앗곡. 경허멍 허난 각시가 밥을 해가민 전인 반사발밖에만 안먹영 천석 냉기는다, 서울 가온 후젠 밥을 해가민 혼 사발 문짝 먹고 시숫물도 떠가민 되곡 허난

“허 이거 피가 고약허다. 어떻허난 전이보다 밥을 영 허영 하르방이 먹업신고 에이 흐르랑 의견을 내왕 하르방을 이방 바깳되 내쫓아야주.”

호루는 할망은

“저 까마귀 물 백시도 다 죽어가고 쇠 백시도 다 죽어감덴 험수께. 오늘랑 산에 올라강 무시들이영 보양 읍서.”

그젠 하르방은 고장 들영 무시 보러 가부런. 이젠 큰 어멍이 하르방 늙는 디 강 돌아뵈주. 돌아보난 평풍 뒤에 하도 고온 처녀가 아자서. 고온 처녀가 아자시난

“아이고 나 눈에 이렇게 찰적애, 하르방 눈에야 조직(오죽) 찰라? 이린 년 뵈당 나 못살로구나.”

허영 허웃늑이 두러메영 이젠 헛개미 들렁 마당 혼감장 도난 그만 어디 간중 모르게 그 처녀가 돌아나부렀주께. 돌아나부난 하르방은 오랑보난,

“아이구, 여기 아가씨 어디 가시니?”

허난 큰 각시는

“아이구 난 모르쿠덴.”

계난 상뒤 네라(사람들을 모이라) 뵈 내라 허멍 막 그 처닐 훗양 보난 선흘 굿되 강 죽영 눈

도 가마귀 문 파가분귀 늑도 문 썩영 치저불곡. 치매만 설핏냥에 걸어져서랜. 허난 그 치매
 허나 탈낭랑 밤되 아경오란에 큰 할머니 부름씨나 허영 어디서 얻어먹으랜 허난 걸어부난, 아
 밋도령이 김동지 쪽은쳐녀각시 혼이랜 허여. 옛날에는 큰할머니 앞에 낫던 매를 매려당 아밋
 도령 앞의 낫는다 지금이야 매 시을 허영 큰 할머니, 산신, 아밋도령 앞에 낫주게. 큰 할머니
 부름씨를 허영 얻어먹으랜 허난 아밋도령은 얻어먹젠허민 영두붓을 열두조희정(열두가지병) 너
 벽지시(허벅다리) 혼허멸도 내와분다. 물비괴, 당비괴(피부병)도 내와분다. 등창, 배창 문 내왕
 얻어먹낸 허주게. 아이 대접허민 큰할머니는 원칙적으로 선홍마을 문 조손들 거느려쥬난 할마
 니난, 큰 할마니한티 으레 강 대우 적션허젠 햐주게. 그 할망신디 가 오민 허근디가 다 편안
 허영, 자손들이 편안허곡.

21. 과양생이

제 보 자 : 부의함(여 81)

조사일자 : 1992년 7월 25일 23:05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1리 제보자의 집

옥황이 범우왕의 아들들인디 일공성젠디 네 성젠 복이 좋고 세 성젠 복도 없고 맹도 쪼르
 곡. 경허난 중의 대사가 오랑 점을 허난
 “위 네 성젠 팔자도 좋곡 복도 좋은디 알로 시 성젠 복도 잇넢.”
 “게른 어떻게른 조옵니까?”
 허난
 “맹잇고 복잇젠 허민 급덕강으로 가건 맹을 이성 기들 잘 드러사 맹도 있고 복도 잇넢”
 이젠 어멍 아방넢 맹잇고 복잇넢 허난 맹쫄른 아이들음
 “강 복 이성로라. 맹 이성오라.”
 허영 보낼꺼 아니우파. 게난 맹주 시 필씩 아홉 필을 시 성제 출렁 내놔수께.
 “이거 아정강 법당으로 들어가건 공들여그네 맹잇곡. 하건 거 허랜”
 허영 보내난 이젠 그 절간으로 시 성제가 들어강 기도 드리멍 맹도 잇곡, 복도 잇곡 허젠
 살아가단에 윈 산보구경을 막 가구정 허영 산보구경을 강 보난 가마귀도 까옥 생이도 쪼쪼
 허난
 “만물 중성이 어멍아방아 부르느디 우리도 영 오래살앙 어멍도 기림곡, 아방도 기림곡 이
 젼 어멍국 훗곡 아방국 훗앙 가쿠랜.”

선생고라 고르난 느네 안직 갈 기회가 없덴, 안직 멀었젠. 더 기들 드러뵤사 가사헌덴. 기도 못드려도 아맹해도 보구정허영 혼자 어멍 아방 좇아강 보쿠덴. 경허난 선싱은 맹주 아홉 필을 받았당 내주멍

“어서 그거 아정 어멍신디영 아방신디영 어서 가랜.”

경행 내 주멍 굳는 말이 과양땅일 디덩가지건 아맹이나 그 땅만 넘어사랜. 그 땅만 넘어사민 느네가 목숨 대면은 헌덴. 아 경행허난 과양땅엘 디디난 배고팡 걸어집니까? 앞드래 혼자국 뒤드래 혼자국 암만이라도 죽어지게 견젠해도 견질 못허영. 하도 배고팡 못걸오난, 이젠 과양생이네 집일 들어간

“슨은 밥이나 싯킨 훗설 줘서. 길 버청 가질 못허난 물 조미 허영 먹젠 오라수다.”

큰성이 먼저 가난

“헛다 오늘은 중도 중이여 식은 밥이랑 마랑 아무것도 어서.”

영 허멍 아니칭 보낸

“경허른 셋성 가봅서.”

“헛다 오늘은 중도 중이여 식은 밥이랑 마랑 아무것도 어신디 밥만 드랜 헛서.”

죽은아씨가 강

“아이고 배고팡 견질 못허난 식은 밥이나 훗설 줘서 조미허영 훗설 시장물령 가개.”

“하이고 오늘은 중도 중이여. 어멍허난 동낭바치가 영 합시나.”

“경 곤지 맵서. 우리도 본디 중이 아니우다. 옥황이 범우왕의 아들이 일곱 성젠디 네 성젠 복이 좋고, 우리 시 성젠 복도 없고 맹도 없덴 허난, 맹이시래 오란 감이우덴.”

경 고르난 범우왕 아들이렌 해사 식은 밥을 한 숟갈을 친. 식은 밥을 한 숟가락 주난 그걸 시성제가 한 숟가락씩 물 조맹허영 갈랑 먹오난 눈이 배롱허영 이젠 아무데라도 가질로구나 허영, 아홉 필 정 덩기당 그걸 시 성제가 혼자씩 과양생이 지집년을 끊어 줄 거 아니파?

“이거 우리가 놈이것 먹영 가른 목걸리고 등걸려 질 거난 이거 덩기라도 허영 씹센.”

혼자씩 끊영 주난 아 이년이 이것에 그만 호탕을 허곡

“하이고 우리집이 좀 잘만 허우다. 방도 깨끗허우다. 이불자리도 좋수다. 먼 질 가는디 우리집의 호룻밤 유허영 종애 싹곡 허영 감센.”

그젠 막 호의를 보이는거라. 그 예편 말 들영 그냥 그기서 그거 얻어먹고 아즈난, 소주 한 사이다씩 아저당 맥이지 앓읍니까? 못 먹넨 해도 먹으랜만 허멍 그걸 맥여노난 안 먹던 술을 시 성제가 먹오난 탁 취허영 노릇노릇 문 자빠정 소믈 좀 들어볼 것 아니파. 죽어정 문 좀들어부난 그젠 삼년 묵은 곤장물에 오년 묵은 춤기름에 소왕소왕 께왕 시 성제 귀에 소복소복 질러부난 문딱 죽어불지 앓읍읍니까. 문딱 죽어부난 이젠 중놈고라

“하이고 저걸 볏기전에 혼저 놈 모르게 치와도랜.”

경현 저걸 짚어당 강물에 강 그 시 성체를 데껴부난, 이젠 지네가 어중간한 일이 이시난 놈 보민 아시날 물물 안 맥여부난 물물 맥이젠 새벽에 오랑가노랜 힐거주. 물 몰아강 그 물도 보곡 골라 안자시나 떠시나 보젠 과양생인 그 연못딜 갈 거 아니짜. 이젠 물 몰아 강 가난 물은 그자 물은 안 먹곡.

질리나네 여페 나오젠 헨 앞살작 딱 매불고 뒤로 가젠허민 뒷살작 딱 매불고 경허난게,

“나아들 미코장은 꿈은 굶다 마난 행실머리가 꽤쌌허다윈.”

이젠 뒷문도 네 또 질워불카 해불언. 뒷문전에 질워부난 과양생이 지지던 장개를 가젠허민 앞살작 딱매불고 장개를 오라가면 뒷살작 딱 매불고 머리만 문 허옥트더부러.

“에이 나아들 미코장은 꿈은 굶다마는 행실머리가 춤 꽤쌌스럽다.”

에이 이제라건 불할르래라도 꼭 집어분다. 이젠 그놈이 이젠 가매 동넛 할말은 그 담오래 오란 두린아이여. 저 섬에던 아이성도 화로에 불살라수다. 화로에 간 훗설 담양감썬. 화로가 확 아 굶닥한 구실 서 세방울이 동동 올라오라.

“하이고 이거 불글린 보난 하도 고운 구실이 서너방울 선 봉간 오란 어디 선지방둥이 허코”

“아이고 이래 줌썬 나도 아기 나민 휘 방둥이 시려우쿠다.”

오곳 시방울을 빼앗아 이젠 그놈의 손에 난 아래 둥굴, 저래 둥굴 허단, ‘에이 입에나 놈보 저.’ 입에 노난 소록소록 문딱 내려가부린. 소록소록 문 내려가부린 허난 이젠 아기를 배면 아기로 나오지 아녀. 아기로 나오란 귀 그자 태어난다. 오목 가슴으로 태어난다. 이레도 살락 저래도 살락 피어나 뭐 그자 이후로 그 아이덜이 그자 어물어물 막켜. 허난 뒤 소문 참 큰 대통령이 그리 조안. 그젠 뭐 서울 어디 과건가 허래 가난 이젠 과거들을 시 성체가 문 보난 세 성체가 문딱 버린. 과거 등당 우등당 바바바바 허명 오라가난. 광생이 지집던 어디 놈의 집 아이 과거보래 가감시난,

“아이고 놈의 집 저 학생들은 경 과거를 보란 오람저미는 아이고 우리 애기들은 어명사 험신디.”

들어온 건 보난 그자 이녀아들이 소문 과거헨 소문 바바바바 허명 드러가 아이고 이 톨래미 아이고 문전급시란, 뭐 문전에 삼신전 문전에 뭐 코시헨 뭐 챗발자국 들어노난 큰아들 록죽언.

“아이고 이 노릇이여.”

이젠 큰아들 이젠 뒷밧되 간 처백여던 또 훗설 시난 바바바바 허명 오란

“아이고 놈의 애기들은 정 과거도 행 오람저만 우리 애기들은 어명사 행 오람신디.”

온 건 보난 이녀 아들 셋아들이 과거를 헨 도라오란.

“아이고 이젠 강 또 문전코시 허주.”

문전코시헨 그것도 그자 챗발자국 드러노난 똑 줄어붙어. 아이고 이제 온다간다 허노랜 허난. 다시 죽은아들이 바바바바 허멍 들어오란. 온 건 보난 또 작은 아들이 과거헨 돌아오란.

“아이고 이젠 오단도 이젠 또 문전코시나 허주.”

문전코시허난 뭐 그것도 그자 혼 발자국 들어노난 툇 죽어부러.

“아이고 이제 이만 허민 어떻허리.”

이젠 더 윈 해볼딘 없고 마을에 주장허는 사람신디만 막 윈성을 헐 거 아이파. 아니 무신 주장 다음으로 옛날 살아난 짐촌인가 허는 사람신디 간

“무사 우리 아기만 새개다 돌아나게.”

아흙 상젼 들어노난 이젠 그 책입된 사람각신 조반을 행 서방신디 들러가난 조반을 먹읍니까? 그 처리 허지 못헨 뵈이라고 대답헐 수가 어서. 대답헐 수가 어션 이젠 조반도 안먹언 그 책입진 사람도 과양생이 지집년 하도 윈서썸 돌아가는 것에 그만 지도 죽어볼렌 했주게. 때 안먹고 죽어볼렌 뵈 무시거랜 처릴 허지 못헨. 겨난겐 조반상 들러가난 문 딱 종간 아이 바드켄 허난,

“무신 윈이우겐?”

허난.

“이만 저만허난 과양생이 지집년 아들 시 성제 죽으난 날 고라만 윈을 살명 무사 나쳐린 안해칭 나 아기만 돈 죽게 시리 끌어지넨. 상젼 아흙상젼 들어오란 허민 나가 다신 뵈이랜 대답헐 수가 못되난 내가 죽어야주. 살질 못허켄.”

아 각신겐

“아이고 요 어른야. 이때까지 윈 살양 그 이유도 못 대업수가. 나 곤는냥 들읍세.”

“어떻허민 좋올디?”

“저 강님이 강팍디가 이젠 각시가 일곱 각실 거느령 사난 이제 저 늦게 올 건 쥬헐 건 사실 아니파? 그 각시 신디여 저 각시 신디여 땡기단 보민, 쥬헐 날 이십니다게. 쥬헐 날랑오네 강님이 강팍드래 오랏건 염네왕을 가 잡혀오랜 닥두리를 험썸. 경허민 죽이켄 막 닥두리를 헤여근 허당 죽지 앓을켄 강 염라대왕을 잡혀오랜 허민 가 잡혀웁니다.”

“아 게민 경허주.”

이젠 식사 반안 먹언 이제 거 허누랜 허난. 강님이 강팍디가 침 허를 어떻헨 아흙각시신디 땡기젠허냐 허난, 쥬을 행, 아니 오랏단 뵈날사 오랏주. 오라네 하이고 그젠 쥬할젠 이젠

“저눔 앞뵈의 작지틀라 뵈갓디 막 이제 칼썸우라.”

죽이겐 닥두릴 오죽 허여. 닥두릴 허난 닥두리헨 죽을 걸로 막 대령허여. 허난 매여된
“너가 죽지 않을커거든 죽은을 피헤여 살키건 염나왕을 가 죽이지 않으르메 염네왕가 잡혀
오랜.”

하 경허난젠 할 수 어시 죽진 말젠 경

“가 참허오쿠덴.”

대답헨. 이젠 집에 올 거 아니짜? 집일 오난 하이고 생각헨 보난 나가 ‘이거만. 그 각시 저
각시 땡긴 죄로구나.’ 이젠 큰각시 방으로 가건 ‘내가 죽어볼자. 나가 살 수가 못되.’ 이젠 첩
각시들은 내불고 큰각신 신대로 이젠 윈. 아니 땡기던 큰각시 신디로 가서. 간보난 존 각시
뒀 방에서만 ‘이어도 이어도’ 허멍 방에서, 서방은 들어가가난.

“아이고 오늘은 어땡허난 가시 두여란 오라지엄구나. 어땡헌 날잇고”

오늘 가질 열안 경해서 이젠 들어가서. 들어간 각시늬는 방엘 들어간 문 딱잡안 중간 들어
왔잖습니까? 중간 들어오란 각시방엔 ‘아이고 오죽헌 마음에 날 찾아오라시라? 아이고 이제랑
이 방에 설립둥 서방네신디. 식사나 해당.’ 쌀씻언 이젠 식사를 상에 출런 서방이 지줍는 방엘
들어가젠 허난 문은 딱잡안 중가 부렸주.

“아이고 무사 이문은 잡음데강. 문 엽싸게. 영 날 밍건 오질 말아사주게. 무사 오란 문을
잡안 못들어 가게 험수가?”

“그게 아니라, 집존이가 날 벌허젠 염네왕 가 잡혀오랜 허난 염네왕이 어디산디 나가 뒀
해도 모르는 사람인디 염네왕을 어땡 그라가 잡혀오라 질리. 나죽젠 나네 집이, 집이 영 온
거랜.”

“하이고 이 어른아 죽자 할 말이 시우짜? 나 이른대로 험싸.”

“어땡 허!니?”

“나 허건 봄싸. 식사 받으싸. 식사받으면 나 곧는 대로만 들민 될 거우다.”

이젠 각시 곧는 대로 식사받안 얻어먹으난 각시가 뒀 그자 서말 쏘을 석되어 뒀 그자 뒀
지어놓고 이젠 저 백불해 백실이 문 헤여놓고 이젠 뽕뽕 두개 씹주. 두겉 싸놓고 서방내신
청색도폭 흑색도폭 이젠 지언. 이젠 바농 한쌈 사단 청색도폭 그 였드래 바농 한쌈 질러곡.
경헨 이젠

“이제랑 감싸. 나가민 알아볼 도리가 이수덴.”

각시 해준 도폭입고 뽕뽕 싸준 거 들르곡 해연 나가가난 올래 부딘 디 나가난 짜끄만 할
망이 앙글앙글 걸여. ‘에이 저 할망 줄음에나 걸영 가사 나가보리. 어딜 저 할망이 가나.’ 천
장만장 이건 고부신질을 나간거라. 어디갈 한도 모르고 할망 줄음에만 줄줄줄 가단보난 재
기 걸으면 그 할망도 재기 걸고 늦게 걸으면 늦게 걸고 허난 높은 높은 헌 동산이 가단 그

할망이 오뚝하게 아자 오뚝하게 아즈난 강님이 강팍디가 그 할망신디 절을 오뚝이 허난.

“아따 어땡허난 나신디 절을 헐 생각난 절을 햐시니.”

“아이고 깃사 무신 말이짜. 나도 늙은 부모를 돌양 사는 사람. 절을 안해 집니까.”

“그 말은 맞다마는 아즈라.”

아즈난 켜 점심 내방 먹젠허난 조양 할망도 네는 건 보난 백돌해 백실밥 이젠 또 강님이 강팍디도 내는 건 보난 헐 손으로 헐 백돌해 백실이 이젠 벤또 햐 이젠 조양 할망이

“나 벤또랑 너주건 먹고 너 벤또랑 먹지 말앙 아무질래에 강 이제가민 지천 걸러짐 잠젠. 잠만 잠시난 이제 그 질트데기틀 ‘강 읍써 점심먹게. 읍써 점심먹게.’ 햐 일렁 그 질트데기광 점심먹으랜.”

경 허난 이젠

“경허민 알아볼 도리가 잇넨.”

뉘 참 ‘그 할망 굳는 양 영 감시민 길이 잇주.’ 햐 가단 보난 일흔 여덟 공크림질이다 참 질트드레기가 지천 걸러짐 잠을 풀풀 잠서.

“일어남써 우리 점심먹게. 점심먹게.”

막 일련 일어난

“어땡헌 사람이 날 점심먹으랜 일립시나?”

허난

“저승사람도 저승사람이랜 이승사람도 이승사람이랜.”

이제 영 점심같이 먹고

“날 저승길이나 고르쳐줍써. 염네왕 누가 잡혀오랜 햐 나사 이거 염네왕이 어디산디 모르 쿠다.”

경허난

“너 적삼입언 오랴!”

“적삼입어 오라수다.”

“어 이제 혼부리기전인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저승 못간덴.”

이제 적삼 벗어 내놔네,

“강님이 보오 강님이 보오”

세번 불르난,

“이젠 저승 들어가진덴.”

허명. 그쳐서 하는 말이,

“앞이 오는 건 그냥 내불고 가운데 오는 가매도 그냥 내불고 나중에 오는 가매 심영으녕에

허민. 그 속에 염네왕이 시난 그 염네왕을 심어놔. 걸음씨 걸음씨 닥두리허민 열 두번 변색헌 덴. 열 두번 해연 파리 되었던, 모기 되었던 뭐 각다귀 되었던 저 비치락 되었던 무신 꿩됐다 닭됐다 개됐다 도새기 되였다 허멍. 열두번 변색허는낭 그걸 심어놓고 걸음씨 걸음씨 막 닥두 리를 허랜.”

막 열 두번 막 심으멍 그자

“포리도 걸음씨 걸음씨 개도 걸음씨 걸음씨.”

허멍 막 닥두릴 허당보난 열두번 거자 되연

“아이고 강님이 강팍디 똑똑허고 영리해노난 이제 나가 피혈 수가 없엔 어서 걸랜.”

가다가기맹에 조복장개 죽은뜰래미 큰 곳허는디 먹인가랜 이제 게건 경험센헐. 오단 큰 곳은 덜렁덜렁 헐시난. 염네왕이

“이젠 닐랑 이올래 사시렌. 나 저 곳 다받아 먹언 오켄.”

뭐 올래 압만 사므로 뭐 염네왕 나오는 법이서. 노시 나오지 아난 에이 이젠 기들려 보단 혈 수 어선 이생원도 원이여 저생원도 원이여 신방을 닥두리헌덴. 신방을 죽이패살 해노난 그 만 팍 거불현 자빠지주. 자빠지난 이젠 영 이젠허난 죽어감젠 헐. 항선 사상 내노랜헐 상 한 상 내노난 이젠 술이여 떡이여 이젠 강님이 강팍디도 받아먹고 헐 그 곳허는 집에 영 들어가 보난 아 큰 대가 두 개가 세와전.

“어느 대 이 집에서 굶허멍 세와시넌.”

허난,

“요것백이 안 세와수덴.”

“저건 어멍 헌 대파.”

“저건 우리 세운대 아니랜.”

허난 그젠 대톱 아저오랜 대톱 아저 간 씨근씨근 씨가난 피가 불긋불긋허게 나멍. 그젠 그 염네왕이 바짝나사 버쩍 나산

“아이고 압만이라도 강님이 강팍디 똑똑해노니 내가 피혈수가 없엔. 노만 가시민 노만 가 시민 난 천천히 가켄.”

경해도

“아니됩니다. 혼디 가야허주. 혼디 아이가민 안됩니다.”

허난

“혼디걸음센.”

“게건 옷버시렌. 훗버시민 등어리에 저싱글 씨주거든 가랜.”

저싱글씨 주진 가랜 저싱글 이제 등어리에 씨내주멍. 저 흰 강생이 허나 내주멍

“요강생이 가는 양 가민 가진덴.”

이젠,

“어느 날 오쿠젠?”

허난,

“모래 날 사오시로 가크메 그중 알랜.”

아니 겨난 제 뭐 흰강생이 풀 뜯어 먹으멍 줄래줄래 가단 뭐 그장 강물루래간 음막 빠져.

“아이고 이젠 뭐 길도 없고 강생이도 일러부리고 이 노릇을 어떻게리. 예 나도 이래란 물르래 빠져분덴.”

물르래 빠진 게 뭐 큰각시네 올래에 오라져서. 올래에 오란 큰각신 뭐 강님이 강팍디 식계, 새 식계 돌아오란 올래 걸명해래 오랜 걸명해된 들어간 문만 툽툽 더끄래간.

“아이고 이래란 어떻게리. 문을 강 열랜해사. 문열아 강님이 강팍디 나가 오라시매. 문 열아줘 문 열아줘.”

“아이고 아침에간 식계 재물 얻어 먹읍써, 강님이 강팍디 이건 죽어 새 식계 돌아온디 무신 강님이 강팍디가 오라집네까?”

“아이고 경해도 나가 강님이 강팍디노랜. 무정허지말랜.”

계난,

“개건 강님이 강팍디가 확실허건 반지썸을 창고냥드래 질르민 나가 강님이 강팍디…”

계난 반지썸 창고냥드래 질린 보난 바로 호나부터 오란 예이고 이젠 문 열안

“이거 강님이 강팍디로구나.”

경한 이젠 뭐들어간 뭐 그자 식계 넘오난 두갓이 뭐 대가리 혼나이고 발은 두개고 한. 좁잔 뒷날 아침은 과양생이 지집년은 식계 재물 얻어먹으래 강보난 두갓이 혼디 좁잠서랜. 이젠 그 모을에서 염네왕 잡아오랜 현 사람신디 강,

“아이고 염네왕 잡아오란 보래구랜 현거 어느 거 보내여 시나. 이제 강님이 강팍디 두갓이 낫인 팽종 뒤에 가네허고 밤엔 혼 무릅지선 좁자곡허는 사람을 저승보내구랜 했젠.”

아 경한 막 그원 모을 입서사는 사람신디간 막 원성을 허난, 이젠 강님이 강팍디 경 이제 잡으래 올동안 집춘이 불들 동안 이제 각시를 불러네,

“나 어서 부난. 어떻게난?”

허난 큰각신,

“가는 날 썸에 오는 날 썸 건장 그게 그 썸이우다.”

첩각시들은

“아이고 가젠현 게 고자 아자져수다.”

다른 각시들도

“발돋아가는 낭 가전계 고자 아자수다.”

어멍 아방네 불린,

“나 어시난 어땡헛디겐?”

어멍고라 들으난,

“아이고 가는 날 썸이나 오는 날 썸이나 그게 그 썸이여.”

“아방은 게난 나 어시난 어땡 헛디강?”

“그 어시난 기자 무신 거시기헛 때 생각나라.”

경 곶아 부난 그계 뭐 그리 큰각신 정절부인 씨절부인 직허난 무신 첩각시들랑 죽거든 무신 발돋아가는 낭 나가자. 아방으랑 무신 죽건 뭐 왕. 어멍으랑 죽건 곧루래 경허꼭이젠 그 집촌인가 헛 건. 저싱보넨 원장은 강님이 강팍디가 두 가지 혼무릅지선 잠젠허난. 불러들이랜 헛 불러들이난 이젠 너 저싱 가랜 허난 저싱 안 가오란 각시 살립만 살아시넨. 닥두리해 막 죽어켄,

“이눔 칼 썸우라. 이젠 뭐 옥방에 간허우라.”

해가난.

“아이고 나 혼말만 일러두민 죽어도 죽으켄.”

허난.

“뭇 말이냐?”

허난,

“염네왕이 이제 나 옷벗건 뵘써 등어리에 저싱글 쓰노랜 헛 저싱글 뵘써, 저싱 가오라시나 아니 가오라시나.”

옷을 벗언 노난 참 저싱글은 확실해여. 확실허난

“계건 저건 옥방이 간헛 놔두랜. 저거 온다 허는 날까지 지들런 염네왕 안오거드네 이제 지놈 죽여불어.”

옥방에 간헛 이젠

“모랫날 사오시로 나옵니덴.”

그 사람 해노난 뭐 모랫날 사오시 돼가난 뭐 그자. 왕방을 빗방을 허언 뭐 기자 와당탕허 난 염네왕이 파작허난 느려살 거 아니파? 파작허난 느려사난 오랜 불은 사람은 그만 노래연 지동되연 기동노릇이 원 들어사불 것이 아니파? 겁난, 아이 겨난 이제 염네왕은 이제 오란 허 난겐 그 강님이 강팍디그라,

“이 집을 누가 지어시넨?”

허난,

“강태공 서목사가 지서수덴.”

허난 개,

“그놈 불러 들어옴.”

허난. 그놈 불러들이난

“이 집 지슨 기둥이 땃겔 세와.”

보난,

“요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고 요건 나 아니 세운 기둥이우덴.”

허난

“저 대툽 아저오랜.”

헨 대툽 아저단 지등 삭삭 싸가난 피가 벌경허멍 그제 짐촌이가 바짝 나사난,

“예 날 불령오랜 해딩. 굶는 일이 뭇 일이나?”

허난,

“아이고 그제 아니라 과양생이 지집년이 아들 시 성제들 혼 날, 혼 시에 문딱 죽어노난 나 신디만 무사 나 야기만 죽게 해시넨 하도 원성을 아홉장을 이제 들어오난, 뭇 대담해 볼 수가 없고 나도 처리해 볼 수가 어신 염내왕을 불러수다.”

“에 경허연 계건 그 과양생이 지집년을 불러오랜.”

과양생이 지집년 불러단 이젠,

“너 야기가 확실허넨?”

“예. 나야기가 확실허우덴.”

“게저드넵에 그 문은 봉분을 가 그리치랜.”

무덤 봉분 가 그리치난 무신거 서. 아무 것도 어신 빈 봉분을 놔, 광도 아무것도 어신걸. 아들 이젠 과양생이 지집년들 두 가실 이젠 저 바당물 강 푸랜. 바당물을 죽져 살져 푸난 그 바당물 퍼집네까? 못 푸난 이제 염내왕이 그 성난 막댕이 삼시번 확 후리난 물이 바짝 뿌난, 이젠 그 저 아들들 시 성제 광을 죽어 널 거 아니파. 문딱 주서넨 봉분이 이선 이젠 확 후리난 바짝 일어서 바짝 일어서난 과양생이 지집년들 두 가실 세우난,

“이거 너네 어멍광 너네 아방겨여?”

뭇 활들러니 쌀들러니 그걸 막 죽이젠 허는 거라. 그리 봉왕 아들들이 물에 빠져 죽어분 아들들이 죽이젠 허난

“노네 죽일 턱 없덴. 내가 이제란 어멍국 찾고 아방국 찾고 헨 올라가랜. 그 노네 원수값은 내가 값을 테니까니 올라가랜.”

경해된 이젠 그 염내왕이 저 과양생이 지집넌덜 두갠이 말 아흠 쇠 아흠, 찢르는 쇠 아흠
초는 물 아흠 내방, 치너능져 막허던 방에 두개 뻘산 이젠 허풍,

“너는 사람 피 짜먹으멍 살아가시니까니 모기 몸, 각다귀몸 되영오네. 이제 저 피 짜먹으멍
살랜.”

해부난 각다귀도 나곡 모기도 나곡 현덴 해주게. 사름피 짜먹어 닐젠.

22. 콩택이 풋택이

제 보 자 : 부의환(여·81)

조사일자 : 1992년 7월 25일 23:39

조사장소 :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1리 제보자의 집

풋택이 콩택인 옛날 그 성방 엄간 다심에기 돌양살멍 큰각시 애길 돌안 살멍 시난, 애기도
싹곡 큰 각시 애기도 싹곡 헐 거 아니짜게. 게난 어디 하늘 광에 곳을 허연 곳을 보게되난 다
심똥 7란 굽터진¹¹⁴⁾ 낭에 물 그득이고 지장 다 떼져 두곡, 이제 올 때라그냉 저 창구망 목을
웃행 입어오고 경험 해주. 게난 자장바멜 압만 험으로 민작만작 저집니까. 느시 못 지난 가마
귀가 너름지라. 너름지라 허난 너렸단 자난 그자 오실허게 까전 지어전. 이젠 굽터진 항¹¹⁵⁾에
물을 질어노니 지뻬귀 빠져볼민 고득읍니까. 압만 질어¹¹⁶⁾ 놓당봐도 물이 그자 없곡 없곡.
이젠 가마귀¹¹⁷⁾가 선반우트래 보라 선반우트래 보라. 선반위 보난 송진이서 송진이 시난 또
이제 가마귀가 이젠 구윳지라 구윳지라. 이젠 그걸 구윳 참 구멍난덜 메와부난 물 두어번 질
어노난 소뻬 고득야 하이고 영현걸 저무랑 질어도 항이 아이 고득단 구난 항이 고득안져. 예
이 이제랑 창고망 막은 거 입영 굿보래 가져. 그가 창고망 막은 거 입젠허난 또 가마귀가 선
반우트래 보라 선반우트래 보라. 선반 위의 보난 그자 뭐 좋은 입성이서. 이젠 그거 아산 입
으난 그자 아이고 이제 입으면 막 좋을로구나. 이젠 또 선반 우트래 보라 선반 우트래 보라
혀. 선반우이 보난 가락참생이 이서. 가락함제시난 이젠 가랑창치 신고 그 좋은 옷 갈아 입고
허난 뒤 그자 윈 좋덴, 이젠 물 타아전 굿보래 가서. 굿보래 가난 어명험 신 한쪽이 그자 털
어져부난 '또 줄음에 물 타오단 사람이 그걸 혼 착을 봉가서. 봉간 이젠 굿밧되 들어간,

114) 밀 터진

115) 항아리

116) 길어

117) 까마귀

“이 신 임제가 누구고? 이 신 임제 이 발맞은 사람 나오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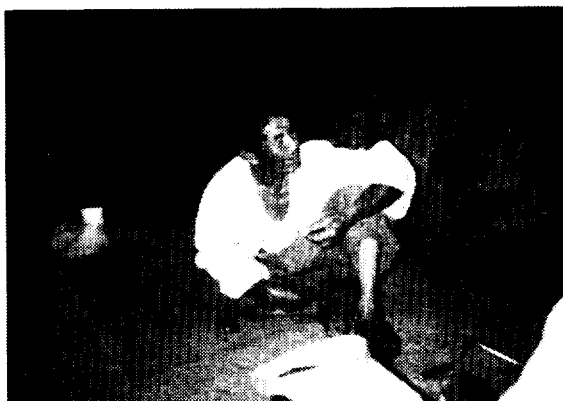
해서. 나오렌 허난 그 죽은어명 딸이 나오라. 죽은어명에 딸이 나오난 이젠 나오난 발에 맞을 꺼 아니짜. 그제 그만 그 사람 각시가 되부러서. 신 봉근 사람각시, 신 봉근 사람각시가 되연헌디 어떻겐 다시 신 털어진 여자도 다시 그 사람 각시가 되난 이젠 그 아신 어떻겐 죽 언 허난. 그 늬을 집안 손톱 발톱 문 해연 볶으지 아녜니까. 볶안 이젠 다심어명은 이제 막 걸뱅이가 될 꺼 아니짜. 동녕 바치가 된 이제 얻어먹으래 참 다심어명 곱히는 디 강방. 다심 딸 사는 디 찾안 얻어먹으래 갈 거 아니짜. 얻어먹으래 가난 다심딸은 이젠 서왕골, 가시골, 끈꿀. 문 주서당 이젠 명지맛것 명지저고리에 그 서왕골 가시골 끈꿀 문 담이방 저구릴 헐 거 아니짜. 저구릴허고 치매를 경 허고 해연 이제란 어머니 요 좋은 저고릴 해서매 입어복센 겐 주난 아 끈골 가시골 박으난 오죽 일고 감서. 그웃 입어집니까. 이젠 못입언 바지도 경헐 이젠 반찬을 볶안 주는 건 보난 윈 피기 먹어보민 맛은 좋은디 윈 손콍 발콍 닳은 게 시여. 어 떠난 윈 피기가 맛은 좋다만은 손콍 발콍 닳은게 반찬에 이서. 어, 이거 어떻허난 맛은 좋은 디 손콍 발콍 닳은 게 이시니 허난 콩택이가 자기 자식인 줄도 몰랑. 어명은 그때사,

“아이고 불쌍한 우리 풋택아.”

허명 죽으난 그 피가 대춧낭이영 어욱에강 문은 저라. 경허난 대춧낭에도 볼긋볼긋 어욱에 도 볼긋볼긋헌 게 그거렌 험디다.



설화 조사 장면



제보자 : 고 태 수



제보자 : 부 이 금(右)

信 仰

目 次	
I. 概觀	2. 個人信仰
II. 民間信仰	III. 公認宗教
1. 部落信仰	IV. 맺음말

I. 概 觀

善屹은 행정구역상으로 1리와 2리로 나뉘어져 있다. 한 마을 안에서 행정구역상의 나뉘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나, 善屹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善屹 2리는 양잠단지로서 새로 조성된 마을이고, 그 주민들 또한 대개가 外地人들이다. 따라서 1리와 2리의 주민간에는 생활습관·종교생활 등에서 아주 큰 격차가 있다. 신앙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善屹 2리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善屹一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종교양식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공인종교보다 민간신앙이 주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듯 했다. 위의 표에도 나타나듯이 공인종교로는 기독교 교회가 하나 있을 뿐이며, 성당이나 사찰은 없었다.

이 마을은 밭농사와 과수재배를 주업으로 하는 곳이며, 과거에는 목축도 매우 성했다. 그만큼 이 마을 주민들의 종교생활도 해안마을과는 차이를 보인다.

II. 民間信仰

善屹一리는 알善屹과 옷善屹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 동네 사이의 거리도 멀다. 알善屹은 '落善洞'이라고도 하며 먼저 형성되었다. 4·3사건이 일어나자 옷善屹 주민들이 알善屹로 피난가서 얼마간 함께 생활하였고, 이 때부터 두 동네 주민들은 여러가지 요소를 공유하게 되었다.

포제는 원래 옷善屹 주민들만 지내었다. 알善屹에서는 본향당에서 큰 굿을 벌였었는데 비용이 많이들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서 옷善屹의 포제에 합류하고 굿을 간소화시켰다고 한다.

옷善屹과 알善屹에는 각각 당이 하나씩 있는데, 각기 조상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당에 다니는 주민들은 대개 두 동네의 당을 모두 찾아가고 있었으나, 각기 당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서로 달랐다. 현지조사는 옷善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밝혀 둔다.

1. 부락신앙

1) 儒敎式 部落祭

(1) 포제

포제는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매해 정월에 지내는 유교식 부락제이다. 포제를 지낸 다음이러야 각 가호별 新年祭를 지낼 수 있다.

① 祭名

포제라고 부른다. 전에는 '天祭'라고 했었다. 포제의 '醮'자는 큰 제사를 지낸다는 뜻으로 쓰인다.

② 祭神

'醮神'과 '土神'이다. 하늘의 신을 포신, 땅의 신을 토신이라고 하는데, 같은 위치에 제단

을 두개 만들어 상을 두개 차리는 식으로 한다. 높이가 조금 높은 제단은 '포신신위', 그 옆의 높이가 조금 낮은 제단은 '토신신위'라 한다.

③ 祭日

祭를 지내는 날은 正月의 첫번째 '丁日'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만약 마을에 뺏을 당하는 집이 생기거나 해서 이 날에 지내지 못할 경우는 '亥日'로 미루게 된다.

④ 祭場

현재는 속칭 천제동산에서 약 150M 가량 떨어진 곳에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祭場의 위치는 현재까지 여러번 바뀌었다고 한다.

祭場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전에 처음 설치됐다. 그때는 부락향사라고 했던 지금의 이사 무소 터가 둥그런 공터였는데, 거기에 초가삼간을 지어 이행정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개량서숙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곳은 포제를 지내기에 적당치 않았다.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부정한 사람들도 오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매기'라는 오름에서 한두 해 지내기도 하였다. 그 다음엔 '천제동산'에서 지냈다. 그러나 제를 지내는 날이 음력 정월 초의 或丁或亥日이기 때문에 바람과 눈이 심해서 제를 지내는데 불편이 많았고, 몹시 추워 연로한 제관들이 견디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약 80 여 년 전에 마을 유지들이 현재의 포제터로 새로 정했다. 현재 위치는 방풍이 잘 되어, '포제터에서는 하늘과 땅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 정도이다.



포 제 단

⑤ 祭官

포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포제 한 달 전쯤에 부락총회를 열어 제관을 선출한다. 제관 대상자는 몸이 정결하고 마음이 건전해야 하며, 집안에 똥을 당한 일이 없어야 한다.

제일 웃어른을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으로해서 큰 제관 세 분을 추대한다. 그 나머지로 혹은 무슨 일이 생길까하여 예차헌관을 뽑고, 곧 장가든 사람을 소집사로 뽑는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제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獻官 이외의 제관에는 執禮, 大祝, 謁者, 贊者, 奉爐, 奉香, 奠酌, 司樽, 典司官이 있다. 예비제관까지 합하면 14명 정도가 되는데 뽑은 후에는 일일이 뽑힌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음과 같이 묻는다.

“총회에서 당신을 금년 ○○年度 ○○제관으로 뽑았는데 수락해 주시오”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제관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추천이 되면 반드시 제관을 지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⑥ 祭費

총회에서 祭費를 마련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사한다. 祭費를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나 정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액수에 관계없이 전주민이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대개 가구당 이천원 정도이다.

⑦ 祝文

【上壇祝文】

(酌神之靈)

維歲次 云云初獻官某 敢昭告于

酌神之靈 伏以 於赫明神 盛矣其德 絜我民物 實賴爾極 爰及新正 潔性差穀 物雖不腆 誠則靡忒 恭惟明靈 普施陰陽 弭災招祥 轉禍爲吉 扇以和氣 屏彼妖孽 人人壽福 家家安樂 豐厥百穀 蕃基六畜 瘼瘼痼疾 迺逐 俾我全里 均蒙嘉澤 謹以牲幣醴齊 柔盛庶品 式陳明薦 薦于神
尚饗

【下壇祝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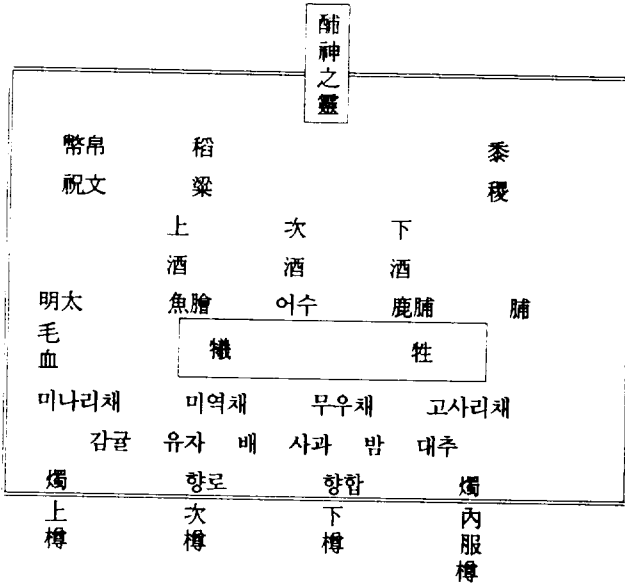
(土神之位)

維歲次 云云 初獻官某敢昭告于

土地之神 伏以神祇 可我民物 盛以其德 實賴爾極 春初辰良 政在其放 潔盛差穀
 誠則靡忒 恭惟明神 普施陰陽 弭災招祥 轉禍爲吉 扇以和氣 屏彼妖孽 人人壽福 家家
 安樂 俾我全里 均蒙嘉澤 謹以香幣 柔盛庶品 式陳 明薦于神
 尚饗

⑧ 祭物 陳設圖

【상단 진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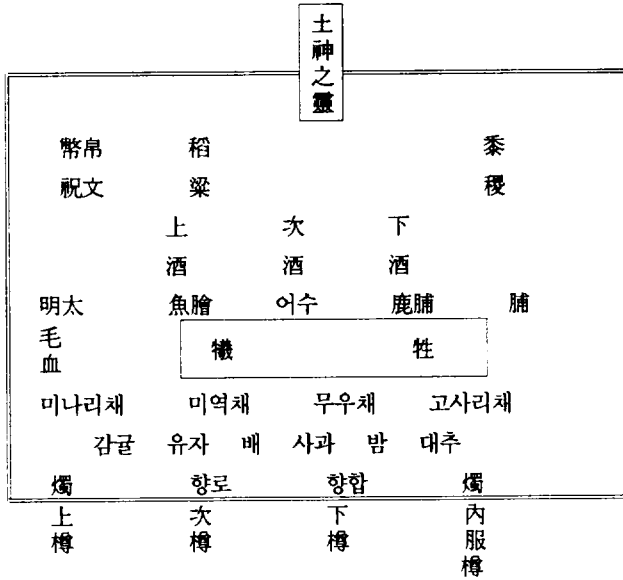


상단 진설도와 하단 진설도를 보면 둘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유일한 차이가 犧牲인데, 상단에는 돼지를 올리고 하단에는 닭을 올린다. 돼지와 닭은 익히지 않은 날 것이며 한 마리씩 통째로 올리고, 犧牲 옆에는 毛血을 올린다.

여기에 쓰는 메는 '산메'이다. '산메'란 일반적으로 밥을 짓는 방법과 달리 중탕을 이용하여 짓는다.

술은 세 가지 종류를 올린다. 上酒로는 감주를 사용하고, 次酒로는 조로 만든 막걸리 혹은

【하단 진설도】



청주, 下酒로는 일반 소주를 사용한다. 상주는 초헌관이, 차주는 아헌관이, 하주는 종헌관이 올리는 것이다. 개잔이나 취작은 하지 않는다.

⑨ 祭次

鄉校의 釋奠祭 지나듯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奠幣禮, 初獻禮, 讀祝, 亞獻禮, 終獻禮, 撤饗豆 順으로 진행한다.

⑩ 禁忌

3일 정성을 한다. 입제 첫날은 제관들이 전부 모인 후 새끼를 꼬아 금줄을 치는데, 이것은 '새끼를 맨다', '금줄을 맨다'고 하는 것이다. 큰 길가에서 포제 준비하는 집까지 골목마다 가로로 맨다. 이는 부정한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즉, 영장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싸워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⑪ 음복

음식이 귀할 때에는祭가 끝난 후 음식을 동네에 골고루 나눴었다. 현재는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

⑫ 본향당 참배 여부
참배하지 않는다.

(2) 祈雨祭

善屹一里에는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밭못'이라는 곳이 있다. 만일 여러날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면 밭못으로 가서 정성들여 청소한다. 그러면 1~2일 후에는 비가 온다고 한다. 정식으로 祭를 지내지는 않으며, 음식을 장만하지도 않는다. 청소하면서 물을 바가지로 떠서 하늘을 향해 뿌리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2) 巫式 部落祭

일렛할망은 웃善屹의 조상이고, 하르방은 알善屹의 조상이다. 주민들은 이처럼 서로 다른 조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두 신은 夫婦關係가 아니라고 한다. 알善屹 주민들은 하르방당에 가려고 할 때는 크게 정성하지만 할망당에 갈 때는 크게 정성하지 않으며, 또한 웃善屹 주민들도 하르방당에 갈 때는 크게 정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보자 부의함(86세)씨가 조사자들에게 들려준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善屹 주민들의 무속 신앙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예배당 사람들이 오랑 예배집 짓고 하간거 허는디, 그디 가치 종사허젠허민 사람이 살 수 이서? 혼달에 세번이여 네번이여 허는디 농사짓는 사람이 거기 나맹기젠 허민 일 해정 살아져? 일 행 못 살주. 일 행 사는 사람은 그디 종사허영 땡기지 못해. 그자 무을 사람 위하는디 그런디 일년이론 혼번 딱 가오민 끝으로 호고, 정월나민 또 하느님 위하는 조상 - 포제라고 허는 거 허민 매기주. 그거 가오민 그저 우린 믿어졌구 나 허주게.”

(1) 일렛할망당

① 堂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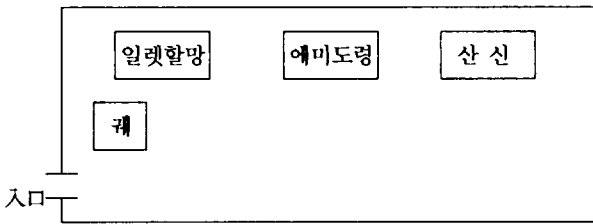
일렛할망당에는 세 神이 모셔져 있다. 큰할망 즉 일렛할망과 에미도령, 산신이다. 에미도령이 할망당에 모셔진 내력에 대해 김봉옥(85세)씨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다.

김동지 영감은 옷솥屹 조상인데 큰어멍 모르개 첩에서 난 자식을 병풍 뒤에 감춰두고 키웠었다. 평소에 밥을 남기던 할아방이 밥도 남기지 않고, 세숫물도 되게 나오자 큰어멍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영감이 벼슬자리 때문에 서울로 가자 병풍을 들춰 보았다. 아이가 숨겨져 있었다. 큰어멍이 배설이 나서 삼십여대를 때려가자 아이가 간간무리를 했다. 영감이 돌아와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한라영산에 찾으러 갔으나 찾지 못했다. 솥屹곳을 찾으러 갔는데 가시나무에 분홍치마가 걸려있어 찾고, 너는 이제 할 수 없이 큰할망 옆에서 연어먹으라고 했다.

② 祭日

정월 초 일레이다.

③ 祭場의 形態



각 神을 모신 곳은 평평한 돌을 이용하여 만든 조그만 돌집으로 되어 있고, 입구에 있는 케는 음식을 걸명하는 곳이다.

④ 祭物

메 3그릇, 과일, 제숙(海魚) 등이다. 에미도령에게는 갯것제숙(海魚)을 올리지 않는다. 집안의 어린아이들이 허물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⑤ 비념

善屹里 學術調查報告

“일례할마님 성은 ○○고 나이는 ○○우다. 영 오랑 대우 적선행시메 올 금년 계수
대통허게 시경 하나 굿은 일 나지 말게 해 줘서.”

⑥ 禁忌

당에 가려고 할 때는 삼사일 전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할망당 전경

(2) 아들하르방당

① 堂神

송당의 일곱형제 중에서 다섯번째 아들이라고 한다.

② 祭日

정월 14일이다.

③ 祭物

시리(시루)는 통째로 올리며, 다섯가지 과일, 바닷고기, 술로는 감주, 정종, 소주를 올린다. 채소로는 콩나물, 고사리 등이 있다. 매는 '산매'로서 하나를 올리는데, 매에다 향가지를 새 개 꿩는다. 옷뽕屹 이장은 따로 시리를 치며, 이것은 일뽕屹의 것과 한상에 올려 놓는다. 사람들이 가지고 온 매는 오는 순서대로 늘어놓게 되어 있다. 대개 오른쪽은 뽕屹, 함덕, 신촌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을 늘어 놓고, 왼쪽에는 알곶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을 늘어 놓는다.

④ 祭費

전에는 알곶 부인들이 돈을 건어서 제를 지냈었다. 현재는 당지원금이 나왔을 때 사람들로 부터 돈을 회사받아 몇년간 쓸 비용을 마련해 두고 있다. 거리제를 그만둔 후로는 심방품삿, 제물대 정도에 돈이 들고 있으나, 굿의 시기가 조합장 선거나 이장 선거기간과 겹치므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회사하고 있다.

⑤ 祭儀管理

현재는 동장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옛날에는 동장이 아니라 상당골에서 관리했었다. 처음에는 곶 갑부였던 김전적이 관리했었는데 4·3사건을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 내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상당골은 처음에는 김씨, 윤씨, 부씨까지 차례로 지냈고, 부씨에서 종결되어 그 이후로는 모든 재반사항을 동장이 처리하게 되었다.

거리제를 크게 할 때는 남자들이도 참가를 많이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곶리장이나 몇몇 마을사람 등만 참가한다. 천막치는 것이나 제를 관리하는 정도이다.

⑥ 祭次

초감제를 먼저 지내고 거리제를 지낸 다음 다시 堂으로 들어가서 제를 지낸다. 그 후에는 심방이 마을 사람들의 일년 운수를 봐주고, 액을 막는 일도 그 자리에서 해 주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린다. 거리굿은 2년에 한번씩 했었으나 웃곶의 포제에 참가하기 시작하면서 그만두게 되었다.

거리제에는 북, 장구, 징, 쟁과리 등의 악기가 사용된다. 살아있는 닭을 끌고가는 사람 뒤에는 쟁바치가 나무막대기를 들어 총쏘는 시늉을 하는데, 기는 맨 앞에서 간다. 기에는 '곶 本郷大明之神位' 라고 쓰여 있다. 행렬은 상당히 길며, 지나가던 차들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당 앞을 지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말이 다리를 절었다. 행렬을 할 때는 심방이 염불하고 춤을 추는데, 따르는 사람들도 내키는 사람들은 춤을 춘다. 닭은 밀바닥에서 끌려간다. 총을 가진 사람은 갈중이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어 총잡이 모양으로 차린다. 닭을 쏘는 시늉을 하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행렬의 앞에서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다. 처음 시작은 닭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며, 남을 웃기는 역할을 한다. 총잡이 역할을 심방이 한다. 닭은 당에 도착하기 전에 너

상골에서 죽이고, 젓상 옆에 놔둔다. 뒷처리는 심방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다. 너상골이란 현재 '동백상회'가 있는 넓은 터를 말하는데 행렬은 여기까지 왔다 간다. 알善屹에서는 골목마다 들어가지만 웃善屹에서는 너상골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 골목마다 다니는 것은 마을의 편안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⑦ 禁忌

제물을 관장할 사람은 삼일전에 정성한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부부의 잠자리를 피한다.

(3) 절궁

4·3전에는 절궁이 크게 행해졌었는데 그 후에도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점차 사라졌다. 2~3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이 때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놀면서 친목을 도모하였고, 성주를 내리지 못한 집에는 성주를 내리는 성주풀이의 역할도 했다. 쟁과리, 북, 장고 등을 갖춰 가가호호 방문하며 집안을 편안하게 해 달라고 입담을 해 주었다고 한다.

2. 개인신앙

1) 儒式 : 백중제

과거 善屹리는 목축이 성한 곳이었고, 특히 소를 많이 길렀다. 현재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나 과거에 소를 키웠던 사람들이 음력 7월 14일에 백중제를 지낸다. 소가 잘되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며, 남자들만 참가한다.

① 祭場

낮에는 당에서 제를 보고 제가 끝나면 개개인이 음식을 차려서 산에 올라가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깨끗한 잔디밭에서 지내기도 한다. 옆에 묘가 없는 깨끗한 장소를 찾으며, 비가 오면 집에서 지낸다.

② 祭物

매를 2개 올린다. 하나는 산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우리(소몰이꾼)를 위한 것이다. 닭, 포 등도 가지고 간다. 그 해에 막히지 않은 방향으로 상을 차린다. 잔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수저를 꽂아 절을 한다. 2배는 정성이고, 1배는 반절이다.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 것은 아니며, 약 70% 정도가 절을 한다고 한다. 10시쯤 되면 제반을 걷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 백중제의 음식은 모두 먹고 가야 한다.

2) 쑈식

(1) 맹감제

맹감은 '벨롱갱이'라고도 한다. 정월에 마을에서 포제를 지내기 전에는 절대 먼저 지낼 수 없으며, 심방을 데려다 지낸다. 제물로는 돌래떡, 보시떡, 7종 과일(배·사과·귤·비자·대추·밤·곶감), 명태, 오징어(다른 바닷고기는 올릴 수 없다), 채소 3종(미역채·미나리채·무우채), 감주, 산메 등이다. 쌀도 올려 놓는데 그릇에 쌀을 넣고 아직 피지 않은 동백꽃 봉오리를 꽂아 놓는다. 일주일 전부터 돼지고기·개고기를 먹지 않으며, 집에 두지도 않는다. 제물은 집에서 차리지만 전설은 심방이 한다.

(2) 돛제

他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善屹로 이사온 경우, 혹은 김녕 등 동쪽에서 머느리가 시집 온 경우, 귀신이 쫓아 오다고 하여 돛제를 지낸다. 돼지 한 마리를 올리고 무당을 불러다 비님을 한다. 그러면 귀신이 위로를 받게 되고, 집안이 편안하게 된다고 한다.

(3) 할망놀

토산쪽에서 머느리가 오면 뱀신이 쫓아 온다고 한다. 이것은 뱀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할망놀을 만들고 거기에 뱀신을 모신다. 할망놀은 주쟁이(난가리)를 덮어서 만드는데, 그 안에는 기왓장이나 오목한 돌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대개 오곡 등을 놓아 둔다.

(4) 조왕제

조왕제란 부엌신을 모시는 것이다. 1년에 한번 지내는 것으로, 재래식 부엌일 경우 밥을 한 술째로 제를 지내게 된다. 솥뚜껑 위로 물을 뿌리면서 편안하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제를 지내고 난 뒤 그 밥은 먹는다.

부의합(86세)씨께서 조왕할망이 부엌신이 된 내력에 대해 말한 것을 정리하였다.

“조왕할망이 요양에 빠져죽어서난 죽은 아들인 문전이 뜻뜻하게 불 쪼명 얻어먹으라고 부엌신을 뉘들었주. 모든 인민이 문전제 지내거든 제반 삼술 거두어 어머에게 드리거든 먹읍서 헛거라.”

Ⅲ. 公認宗教

공인종교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기독교 교회가 있을 뿐이었다.

① 명칭 : 기독교 대한 감리회 善屹교회

② 연혁 : 1977년 10월에 세워졌다. 그 설립배경에 대해 이 교회의 책임자인 김교석 전도사(34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을의 협조에 의해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대 교역자인데 처음 설립 당시 이 마을에는 농약을 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유지분들이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땅을 사는 데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있던 자리에 창고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3~4년간 예배를 보다가 지금 위치를 사서 교회를 짓게 되었죠. 교회를 짓고나서 악을 먹고 죽는 사람이 드물게 되었습니다. 마을사람들 자체가 교회에 나오고 하지는 않지만 교회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베타적인 면들도 많습니다. 마을 중앙의 대지이기 때문에 마을의 협조가 없었다면 교회건립이 불가능 했겠죠.”

③ 교인현황 : 등록된 교인으로는 성인 30여 명, 중·고등학생 10여 명, 국민학생 30여 명 가량이다. 교인들은 대개 善屹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나 토박이가 아닌 外地人들이며, 이들은 대개 혼자 사는 불우한 사람들이다. 교인의 수가 적어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④ 주민들과의 관계 : 마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마을행사나 경조사에 참가하는 편이다.

⑤ 시설 : 건물 2동(예배당 1동, 사택 1동), 셔틀버스 1대

⑥ 예배상황 : 공식적 예배로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밤 예배가 있다. 금요일에는 속회가 있는데 이 때는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라 한다. 새벽기도는 매일 있으며, 여름에는 4시 30분부터이고, 겨울에는 5시부터이다. 여름같은 경우 저녁기도는 만장굴에서 한다. 통성기도를 하기 때문에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겨울에는 그대로 교회에서 예배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善屹里 주민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善屹리를 조사하면서 善屹一里에 한정시켰고, 善屹一里에서도 善屹을 중심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을 어느 정도나마 정리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善屹은 공인종교보다는 민간신앙이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포제터라든가 당이 있는 곳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주민들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보관해두고 있었다. 조사 기간 동안 善屹一里 주민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옛것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意志를 느낄 수 있었다.

제보자

포제 · 기우제 · 절궁 : 부봉룡(남·54세)

기독교 교회 : 김교석(남·34세)

堂 : 부의함(여·86세), 김봉옥(여·85세), 박춘순(여·48세), 고경근(남·44세)

백중제 : 고경근(남·44세)

돛제 · 할망늬 · 조왕제 : 부의함(여·86세)

맹감 : 김진희(여·46세), 김시룡(남·47세)